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자료

- 일 시 : 2018. 9. 18.(화) 14:00
-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
- 참석자 : 윤인석(위원장), 김문수,
김연희, 김이순, 부길만,
송기한, 신안준, 안창모,
오용섭, 이광표, 한태식(이상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해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따라 회의 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 현상변경 (남대문시장 게이트 입간판 설치)	
2	「완도 소안면 당사도 등대」 문화재 등록	
3	「통영 황리공소」 문화재 등록	
4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문화재 등록	
5	「윤봉춘 일기」 문화재 등록	
6	「도화임본(圖書臨本)」 문화재 등록	

【검토사항】

7	「구 진월면사무소」 문화재 등록 검토	
8	「고흥 죽산재」 문화재 등록 검토	
9	「고양고등학교 석조관(강당)」 문화재 등록 검토	
10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문화재 등록 검토	
11	「지청천 일기」 문화재 등록 검토	
12	「북해도 고락가(北海道 苦樂歌)」 문화재 등록 검토	
13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 문화재 등록 검토	
14	「의병장 최익현과 12의사 압송도」 문화재 등록 검토	
15	「호양학교 동종」 문화재 등록 검토	
16	「백범 김구 유묵 '知行合一, '老當益壯」」 문화재 등록 검토	

심 의 사 항

1.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의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남대문시장 게이트 안내 조형물 설치’계획과 관련한 현상변경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남대문시장 게이트 안내 조형물 설치’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3-3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9m 이격,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
 - 현상변경허용기준 :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 신청내용 : 남대문시장 게이트 안내 조형물 설치
 - 구조 : 강판, 스테인리스 등
 - 면적 : 1.67m²
 - 수량 : 1개
 - 최고높이 : 5.9m

라. 현지조사 의견 (2018.9.11.) : 문화재전문위원 000, 000

- 설치 예정인 안내 시설물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설치 장소의 경관상태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주변의 지정문화재(서울 한국은행 본관, 옛 제일은행 본점)를 배려한 경관과 주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모색할 것

○ 출석 10명 / 부결 10명

2. 「완도 소안면 당사도 등대」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완도 소안면 당사도 등대」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7.24.)를 거쳐 등록 예고한 「완도 소안 당사도 등대」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완도군청
- (2) 대상문화재 : 완도 소안 당사도 등대
 - 소재지 :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1번지(당사도길 17-239)
 - 용도 : 등대
 - 소유자 : 해양수산부(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 수량 및 면적 : 등탑 1동(면적 11㎡, 높이 9.4m)
 - 건립시기 : 1909년 1월
 - 구조 : 콘크리트조
- (3) 등록예고 : 2018. 8. 6 ~ 9. 4.(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위원(2018.7.12.)

- 산업유산으로서 등대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본 유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근대사의 항일 유적으로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여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항일”에 방점을 두고 등록가치를 부여한다면 의병들의 의거 때 침투하였던 해안절벽의 진입로도 확인 후 등록 추진하여 등탑과 함께 보존되어 장소와 공간의 가치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렌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부속기계실 등의 유구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서 등탑을 포함하여 면적인 보존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000 문화재위원(2018.7.12.)

- 당사도 등대는 1909년 당사도 등대 습격사건의 역사적 장소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완도군 항일운동의 유일한 실체적 현존 유적이라는 대표성, 상징성을 지니며 또한 등대 건설 초창기 소규모 등대의 형식과 구성을 잘 보여주고 원형의 보존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등대뿐만 아니라 남쪽의 절벽과 면한 부분에 남아 있는 건설 당시의 석축 원형, 등대 서쪽에 전시되어 있는 에어사이렌의 나팔과 공기탱크도 함께 보존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록구역을 등대를 중심으로 이들을 포함하여 설정함이 타당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7.12.)

- 당사도 등대는 근대기 만들어졌던 등대라는 측면 이외에 일본의 수탈을 막기 위해 소안도 주민과 의병들이 의거를 일으킨 역사적 장소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인근 지역(소안도와 신지도 등)으로 전개된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항일 독립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이에, 시설물(산업유산)로서 등대(에어사이렌 나팔 및 공기탱크 포함)와 함께 등대 습격 당시 의병들의 진입 통로로 확인되는 지형을 포함하여 등록범위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완도 소안 당사도 등대 (구) 완도 소안 당사도 등대
2. 용 도 : (현) 등대(폐쇄) (원) 등대
3.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길 17-239
4. 소유자 : 해양수산부(목포지방해양수산청)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09년 1월
 - 수량 및 면적 : 1동, 11.0㎡
 - 층수(높이) : 지상 2층, 높이 9.4m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 (2018.7.12.) >

1) 개요

- 1909년 1월, 대한제국 말기에 건립되었으며 조선의 각종 산물수탈을 시작하던 일본이 일본군함과 상선의 운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련한 시설물이다. 이때는 구한말 항일의병의 활동이, 내륙에서 이어지는 탄압과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 여러 지역으로 피신과 분산이 이어지면서 북으로는 간도지역, 서쪽으로는 중국의 상해 등으로 진출한데 반하여 남쪽으로는 도서지방으로 연결되어 도서민들과 연합한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던 시기이다. 1909년 2월 24일 소안도 출신 이준화와 의병 5명이 남서쪽의 해안 절벽으로 등대에 접근하여 간수 4명을 사살하고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는 의거를 일으킨, 항일운동사에 중요한 장소이다. 이 의거가 완도(소안도, 신지도 등) 일원의 항일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통신기지로 사용되었으며 공습을 받아 피손되었다가 1947년 복구되었다. 2008년에 제2등대를 신축하여 등대의 기능은 새 등대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 유구는 현재 기능이 없는 채로 존치되어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등대문화유산 제21호’로 지정되어 있다.
- 등탑의 남쪽 해안은 절벽인데 이곳이 의병들이 등대를 습격할 때 접근하였던 진입로였는데 원형대로 잘 유지되어 있으며 해무가 낀 날에 사용하던 사이렌 용 나팔과 기계실 벽체 구조물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당시의 시설물 배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원형 평면에 안쪽으로 기울어진 벽쪽으로 설치한 철제 원형계단으로 상하 이동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1층 출입구는 반원형 아치가 올려져 있는 포치형태로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다. 등명기가 설치된 2층의 슬라브가 외벽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등명기가 설치되었던 2층은 금속천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360도 유리창이 설치되어 등대의 불빛을 비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등탑의 외벽은 전체적으로 흰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등명기를, 2008년 건립한 새 등대로 이전한 것 외에는 원형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아울러 의병들의 기슭진입로가 있는 해안절벽 또한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이미 해양수산부의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근대산업유산의 유구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인적이 드문 곳의 유구로서 보존, 유지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고흥 구 소록도 갯생원 등대(등록문화재 제72호),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제106호), 군산 어청도 등대(제378호), 해남 구 목포구 등대(제379호), 신안 소흑산도 등대(제380호) 등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산업유산으로서 의미를 중심으로 가치를 인정한 유구들이다. 하지만 당사도 등대는 남쪽 도서지역의 항일운동과 관련 있는 유구로서 한국근대역사의 연결하여 또 다른 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는 유구라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산업유산으로서 등대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본 유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근대사의 항일 유적으로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여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항일”에 방점을 두고 등록가치를 부여한다면 의병들의 의거 때 침투하였던 해안절벽의 진입로도 확인 후 등록 추진하여 등탑과 함께 보존되어 장소와 공간의 가치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렌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부속기계실 등의 유구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서 등탑을 포함하여 면적인 보존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1안 - 완도군 구 당사도 등대
- 2안 - 완도군 당시도 제1등대

< 000 문화재위원 (2018.7.12.) >

1) 개요

- 전라남도 완도군 지역은 일제강점기 동안 항일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특히 1920년대 당시 송내호(1895~1928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를 중심으로 한 소안도 지역과 임재갑(1891~1960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을 중심으로 한 신지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
- 완도군 지역 항일운동의 시발점으로 1909년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이 주요한 역할을 하던 것으로 평가되며, 당사도는 소안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 여건상 해상항로에서 중요한 지점이었으므로 국내에서 수탈한 물품을 일본으로 신고 가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1909년 1월 등대를 건설

- 일제의 어업권 수탈로 생존권의 위기를 맞이한 완도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소안도 출신 의병 6명이 1909년 2월 당사도 등대를 습격하여 일본인 4명을 사살하고 주요 시설물을 파괴
- 현재 완도군 소안도와 신지도 출신의 항일운동 유공자가 다수 배출되었고 (사)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와 (사)신지항일운동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각각 기념관과 기념탑을 건립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하고 있지만, 항일운동 당시의 실체적 유적으로는 당사도 등대가 유일하게 현존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등대의 기본적인 형식은 등명기를 받쳐주는 탑 형태의 구조물인 등탑(燈塔), 등명기를 보호하고 조작하는 공간으로 유리 같은 투명재질로 둘러싸인 등롱(燈籠), 등롱 내부에서 빛을 발산하는 등명기(燈明器) 그리고 숙소, 창고, 발전기실 등의 부속시설로 구성
- 1903년 인천항 앞 바다에 팔미도 등대가 국내 최초로 건설된 이후 일제강점기 당시 다수의 등대가 건축되었으며, 당사도 등대는 서해안으로부터 일본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지리적 여건을 배경으로 이른 시기인 1909년 건설
- 당사도 등대는 당사도 남쪽 해안에 면한 높은 절벽지대에서 지형상 높은 위치를 이용하여 높지 않게 소규모로 건설되었으며, 기본적 형식은 콘크리트 구조, 높이 9.4m 규모로 등탑, 등롱, 등명기에 의해 구성되었고 부속시설 건물과 복합되지 않고 별도로 단독으로 건설
- 등탑은 상부로 갈수록 직경이 약간씩 감소하는 원통형으로 전면 출입구는 주위를 사각형의 양쪽 기둥과 상부 아치에 의해 돌출시켜 장식하였으며, 내부는 바닥으로부터 곡면 벽체를 따라서 상부의 등롱으로 연결되는 조립식 철제 나선형 계단을 설치
- 등롱은 중앙에 등명기를 설치하고 바닥 슬래브의 개구부를 통해 하부 철제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되며, 외부에는 원형 평면의 발코니와 난간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돛형 지붕을 가설
- 본래 등대 남쪽의 절벽과 면한 부분에 부속시설 건물과 석축이 등대와 함께 건설되었지만, 현재는 부속시설 건물은 철거되고 석축은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 1934년 부속시설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압축된 공기로 음향을 발생시켜 등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음파표지(音波標識) 역할을 하였던 에어사이렌(Air Siren)의 나팔과 공기탱크 일부가 현재 등대 우측에 전시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당사도 등대는 2008년 현대화 정비공사를 통해 본래 등대는 그대로 존치한 채 부속시설 건물 등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높이 21m의 새로운 등대와 사무동, 숙소동 등을 신축
- 현재 본래의 등대는 등탑 내부의 나선형 철제 계단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만 등롱 내부의 등명기는 2008년 새롭게 건설된 등대로 이전, 설치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주 해양수산부에서 문화유산적 측면에서 당사도 등대를 포함한 오래된 등대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사도 등대는 외부와 격리된 자연환경 속에 입지하고 있어 문화재로서 기본적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당사도는 완도군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고 섬 내부에서도 항구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소유주 해양수산부는 당사도 등대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 활용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등대 지정문화재로는 팔미도 등대(인천 유형문화재 제40호), 가덕도 등대(부산 유형문화재 제50호), 호미곶 등대(경북 기념물 제39호), 울진죽변 등대(경북 기념물 제154호)의 사례가 있음.
- 현재 등대 등록문화재로는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등대(제72호, 1937년 건설),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제106호, 1958년 건설), 군산 어청도 등대(제378호, 대한제국기 건설), 해남 구 목포구 등대(제379호, 대한제국기 건설), 신안 소흑산도 등대(제380호, 1935년 건설)의 사례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당사도 등대는 일제강점기 동안 소안도와 신지도를 중심으로 완도군 지역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던 1909년 당지도 등대 습격사건의 역사적 장소이며, 당시 항일운동의 실제적 유적으로는 유일하게 현존하며 대표적, 상징적 장소로 역할
- 당사도 등대는 서해안으로부터 일본으로 수탈물품을 싣고 가는 항로에서 거쳐야만 하는 지리적 여건을 배경으로 1909년 건설되었으며, 기본적 형식은 콘크리트 구조, 높이 9.4m 규모로 등탑, 등롱, 등명기에 의해 구성되었고 지형상 높은 절벽을 이용하여 높지 않게 소규모로 건설
- 높지 않고 상부로 갈수록 점차 직경이 감소되는 원통형 등탑, 양쪽의 사각형 기둥과 상부 아치에 의해 돌출되어 장식된 등탑 출입구, 등탑 내부에서 곡면 벽체를 따라서 설치된 조립식 철제 나선형 계단, 돛형 지붕의 등롱 등이 주요 특징
- 대한제국 당시 1903년 팔미도 등대가 국내 최초로 건설된 이후 등대 건설의 초창기에 해당되는 1909년에 건설되었으며, 오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건설 당시 원형의 보존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
- 이상과 같이 당사도 등대는 1909년 당사도 등대 습격사건의 역사적 장소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완도군 항일운동의 유일한 실제적 현존 유적이라는 대표성, 상징성을 지니며 또한 등대 건설 초창기 소규모 등대의 형식과 구성을 잘 보여주고 원형의 보존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등대뿐만 아니라 남쪽의 절벽과 면한 부분에 남아 있는 건설 당시의 석축 원형, 등대 서쪽에 전시되어 있는 에어사이렌의 나팔과 공기탱크도 함께 보존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록구역을 등대를 중심으로 이들을 포함하여 설정함이 타당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완도 당사도 구 등대 또는 완도 소안 당사도 구 등대

< 000 문화재전문위원 (2018. 7. 12.) >

1) 개요

- 전라남도 완도군의 최남단 소안면 당사도에 위치한 ‘당사도 등대’는 1909년 1월에 세워져 2008년 10월까지 등대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현재에도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고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6년 12월에 ‘등대문화유산(제2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어 오고 있음.
- 당사도 등대는 최초 일본이 수탈한 물품을 자국으로 향하는 배의 항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며, 이후 일본의 동아시아전쟁 시 군용 통신기지로 사용하던 과정에서 일부 파손된 것을 해방 후에 복구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음.
- 해방 이후부터 등대의 기능을 상실한 2008년까지는 소안도와 추자도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2008년 12월 그 인근에 새로 세워진 등대(제2등대)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 선행 연구에 의하면, 1909년 2월 24일 당사도 주민(이준화씨)과 의병들이 등대를 습격, 의거를 일으킨 역사적 장소이며 이후 이를 계기로 인근 지역(소안도와 신지도 등)으로 전개된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현재 등대 옆에는 당사도 등대 습격과 관련하여 이들 의병들의 항일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항일전적비’가 위치하고 있음.
- 오늘날 소안도는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북청, 경상남도 동래 등의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된 곳으로 당사도 등대 의거 직후, 수많은 비밀결사대 활동 등 항일운동을 끊임없이 펼친 항일운동의 성지로 평가 되고 있음.
- 또한, 소안도 주민들은 2012년부터 섬 전체 가구가 365일 태극기를 게양하는 태극기 섬으로 뜻을 모아 선열들의 숭고한 항일정신을 기리고 있으며, 매년 ‘소안항일운동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당사도 등대는 콘크리트로 축조된 높이 8.2m의 백색 원통 형태의 등대로 근대기의 건축양식 및 건축재료, 의장수법 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기에 세워진 여러 등대들에 비해 상당 부분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등대의 외관은 전체적인 비례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고 또한 주변 바다의 풍광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원형의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한 축조기술 역시 당시의 건축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내, 외부는 콘크리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여 마감하였음.
- 등대 정면에 출입문 두어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출입문은 원통형의 등대 외벽에서 돌출시킨 별도의 전실 공간에 설치하였음. 등대 출입구 상부에는 반원아치를 두었고 그 아래 양쪽에는 도릭 오더양식 형태의 필라스터(벽기둥)로 장식하였음. 출입문 및 전실의 창호는 원형이 아닌 후에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2짝 미서기문을 달았으며, 내부에는 나선형으로 설치된 철제 장식계단을 통해 최상부 발광기가 위치한 공간까지 연결해 주고 있음. 당사도 등대의 불빛을 비추는 발광

기는 2008년 등대의 기능 상실과 함께 새로 세워진 등대(제2등대)의 발광기로 재 사용하고 있음.

- 과거 당사도 등대는 안개 등의 기상상태로 인해 시계가 불량한 경우 불빛이 아닌 음향으로 등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그 일부 장비(에어 사이렌 나팔 및 공기탱크)가 잔존하고 있음(이 시설은 1934년 10월에 설치되어 2008년까지 사용되었으나, 현재 주요시설은 모두 소실되고 일부 장치만 잔존)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08년 이후로 등대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등대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부 시설(문짝 등)의 마감재 등의 변형과 일부 외벽 마감재가 박락된 상태임.
- 현재 등대문화유산(제21호)으로 지정되어 계속해서 유지, 보존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 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해양수산부) 측에서도 소안도 지역의 항일독립문화유산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등대시설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근대기 건립된 등대로서 건축적 특징과 함께 등대문화유산(제21호)으로 계속해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만큼 등록문화재로서의 활용적 측면에도 부합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당사도가 완도군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등으로 보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지만 향후 지역의 항일 관련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등대(제72호)’, ‘해남 구 목포구 등대(제379호)’, ‘신안 소흑산도 등대(제380호)’ 등의 사례가 있지만, 당사도 등대는 항일독립운동사적 측면에서 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잘 담고 있어 기타 사례와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당사도 등대는 근대기 만들어졌던 등대라는 측면 이외에 일본의 수탈을 막기 위해 소안도 주민과 의병들이 의거를 일으킨 역사적 장소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인근 지역(소안도와 신지도 등)으로 전개된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항일 독립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이에, 시설물(산업유산)로서 등대(에어사이렌 나팔 및 공기탱크 포함)와 함께 등대 습격 당시 의병들의 진입 통로로 확인되는 지형을 포함하여 등록범위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소안 당사도 등대

3. 「통영 황리공소」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통영시 소재 「통영 황리공소」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7.24.)를 거쳐 등록 예고한 「통영 황리공소」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 통영 황리공소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100
 - 용도 : 종교시설
 - 소유자 :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 수량 및 면적 : 건축물 1동 / (건축면적 211.87㎡, 연면적 211.87㎡)
* 현황측량 면적 : 196㎡ (2018.8월)
 - 건립시기 : 1934년 4월 11일(상량문)
 - 구조 : 목조
- (3) 등록예고 : 2018. 8. 6 ~ 9. 4.(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위원(2018.4.30.)

- 구한말 천주교 양대박해(병인, 무진) 이후 인근 거제와 통영에 거주하던 신도들이 뱃길로 접근이 용이한 황리로 들어와 피신하였다가 육로로 연결되는 고성 등 내륙으로 이동하려 하였던 것을 짐작케 하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 중요한 위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원형유지 상황도 좋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000 문화재위원(2018.4.30.)

- 황리공소는 포구라는 지리적 여건상 일찍부터 교역과 군사의 중심지로 발달되었고 천주교도 전래되었던 황리지역에서 1893년 설립된 후 영남 남부해안 지역의 종교적 거점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전성기 당시인 1934년 현재의 공소 건물을 건축
- 내부 신도석 중앙에 3개의 기둥이 장축방향으로 배치되어 남,녀 신도석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제단 앞쪽에는 횡축방향으로 좌우에 2개의 기둥이 배치되어 신도석과 제단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역할
- 내부에서 기둥이 장축과 횡축 방향으로 배치되고 제단 전면과 후면의 횡축방향 기둥들이 서로 다른 간격으로 배치되면서 전체적 목조구조체를 3랑식(三廊式)의 일반적 한옥 성당과 다르게 구성
- 황리공소는 한옥 성당으로 지붕, 외벽 등의 부분에서 마감이 일부 변형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한옥 성당으로서의 기본적 목조 구조체와 장축형 성당으로서의 기본적 공간구조를 원형 그대로 보존, 유지
- 황리공소는 이상과 같이 한옥성당으로서 역사적, 지역적,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4.30.)

- 인근의 한옥을 이축하여 공소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 기능에 맞게 계획하여 건립된 것인 만큼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근대기 천주교가 토착화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 한옥이 변모해 가는 건축적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통영 황리공소 (구) 황리공소
2. 용 도 :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100
4. 소유자 :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1934년 4월 11일 상량 (상량문)
 - 수량 및 면적 : 건축면적 211.87㎡, 연면적 211.87㎡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 (2018.4.30.) >

1) 개요

- 황리공소는 1893년경에 성립되었다. 1935년에 신도들의 부지 헌납과 헌물로 현재와 같은 35명의 한옥성당을 건축하여 본당으로 승격하기도 하였다가 1939년 고성본당 관할의 공소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세월의 흐름 속에 신도수의 변화, 주변 도시화경의 변화 등이 있기는 하였지만 공소와 사제관 부속건물, 종탑 등은 원래의 모습대로 유지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정면 3칸, 측면 5칸 반의 단층 한옥 목구조로 된 바실리카 형식의 성당건축이다. 주출입구는 서쪽이며 제대는 동쪽에 있다. 서쪽 주출입문은 쌍여닫이이며 문을 들어서서 신발을 벗는 좁고 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남쪽과 북쪽의 세 번째 칸에 쌍여닫이로 된 부출입구가 있으며 여기에는 바깥에서 신을 벗고 예배실 마루로 오르도록 되어 있다. 제대 쪽 마지막 칸 남쪽에 제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예배실 바닥은 목재 장마루이며 제대 앞까지 중앙에 목조기둥이 한 줄로 세워져 있고 제대의 앞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서 있다. 제대의 높이는 시자석보다 약 20cm 정도 높다. 제대의 뒷공간은 제의실 및 고해실로 구성되어 있다. 예배실 중앙의 기둥은 남녀 신도석 분리를 위한 칸막이 시설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내부공간에는 천장반자가 없이 지붕의 구조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초기 한옥성당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벽체는 전체적으로 목조 심벽 위에 회반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회벽의 탈락부분을 수직 비늘판 마감으로 보호한 곳이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보존상태는 좋은 편이다. 단, 제단의 바닥은 합판으로 교체되었으며 뒷배경 벽은 목재 세로 널을 덧대었다. 목조 가구구조부는 상태가 좋은 편이나 차오와 외벽의 마감은 퇴락하여 부실한 상황이다. 지붕은 원래 기와였을 것이나 지금은 골슬레이트로 교체되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주일미사에 50여명 정도 참석하고 있어 공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신도 및 교구에서 보존의지가 강하고 마을의 주변환경도 이 유구가 보존되어 존재함으로써 이 마을의 신앙의 역사를 비롯한 유서들이 돋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현재 천주교 공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존하여 신앙의 거점으로 유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존하며 원래 공소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유구임.
- 이번에 신청된 예배당 외에 원형이 잘 유지되어 있는 부속건물과 종탑도 함께 등록하여 문화재로 보존하여 소규모 지역 공소의 시설물 구성을 후대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구한말 천주교 양대박해(병인, 무진) 이후 인근 거제와 통영에 거주하던 신도들이 뱃길로 접근이 용이한 황리로 들어와 피신하였다가 육로로 연결되는 고성 등 내륙으로 이동하려 하였던 것을 짐작케 하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 중요한 위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원형유지 상황도 좋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천주교 통영 황리공소

< 000 문화재위원 (2018.4.30.) >

1) 개요

- 황리공소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통영시 광도면은 본래 춘원포(春元浦)라는 포구가 있어 고성과 문산, 거제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이자 임진왜란 당시 군사적 중심지로서 인적, 물적 교역이 활발하였던 지역
- 이를 배경으로 황리 지역은 병인박해(1866년) 당시 천주교가 전파되어 공동체가 형성되고 영남 남부해안 지역의 종교적 거점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1893년 황리공소가 설립된 후 중심적 역할을 수행

황리공소는 점차 신도수가 증가하여 1935년 황리본당으로 승격되었지만 이후 육로 교통의 발달로 포구의 역할이 축소되고 황리지역이 쇠퇴되었으며, 1939년 본당이 고성으로 이전되면서 다시 공소로 격하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황리공소는 종도리 하부 장여에 묵서된 상량문 ‘천주강생일천구백삼십사년사월이일 정초동구일입주십일일상량(天主降生壹千九百參拾四年四月貳日定礎全九日立柱拾壹日上梁)’에 의하면 1934년 4월 2일 정초, 9일 입주, 11일 상량이 되었으며, 당시 광도면 지역에서 제일가는 기와집이었다고 전해짐
-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한옥 목조건물로 1층 규모, 민도리, 팔작지붕 형태이며 내부는 바닥은 목조 장마루이고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이고 벽체는 심벽 위 회바름 마감
-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6칸 규모의 장방형으로 측면 6칸 중 예배 홀은 5칸으로, 부속공간은 1칸으로 각각 구성하였으며, 부속공간의 측면 기둥간격을 예배 홀의 측면 기둥간격에 비해 좁게 형성한 점이 특이
- 내부는 기본적으로 장축형 공간을 형성하고 예배 홀은 동쪽에 제단을, 서쪽에 주출입구를 배치하고 장변방향 남북측 벽 중앙에 각각 부출입구를 설치하였으며, 제단 후면의 부속공간에는 준비실, 제의실 등을 배치하고 양측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
- 내부 신도석 중앙에 3개의 기둥이 장축방향으로 배치되어 남,녀 신도석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제단 앞쪽에는 횡축방향으로 좌우에 2개의 기둥이 배치되어 신도석과 제단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역할
- 내부에서 기둥이 장축과 횡축 방향으로 배치되고 제단 전면과 후면의 횡축방향 기둥들이 서로 다른 간격으로 배치되면서 전체적 목조구조체를 3랑식(三廊式)의 일반적 한옥 성당과 다르게 구성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지붕은 본래 기와마감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용마루, 추녀마루, 내림마루를 제외하고는 골슬레이트로 변형되었으며, 공소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외벽의 하단은 목재널판 수직방향잇기 마감이었으나 현재는 상부와 같은 회벽마감으로 변형된 상태
- 지붕, 외벽 등의 부분에서 마감이 일부 변형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한식 목조로서의 기본적 구조체와 장축형 성당으로서의 기본적 공간구조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 건축 이후 현재까지 성당 또는 공소로 이용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 왔지만, 목조 구조체의 특성상 외벽, 창호, 지붕, 서까래 등에서는 노후화가 진행되어 훼손 현상이 발생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성당과 공소측 모두 건물의 역사적, 종교적,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재로서 건축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공소 전체 부지내에서 공소건물에 근접하여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2022년까지 개설되지 않을 경우 개설계획이 자동소멸될 예정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성당과 공소측 모두 지역의 공소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향후 건축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갈 예정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한식 목조 성당으로 등록문화재는 대한성공회 진천성당(제8호), 진안성당 어은공소(제28호), 진주 문산성당(제35호),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42호), 원주 흥업성당 대안리공소(제140호), 장수성당 수분공소(제189호), 봉화 척곡교회(257호), 울진 행곡교회(286호), 울진 용장교회(287호), 서산 동문동성당 상흥리공소(제338호), 고양 행주성당(제455호), 용인 고초골공소(제708호) 등의 사례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황리공소는 포구라는 지리적 여건상 일찍부터 교역과 군사의 중심지로 발달되었고 천주교도 전래되었던 황리지역에서 1893년 설립된 후 영남 남부해안 지역의 종교적 거점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전성기 당시인 1934년 현재의 공소 건물을 건축
- 내부 신도석 중앙에 3개의 기둥이 장축방향으로 배치되어 남,녀 신도석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제단 앞쪽에는 횡축방향으로 좌우에 2개의 기둥이 배치되어 신도석과 제단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역할
- 내부에서 기둥이 장축과 횡축 방향으로 배치되고 제단 전면과 후면의 횡축방향 기둥들이 서로 다른 간격으로 배치되면서 전체적 목조구조체를 3랑식(三廊式)의 일반적 한옥 성당과 다르게 구성
- 황리공소는 한옥 성당으로 지붕, 외벽 등의 부분에서 마감이 일부 변형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한옥 성당으로서의 기본적인 목조 구조체와 장축형 성당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원형 그대로 보존, 유지
- 황리공소는 이상과 같이 한옥성당으로서 역사적, 지역적,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통영 황리성당

< 000 문화재전문위원 (2018.4.30.) >

1) 개요

- ‘황리 공소’는 천주교 마산교구 소속 공소로 1893년 공소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본당 승격(1935년), 또 다시 공소로 격하(1939년)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한옥으로 세워진 공소 건물은 본당으로 승격되기 이전인 1934년에 준공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건물 내부(중도리 하부)에 남아 있는 문서(‘천주강생일천구백삼십사년사월이일정초동구일입주십일일상량(天主降生壹千九百參拾四年四月貳日定礎全九日立柱拾壹日上梁)’기록을 통해 1934년 4월 2일 정초, 9일 입주, 11일 상량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음.

- 관련기록(『고성 본당50년사』, 천주교마산교구고성교회, 1989.)에 의하면, 교우 김 씨(성명 미상)가 250평, 이씨(성명 미상)가 200평의 성당 신축 부지로 땅을 각각 기증하여 오늘날의 공소를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정면6칸×측면3칸의 5량가(架構) 팔작지붕 한옥 건물로 기둥은 내·진주 모두 방주(方柱)를 사용하였으며 외진주 상부에는 별도의 공포 부재 없이 도리를 직접 받는 소위, 민도리집으로 결구되어 있음.
- 내부 천정은 개방감 위해 서까래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연등천정으로 장식하였으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방)으로 구획한 제의실(준비실)과 고해실도 별도의 반자 없이 연등천정으로 마감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벽체는 전체적으로 심벽 위에 회반죽으로 마감하였으나, 좌측면 외벽의 중인방 아래에는 비늘판벽으로 되어 있음.
- 정면으로 보이는 6칸 중 좌측부터 4칸은 내부를 통칸으로 처리하여 예배공간으로 사용하였고 그 다음 1칸에는 제대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칸에는 보 방향으로 칸막이벽을 설치하여 제의실(준비실)과 고해실을 두었음.
- 예배공간은 중앙에 도리방향으로 설치한(3개소) 기둥열에 의해 보방향으로 전·후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되며 기둥 상부에는 전·후면을 가로 지르는 2개의 대들보를 맞보형태로 결구하여 상부가구를 받게 하였는데 이는 한옥을 축조할 당시 긴 스패(7.3m)의 대들보 부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이 기둥열을 중심으로 남·여의 예배공간을 구분하였다고도 하는데 이는 이시기에 건립된 한옥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한 평면구성 방식으로 천주교(또는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제대가 있는 칸(間)에서는 기둥(2개소)을 도리방향이 아닌 보방향으로 배치하였는데 이는 제단 및 제대의 설치 공간 확보와 함께 신도들의 시선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공소 내부 바닥을 지면에서 비교적 높게 띄워 장마루를 깔아 마감한 것과 외진주 하부와 고막이 벽 사이에 통풍을 위한 환기구멍을 낸 것 등은 아마도 우리나라 남부지역 민가에서 보이는 보편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현존하는 동시대 한옥 교회 건물 대부분이 주변의 민가(民家)를 이축하여 재사용한 것과 달리 황리 공소의 경우에는 주칸(柱間) 및 기둥 배열 상태 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교회 기능에 맞게 계획하여 건립된 것으로 보임(실제로, 성당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근 산에서 직접 부재를 벌목하여 건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인근 지역의 한옥을 이축해 온 것이 아니라, 최초 건립단계에서 교회시설로 계획된 만큼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붕재료(지붕의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기와이지만 나머지는 골함석으로 마감) 및 일부 내부(제단 바닥이 장마루에서 합판으로 변형) 마감재 등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공소의 기능을 유지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 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공소 측에서도 역사적 산물과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근대기 건립된 ‘한옥 공소’로서 건축적 특징과 함께 본래의 기능인 공소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등록문화재의 활용적 측면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접근이 용이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원형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한옥 성당(공소)’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원주 대안리공소(제140호)’, 진주 문산성당(제35호), 봉화 척곡교회(257호) 등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지역적 상황을 잘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사례와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인근의 한옥을 이축하여 공소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 기능에 맞게 계획하여 건립된 것인 만큼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근대기 천주교가 토착화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 한옥이 변모해 가는 건축적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통영 황리공소 성당

4.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7.24.)를 거쳐 등록 예고한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형식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6,264매 (점)	10.0×15.2cm	종이, 사진	개별 카드	1910~1940년대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국사편찬위원회	

(2) 추진경과

- (문화재청→국사편찬위) ‘항일독립 문화유산 추천 협조 요청’(근대문화재과-1136호, 2018. 4. 5.)
- (국사편찬위→문화재청) ‘항일독립 문화유산 추천 의견 제출’(사료조사실-492호, 2018. 4. 19.) :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6,264매 추천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6. 12.)
 - ※ 국사편찬위원회 : 교육부 소속기관(국가기관)

(3) 등록예고 : 2018. 8. 6. ~ 9. 4.

- 국사편찬위원회 의견 제출('18. 8. 20.) 요약
 - 본 유물에 포함된 감시대상 인물이 4,858명으로 알려졌으나, 2018년 8월 오류 신고를 통해 동일인물 중복을 확인하였음. 4,857명으로 정정 필요
 - 일제경찰(경기도 경찰부 추정)이 작성한 것으로, 1920년 무렵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됨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위원(2018.6.12.)

- 당대의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데 긴요한 일차 사료로서 현재 항일 민족운동가나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때 가장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진이 별로 전하지 않는 인물의 경우, 백과사전 등에서 해당 인물을 소개하는 사진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판단됨.

○ 000 한양대학교 교수(2018.6.12.)

-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자료들로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독립운동 유공자 포상 심사 등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음.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6.12.)

-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은 물론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연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조사보고서

1. 명 칭 :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2.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국사편찬위원회
3. 소유자 : 국사편찬위원회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 위원(2018.6.12.)>

1) 현상

- 대체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일제요시찰 인물카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 경찰에서 감시해야 할 4,858명에 대해 작성한 신상카드임. 감시대상 인물은 독립운동가가 대부분이나 경제사범 등도 있는데, 공통적인 요소는 사상이나 보안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임. 이 카드는 1980년대에 와서 치안본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건네진 것이라고 함.
- 카드는 인쇄되어 있으며, 작성 시기에 따라 대개 4종류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곧 1913~1923년에 제작된 A형(1,055매), 1923~1931년에 제작된 B형(379매), 1929~1931년에 제작된 C형(605매), 1919~1944년에 제작된 D형(4,224매) 등임. 이 4종류의 유형은 양식이나 체제가 다소 다름.
- 카드에 수록된 정보는 사진, 출생연월일, 출생지, 주소, 신장 등 각 개인의 기본 정보 외에 활동, 검거, 수형에 관한 사실들임. 이 정보들은 카드의 전 후면에 펜으로 기록해 놓았음. 카드 전면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1명의 상반신 사진(혹 전면과 측면 상반신 사진)과 신상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이 사진들은 대부분 체포 혹은 수감 직후에 경찰서나 형무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특히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이 많음. 이 사진들 중에서 전면 상반신 사진은 현재 백과사전 등에서 해당 인물의 인물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부착된 사진은 제작할 때 경찰서나 형무소에 보관 중인 사진 원판을 이용하였음. 그래서 사진에는 숫자가 좌우로 뒤집힌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보존원판이 아닌 사진원판에 이 숫자를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인화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 감시대상 인물은 4,858명이나 전체 카드 수는 6,264매이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신상카드가 복수로 작성되었기 때문임. 곧 상해파 공산주의자인 오성세(吳禎世)의 카드는 오성세, 김성칠(金成七), 박윤수(朴允洙), 이기만(李基萬), 이상계(李相桂), 이정재(李貞在), 조동빈(趙東斌)의 이름으로 각 1매씩 총 7매나 됨. 이

렇게 1명은 7매, 6명은 6매, 24명은 5매, 47명은 4매, 166명은 3매, 836명은 2매 등으로 확인됨.

- 카드에 수록된 인물들은 안창호, 백용성, 이봉창, 윤봉길, 김마리아,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 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민족주의자였다가 후일 친일활동을 한 이광수, 최린, 주요한, 최남선 등도 있음. 해방 후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카드는 박헌영(朴憲永) 등 두 사람의 것이 있는데, 특히 박헌영은 1933, 1941, 1946년 사진 등 모두 3매가 남아 있음. 1946년 사진이 있다는 것은 해방이후에도 전례를 따라 이러한 카드를 작성하여 감시하였음을 보여줌.
- 그리고 형무소 명칭이 기재된 카드는 총 3,253매이며, 형무소는 26개소나 됨. 그중에서 서대문형무소(서대문감옥 포함)는 2,535매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함. 그러나 나머지 718매의 카드에는 다른 형무소가 기록되어 있음. 이러한 사실은 이 카드를 제작하고 관리한 주체는 형무소가 아닌 다른 정부기관이라는 점을 보여줌. 아마 경기도 경찰부에 형사과가 신설된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형사과에서 사진수집과 사진카드의 제작과 배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함. 폭넓게 해석한다면, 일제경찰 및 행정기관에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한편 인물카드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과 중국인도 있음. 일본인은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경성제국대학 교수 등 31명이 있음. 비밀결사 활동을 벌였던 이들의 카드는 1931~1934년 사이에 작성되었음. 이들은 모두 치안유지법에 저촉되었고, 그 가운데 4명은 치안유지법외에 출판법에도 저촉되었음. 또 중국인은 중국국민당 정부와 군의 중요 인사들 13명으로 1936년에 집중적으로 작성되었음.
- 그리고 이 카드를 제작한 목적은 수사상 가장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곧 이 카드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용의 인물을 확인하고 검거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이 인명카드는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왔음. 먼저 1991~1993년에 걸쳐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이라는 제목으로 영인 간행되었을 때, 간행사 및 범례에서 “일제 당국자에 의해 검거 투옥된 인사들의 신상기록카드”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다고 함. 그러나 1940년대에 국가총동원법위반으로 체포되었거나 처벌받은 단순 경제사범 500명, 사기 절도 횡령 등으로 처벌된 70여명 그리고 초상화를 붙인 김옥균(金玉均) 등은 이러한 설명에 부합되지 않음. 이렇게 이 인물카드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만은 아님. 그래서 인지 이후 이 인물카드에 대해 『독립운동가 신상기록카드』, 『일제시대 수형자 사진자료』, 『수형기록카드』 등으로 일컬었음.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수형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인물도 상당함. 그래서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마땅하지 않았던 탓에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카드를 제공할 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번 문화재 등록 신청 시에도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그런데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라는 명칭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음. 곧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의 감시대상인물이 4,858명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임.
- 그렇다면 이 카드를 조사한 위원들이 이 명칭이 적합하지 않음을 논의하고, 적합한 명칭으로 제안한 『일제요시찰 인물카드』도 그 대안의 하나로 생각됨.

3) 문헌자료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 이애숙,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해제”(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ia.html)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2017년 4월에 KBS의 『천상의 컬렉션』에 방영되어 전 국민에게 알려진 이 인물카드는 일제경찰이 감시대상으로 삼은 인물들의 신상정보 카드임. 카드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제에 항거한 민족운동가 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제의 요시찰 인물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당대의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데 긴요한 일차 사료가 됨. 또한 부착된 인물사진 역시 사진이 별로 전하지 않는 인물의 경우, 백과사전 등에서 해당 인물을 소개하는 사진으로 이용되고 있음. 아울러 이 인물카드는 현재 항일 민족운동가나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때 가장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음. 그런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음

<000 한양대학교 교수(2018.6.12.)>

1) 현상

- 6천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함.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서고에 있는 수십 권의 앨범에 보존되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이 자료들은 사진을 부착한 카드, 즉 ‘사진카드’로서, 과거 치안본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된 자료라고 함. 이들 사진카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조선총독부 경기도 경찰부가 제작하여 보존한 것으로 추정됨. 6,264점에 달하는 이 사진카드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4,858명으로, 동일한 인물이 여러 장의 카드에서 등장하는 경우도 많음. 이 카드에는 구체적인 명칭이 붙여져 있지 않음.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를 ‘독립운동가 신상기록 카드’ ‘일제시대 수형자 사진자료’ ‘수형기록카드’ ‘수형자 카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왔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라고 명칭을 붙였음.
- 각 카드의 앞면에는 등재된 인물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음. 그리고 사진 하단에는 촬영일, 촬영기관, 사진의 크기, 보존원판 번호 등이 기록되었음. 카드는 다이쇼(大正)연간에 인쇄된 것으로 두 가지 양식이 있고, 쇼와(昭和)연간에 인쇄된 것으로 두 가지 양식이 있음.
- 사진 촬영일자를 보면 1919년 3.1운동 이전에 촬영된 사진인 경우는 단 세 장뿐임. 나머지는 모두 3.1운동 이후에 촬영된 사진을 부착한 것임. 3.1운동이 이러한 요시찰 인물 카드를 만들게 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일부에서는 이를 ‘수형자카드’라고 불러오기도 했지만, 수형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음. 형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이 부착된 경우가 총

3,253매이며, 그 가운데 서대문형무소의 경우가 2,535건으로 80%에 달함. 그러나 형무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붙인 경우도 많음. 따라서 ‘수형사 카드’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그보다는 1919년 8월 새로이 설치된 경기도경찰부가 이 카드를 제작한 주체였던 것으로 보임. 특히 경기도 경찰부의 고등경찰과에서 수집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카드를 만든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임. 결국 이들 카드는 주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들의 카드이기 때문에 ‘요시찰대상 인물카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임.
- 그런데 이들 자료 가운데에는 ‘고등과 수배용’ ‘형사과 수배용’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음. 즉 이들 카드에는 ‘수배자인물 카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 특히 형사과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착한 카드가 577매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과에서는 중요 범죄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주요 형사범 카드’를 만든 것으로 보임. 1927년 5월 1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는 주요 형사범 카드를 5천2백여 매를 만들었고, ‘고등요시찰인 카드’도 2천여 매를 만들었다고 함.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이들 6천여 장의 인물 카드는 바로 이 ‘주요형사범 카드’와 ‘고등요시찰인 카드’ 중 일부일 가능성이 높음. 그렇다면 이들 카드는 당시 용어로 ‘고등 요시찰 및 주요 형사범 카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임.
- 국사편찬위원회의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의 해제>에 의하면, 일제 당국에서 제작한 사진카드는 최소한 7만 5천 매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것은 사진의 보존 원판의 번호가 소형은 65,195번, 중형은 10,346번까지 나오고 있고, 이를 합하면 75,541이 되기 때문임.
- 각각의 사진 카드 1매에는 원칙적으로 1명의 상반신 사진과 신상정보를 수록하였음. 카드의 앞면에는 이름과 연령, 신장, 특징, 지문번호 등을 기록하였고, 뒷면에는 본적, 출생지, 주소, 신분, 수형사항 등을 기록하였음. 수형사항에는 죄명, 형명과 형기, 언도관서(재판소명), 언도 연월일, 입소 연월일, 출소연월일, 형무소명 등을 기록하였음.
- 수배자의 경우에는 개인 사진을 구하지 못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부착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강원호(姜元昊)의 경우에는 7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각각의 성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그 가운데에는 3.1운동 관련자인 선우혁(鮮于爍)의 얼굴도 들어 있음.
- 이들 사진카드는 일제하 독립운동 관련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 공적 심사에서 이들 카드를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해 왔음. 특히 이 카드에는 형무소의 입소 날짜와 출소 날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형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임.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등급을 정할 때에는 수형기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카드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또 학계에서의 독립운동사 연구에서도 이 카드는 각 개인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또 단독 사진이 아닌 여러 명이 등장하는 사진들은 각 개인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3) 문헌자료

- 이애숙,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4) 기타

- 이들 사진카드는 1980년대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치안본부로부터 인수받아 보관해온 자료들임. 현재 이들 카드는 모두 스캐닝되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음.
- 현재 이들 카드의 명칭은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용어를 빌려 ‘일제하 요시찰인물 카드’라고 부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요시찰인물’이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상이나 보안 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이나 경찰이 감시하여야 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막연한 ‘일제 감시대상 인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제하 요시찰인물 카드’라고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임.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자료들로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독립운동 유공자 포상 심사 등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또 이 카드들에 부착된 당시 주요 인물들의 사진은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매우 희귀한 사진들인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자료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음.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OOO 문화재 전문위원(2018.6.12.)>

1) 현상

-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1980년대 치안본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되어 현재 55권의 첩으로 재분류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음.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의 시찰 대상이 되었던 인물 4,858명에 대한 인적 사항과 특별한 이력 등이 기록된 신상카드임. 시찰 대상인 인물은 국가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인물로서 적용된 죄명을 살펴보면 ‘보안법’ · ‘치안유지법’ · ‘국가총동원법’ · ‘폭탄투척사건’ · ‘안녕 질서에 관한 법’ · ‘출판법’ · ‘육군형법’ · ‘소요’ · ‘주거침입’ 등 상당히 다양함.
- ‘요시찰(要視察)’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감시했던 제도로 이해되고 있음. ‘요시찰인(要視察人)’의 조사는 당연히 조선총독부가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시찰은 담당순사가 전담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刑事)순사가 맡는 경우도 있었음. 이들은 시찰 대상자의 범죄행위 유무나 가정, 직업, 평판, 교제인물, 출입자, 여행지와 목적, 통신의 유무 등 제반 상황을 면밀히 감시·조사한 것으로 판단됨.
-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간행되는 각 신문의 내용 중 사상적 측면을 다룬 내용을

발췌하여 기사화하였던 「조선사상통신(朝鮮思想通信)」에는 ‘요시찰제도(要視察制度)’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줌.

경무국(警務局)의 눈으로 보면 사상불온(思想不穩)하던가 또는 총독정치(總督政治)에 불만을 갖고 찬성하지 않거나 또는 불만행동을 취하는 인물들이 요시찰인이라 불리웠다. 여기에는 갑(甲), 을(乙)의 두 종류로 하여 항상 그 행동을 감시하여 왔으며, 금번에 갑·을의 종류를 폐지하고 조선 전체의 명부(名簿)를 작성중이라 한다. 현재 당국의 요시찰인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전(全) 조선에 전부 3천여 명에 달하며 만세소요 당시(1919년)는 약 1천 명 내외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후 점차 증가하였다.(조선사상통신, 1928.)

- 곧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조선 독립에 대한 열망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치열하게 전개된 민족해방운동 속에서 식민권력, 곧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의 안정화와 영속화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상 불온자와 총독정치에 불만자들을 모두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하고 동시에 명부를 만듦. 이들 ‘요시찰인(要視察人)’들은 모두 소위 ‘불령선인(不逞鮮人)’ 곧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인으로 평가되었음.
- 조사 대상인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작성 시기에 따라 대개 4종류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① 1913~1923년에 제작된 A형(1,055매), ② 1923~1931년에 제작된 B형(379매), ③ 1929~1931년에 제작된 C형(605매), ④ 1919~1944년에 제작된 D형(4,224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 4종류의 유형은 양식이나 체재가 다소 다른 형태임.
-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에 수록된 정보는 사진, 출생연월일, 출생지, 주소, 신장 등 각 개인의 기본 정보 외에 활동, 검거, 수형에 관한 사실들로 카드의 전후면에 펜으로 기록해 놓음. 인물 카드의 전면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반신 사진(혹 전면과 측면 상반신 사진)과 신상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이 사진들은 대부분 체포 혹은 수감 직후에 경찰서나 형무소에서 촬영되었는데, 현재 확인되는 인물 카드에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이 많음. 부착된 사진은 제작할 때 경찰서나 형무소에 보관 중인 사진 원판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간혹 사진에 숫자가 좌우로 뒤집힌 사례가 확인됨. 이는 보존 원판이 아닌 사진원판에 이 숫자를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인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감시대상 인물은 4,858명이나 전체 카드 수는 6,264매인데 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신상카드가 복수로 작성되었기 때문임. 그 대표적인 사례는 상해파 공산주의자인 오성세(吳禎世)의 카드로서 그는 오성세 뿐만 아니라 김성칠(金成七), 박윤수(朴允洙), 이기만(李基萬), 이상계(李相桂), 이정재(李貞在), 조동빈(趙東斌)의 이름으로 각 1매씩이 더 작성되었음. 이렇게 1명은 7매, 6명은 6매, 24명은 5매, 47명은 4매, 166명은 3매, 836명은 2매 등으로 확인됨. 카드에 수록된 인물들의 본적과 인원수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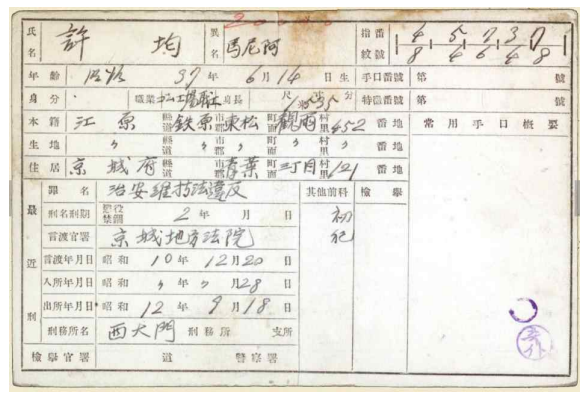
본적지	인원		적용죄명
강원도	402명	강길선(姜吉善) 등	치안유지법 위반
경기도	1,140명	강간난(姜干蘭) 등	국가총동원법 위반
경상남도	145명	강달영(姜達永) 등	치안유지법 위반
경상북도	292명	강낙원(姜洛遠) 등	보안법 위반
전라남도	159명	강영석(姜永錫) 등	치안유지법 위반
전라북도	173명	강상규(姜祥奎) 등	치안유지법 위반
충청남도	211명	강경화(姜敬化) 등	보안법 위반
충청북도	102명	강태걸(姜泰杰) 등	보안법 위반
평안남도	172명	강내석(康乃錫) 등	보안법 위반
평안북도	107명	강기보(姜基寶) 등	치안유지법 위반
함경남도	590명	강구홍(姜逋洪) 등	치안유지법 위반
함경북도	801명	강귀주(姜貴柱) 등	치안유지법 위반
황해도	180명	강덕근(康德根) 등	보안법 위반
간도	5명	가경덕(賈景德)	치안유지법 위반
노령	3명		
무적	2명		
조선인 합계	4,484명		
일본인	31명		
중국인	13명		
총인원	4,528명		



유관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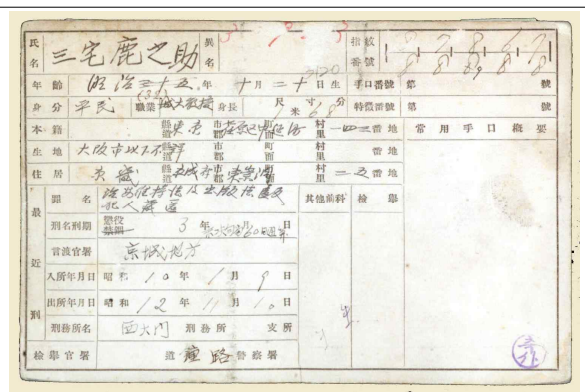
허균



- 그리고 형무소 명칭이 기재된 카드는 총 3,253매로서 이곳에 표시된 형무소는 26개소에 달함. 그 중 서대문형무소(서대문감옥 포함)는 2,535매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18매의 카드에는 다른 형무소가 기록되어 있음.
- 한편 인물카드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과 중국인도 있음. 일본인은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경성제국대학 교수 등 31명이 있는데, 비밀결사 활동을 벌였던 이들의 카드는 1931~1934년 사이에 작성됨. 이들은 모두 치안유지법은 물론 출판법 등에 저촉되어 감금되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인은 중국국민당 정부와 군의 중요 인사들 13명으로 1936년에 집중적으로 작성됨.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3) 참고자료

- 이애숙,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해제" (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ia.html)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의 시찰 대상이 되었던 인물에 대한 자료로서, 이 카드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제에 항거한 민족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제의 요시찰 인물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은 물론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연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이 인명카드는 현재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제 당국자에 의해 검거 투옥된 인사들의 신상기록카드」, 「독립운동가 신상기록카드」, 「일제시대 수형자 사진자료」, 「수형기록카드」 그리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등이 있음. 따라서 명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음

5. 「윤봉춘 일기」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윤봉춘 일기」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7.24.)를 거쳐 등록 예고한 「윤봉춘 일기」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자 : 독립기념관장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윤봉춘 일기	3책	19.0×13.0cm	양지	필사본, 양장(가철)	1935~ 1937년	독립기 념관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 (3) 추진경과
 - 항일독립유산 자체발굴, 지자체 및 관계기관 추천 의뢰('17. 8~12월)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 개최('18. 1. 10.)
 - 동산(動産) 분야 기초 유물목록 47건 중 조사·검토 대상 41건 선정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5. 2.)
- (4) 등록예고 : 2018. 8. 6. ~ 9. 4.(30일간) *의견 없음
- (5)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5.2.)

- 이 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 영화의 상황, 독자적이고 주체성을 보이려는 영화인의 의지는 물론 윤봉춘의 사고 형성과정까지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예술분야의 기록물이라고 하겠음. 그런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000 단국대학교 교수(2018.5.2.)

- 윤봉춘 일기는 일제식민지시기의 영화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특히 직접 영화배우로, 또 영화감독으로 활동한 인물이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생각됨. 영화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희소성도 있음.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000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5.2.)

- 윤봉춘일기는 일제강점기에 배우와 감독을 겸업한 윤봉춘의 영화인으로서의 독특한 개인 경험과 경력, 당시 영화계와 영화인의 현황과 실태, 일제강점기 국내 거주 한국인의 활동상, 예술을 통해 독립의식 고취활동을 벌인 윤봉춘의 독립지사로서의 면모 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한국근대 문화운동사상 내지 독립운동사상 중요 자료이며, 일제강점기 한국의 민족운동사 내지 문화운동을 복원하고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윤봉춘 일기」 조사보고서

1. 명 칭 : 윤봉춘 일기
2.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3. 소유자 : 독립기념관장
4. 조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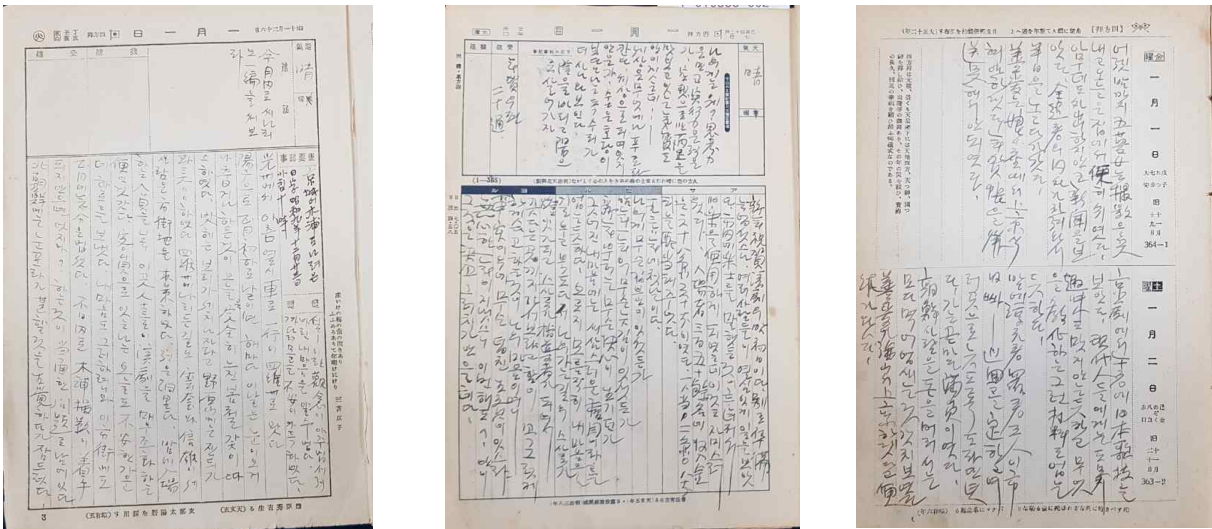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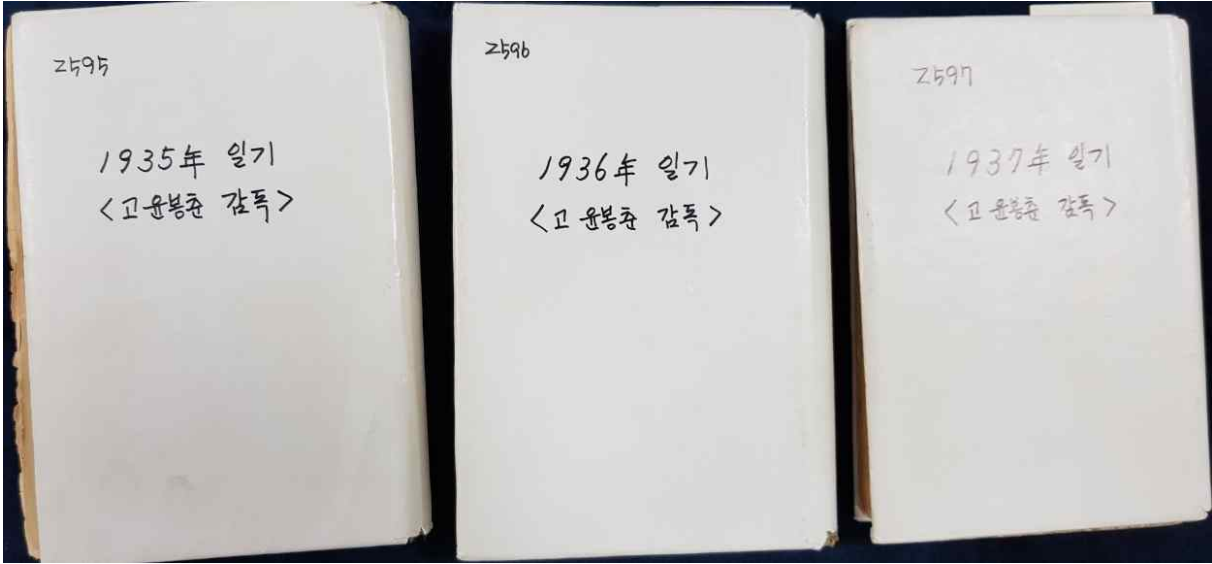
<OOO 문화재 위원(2018.5.2.)>

1) 현상

- 내용은 대체로 온전하나 제책이 필요함

2) 내용 및 특징

- 『윤봉춘일기』는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윤봉춘(尹逢春, 1902~1975)이 1935년부터 1937년까지 기록한 일기임. 함경도 출신인 윤봉춘은 나운규와의 인연으로 그의 작품인 《들쥐》(1929)에서 연기자로 데뷔한 뒤에 《잘있거라》(1927), 《옥녀》(1928), 《금붕어》(1927), 《사랑을 찾아서》(1928), 《사나이》(1928), 《병어리 삼룡》(1929) 등의 나운규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서의 자리를 굳혔고, 1930년에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승방비곡(僧房悲曲)》에 출연하였음. 이후에는 연기자가 아닌 감독으로서 《도적놈》(1930), 《큰무덤》(1931), 《도생록(圖生錄)》(1938), 《신개지(新開地)》(1942) 등의 작품을 제작하였음.
- 해방이후 《윤봉길의사》(1947), 《3·1혁명기》(1947), 《유관순》(1948), 《백범 국민장실기(白凡國民葬實記)》(1949), 《애국자의 아들》(1949) 등의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 《처녀별》(1956), 《논개》(1956), 《한말풍운(韓末風雲)》, 《민충정공(閔忠正公)》(1959), 《황진이(黃眞伊)의 일생》(1961), 《여인천하》(1962), 《애정삼백년》(1963) 등 민족의식을 담은 작품 등 20여 편에 가까운 작품을 감독하였음.
- 그는 나운규와 같은 스타급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당대 중요한 작품에 출연한 것은 물론 영화인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음. 그는 작품을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나 일관되게 민족주의자로서의 자유사상을 투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해방 이후 그는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윤봉길의사》 등의 광복영화를, 이후에는 민족의식을 담은 사극 《논개》 등을 생산함으로써 민족의식 있는 감독으로 각인되었음. 1993년에는 그의 독립 운동 경력이 인정되어 건국훈장 애국장(1993)이 추서되었음.



<사진1> 『윤봉춘일기』 표지(위)와 1935-37년도 매년 1월 1일 일기(아래)

- 『윤봉춘일기』 1935-37년간의 일기인데, 매년 1책씩 모두 세 책임. 세 책 모두 원래의 일기를 달력 이면으로 표지를 만들어 감싼 뒤 “자료번호, 해당연도 및 <고윤봉춘 감독>” 등을 가로로 써 놓았음. 일기는 1935년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을 제외하고는 1935년 1월 1일부터 1937년까지 매일 기록되어 있음. 일기가 없는 시기는 그해 1월 9일 정읍 경찰서에서 3일 동안 구류된 후 풀려난 직후의 시기라는 점에서 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영화와 관련된 내용은 1935년에 그가 현성완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제작한 《무화과》 제작 관련 자료에서 시작해서 1937년 《청춘부대》 촬영 관련 기록까지 해당됨.
- 1935년 일기는 1935년에 일본 평원사(宏元社)에서 제작한 『당용일기』(當用日記, 그때그때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두는 일기) 공책의 양식에 맞추어 국한 혼용으로 세로로 필사해 놓았음. 이 해 1월 1일 일기의 예기(豫記)에는 “금월 내로 시나리오 일 편을 써 보라”는 다짐이 있고, 감상에는 “설이란 관념이 아주 없어져 버린 내 마음을 알 수 없음. 까닭모를 불안이 가득하였다”고 당시의 심정을 술회하고 있음.

- 1936년 일기는 1936년에 일본의 전중송영당(田中宋榮堂)에서 제작한 『당용시간 일기(當用時間日記)』 공책의 양식에 맞추어 국한 혼용으로 세로로 필사해 놓았음. 이해 1월 1일의 예기에는 “나에게는 왜? 사고력은 많고 실행력은 적은가? 공상으로만 만족을 맛보고 있는 기질도 아니겠는데… 세상은 무엇에나 푸로파 간다(프로파간다) 세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숨은 호랑이 보다는 나는 독수리가 더 사나워 보인다. 음을 버리고 양으로 살아가자.”는 다짐이 있고, 감상에는 “신년축하 연극의 밤 초일이다. 별로 준비는 없었으나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보았다. … 1936년의 첫날이다.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던가? … 오로지 모름지기 내 마음을 기르고 북돋아서 나의 가는 길이 스스로가 등화가 되고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서 끝닿은 곳까지 가서 보라고 함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어니…”라고 다짐하고 있음.
- 1937년 일기는 1937년에 일본의 국민출판사(國民出版社)에서 제작한 『당용일기』 공책의 양식에 맞추어 국한 혼용으로 세로로 필사해 놓았음. 책머리에 “새해를 맞이하며”라는 글에서 “조선의 영화사는 오로지 우리의 손으로서 기록이 될 것이다.”며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우리 영화는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체 의식을 피력하고 있음. 1월 1일 일기에서는 “어젯밤까지 오몽녀는 촬영을 끝내고 오늘은 집에서 편히 쉬었다.”고 기록해 놓았음. 나운규 감독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가 주연한 오몽녀가 그 전해 마지막 날까지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임. 일기가 끝난 뒤에는 아래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영화의 완성과 개봉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기록으로 생각됨.

“1월 오몽녀 개봉(경성), 2월 인생향로 개봉(금강·한양합동), 11월 심청 개봉(기신양행), 5월 나그네(성봉영화사), 4월 순정해협(대구키네마).
(금년 중 제작 중에 있는 작품) - 한강(반도영화사), 애련송(극연), 청춘부대(조선 흥예사)”(이상은 일본식 한자 등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표현하였음)

- 이어 「보유란(補遺欄)」에는 부모, 자신, 형제자매와 그의 가족들의 생년월일과 나이가 기록되어 있음. 마지막 기록된 그의 자녀는 “태병 사이팔삼 사월 십일 일생 음이월 이십오일 석구시(泰炳 四二八三 四月 十一日生 陰二月 二十五日 夕九時)”과 같이 단기 4283년(1950) 태생의 태병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기는 1937년 이후 윤봉춘이 계속 소장하면서 1950년 태생의 가족까지 보충한 사실을 알 수 있음. 그 뒤의 「친족명부」의 내용은 윤봉춘의 자녀 중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임. 여기에는 부 윤봉춘, 모 문수남(文壽男)부부에 이어 태영(泰榮), 태옥(泰玉), 태심(泰心), 태봉(泰峯), 태희(泰姬), 태병(泰炳) 등 형제자매들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까지 기록되어 있음. 맨 끝에는 1972년 태생인 윤대원(尹大元)이 기록되어 있음. 그렇다면 이 일기는 윤봉춘에 이어 그의 자녀들이 가족들의 생년월일을 증보하면서 가족의 태생 기록으로도 계속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이 일기는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서 원문이미지 형태로 전부 제공되고 있음.

3) 기타(참고자료)

- 이효인 (2013). “윤봉춘 일기 연구: 1935~1937년 윤봉춘 일기를 통한 조선영화계

의 현실 분석”, 『영화연구』 5), 455-486.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윤봉춘일기』는 해방 후 대표적인 민족주의자 영화인으로 각인된 윤봉춘이 1935년부터 1937년 사이에 당시 조선영화계의 실상을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일기임. 일기 형식의 글이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영화 및 공연 활동의 실상, 영화계와 영화인들의 현실, 자신의 생활상의 심정, 가족관계, 친구관계, 많은 관람평에 대한 내용도 있음. 그러므로 이 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 영화의 상황, 독자적이고 주체성을 보이려는 영화인의 의지는 물론 윤봉춘의 사고형성과정까지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예술분야의 기록물이라고 하겠음. 그런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OOO 단국대학교 교수(2018.5.2.)>

1) 현상

- 3책 모두 양호한 상태임.

2) 내용 및 특징

- 윤봉춘(1902 - 1975)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일제식민지시기에 영화배우이자 감독으로 활동한 인물임. 고향 친구인 나운규가 제작한 <들쥐> <금붕어> 에 배우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수십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음. 이후 영화감독으로도 활동하며 <도적놈> 등의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일제시기에 활동한 대표적 영화인으로 평가받고 있음.
- 윤봉춘은 1935년부터 1937년 사이에 일기를 기록하였음. 일기에는 그가 영화인으로 활동한 실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자신이 본 영화 및 공연, 읽은 책, 교우관계, 영화계와 영화인들에 대한 이야기, 영화제작의 기구와 시스템, 영화제작비와 흥행실적, 영화인 및 스태프들의 임금 등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음.

3) 문헌자료

- 이효인, 「윤봉춘 일기 연구 - 1935 ~ 1937년 윤봉춘 일기를 통해본 조선영화계의 현실분석-」란 논문이 있음.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윤봉춘 일기는 일제식민지시기의 영화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특히 직접 영화배우로, 또 영화감독으로 활동한 인물이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생각됨. 영화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희소성도 있음.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윤봉춘 일기 3책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여 별다른 보존처리가 필요하지 않음. 윤봉춘 일기는 일제강점기시기의 영화인들의 활동상을 비롯하여, 영화제작 및 상영 실태 등 한국의 영화발달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OOO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5.2.)>

1) 현상

- 일기가 쓰인 노트가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노트에 쓰여진 일기도 판독과 해독에 문제가 없음.

2) 내용 및 특징

- 윤봉춘일기(尹逢春日記)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을 거쳐 제1공화국기까지 영화 산업에 종사한 윤봉춘(1902-1975)이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적어놓은 일기임.
- 윤봉춘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고향 친구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였고, 1930년부터 해방 전까지 직접 감독을 맡아 영화를 제작하고 동시에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해방 후에는 독립운동과 민족의식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주로 제작하고 보수적 예술단체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제2대 회장을 역임했던 한국 근현대 영화계의 산증인과 같은 인물임.
- 윤봉춘은 1930년대 이전 고향인 함북 회령에서 항일운동에 가담했다가 청진형 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고, 1930년대 이후에는 향토색이 짙은 영화들을 제작하여 한국인의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은연중에 부치기는 항일활동을 하였으며, 제2차 대전 말기에는 친일어용단체인 조선영화인협회에 가입을 거부하고 낙향하였고, 해방 후에는 독립운동과 민족의식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다수 제작했으며, 이상의 경력들이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독특한 경력을 지닌 인물임.
- 윤봉춘일기는 윤봉춘의 전생애 중 1935-1937년 3개년간의 일기임. 그런데 여기에는 배우와 감독을 겸업한 윤봉춘의 영화인으로서의 독특하고 다채로운 개인적 경험과 경력, 윤봉춘 개인의 교유관계와 인간관계 및 활동상, 당시 영화계와 영화인의 현황과 실태, 일제강점기 국내 거주 한국인의 활동상, 예술을 통해 독립의식 고취활동을 벌인 간접적 독립지사의 내면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한국근대 문화운동사상 내지 독립운동사상 중요 자료라고 판단됨.

3) 문헌자료

- 이효인, “윤봉춘 일기 연구-1935-1937 윤봉춘 일기를 통한 조선 영화계의 현실 분석,” <영화 연구> 55, 2013.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윤봉춘일기는 일제강점기에 배우와 감독을 겸업한 윤봉춘의 영화인으로서의 독특한 개인 경험과 경력, 당시 영화계와 영화인의 현황과 실태, 일제강점기 국내

거주 한국인의 활동상, 예술을 통해 독립의식 고취활동을 벌인 윤봉춘의 독립지사로서의 면모 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한국근대 문화운동사상 내지 독립운동사상 중요 자료임.

- 윤봉춘일기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민족운동사 내지 문화운동사를 복원하고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6. 「도화임본(圖書臨本)」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도화임본(圖書臨本)」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7.24.)를 거쳐 등록 예고한 「도화임본(圖書臨本)」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자 : 국립중앙도서관장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판종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도화임본 (圖書臨本)	4책	14.4×21.9 cm	모조지	석인본	양장본	1907- 1909년	국립중앙 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 중앙도서관	

(3) 추진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교육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용역('16. 2~10월)
 - 교육 분야 유물 목록화(107건)
 -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유물 등록 검토 자문회의('17. 2. 28.)
 - 107건 중 등록 검토 대상 8건 선정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7. 6. 1.)
- (4) 등록예고 : 2018. 8. 6. ~ 9. 4.(30일간) *의견 없음
 - (5)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7.6.1.)

- 『도화임본』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 미술교과서임. 만일 이 책이 없었다면 개화기 시대의 미술 교육을 살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료가 없었을 만큼 최초의 미술 교재로서의 가치는 크다고 하겠음. 비록 일본의 『고등소학 모필화수본』을 참고하였으나 우리의 생활모습이나 용품, 자연 정경 등도 수록되어 있어 민족의 주체의식이나 미적 감각이 수용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도화임본』은 마지막 책인 권4가 개판본이어서 아쉬운 점은 없지 않음. 그러나 4책 1질의 완질일 뿐 아니라 그 중 두 책은 이 책을 편찬한 학부편집국의 보관용 도서였던 만큼 그 가치는 더하다고 하겠음.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판단됨.

○ 000 문화재 전문위원(2017.6.1.)

- 『도화임본』은 개화기 최초의 국정미술교과서로 평가받는 점, 개화기 시기의 미술교육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인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외에는 남아 있는 현존본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됨.

○ 0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2017.6.1.)

- 최초의 미술교과서라는 의의가 있고 희귀성이 있어 문화재 등록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확인된 것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본이 있으며, 다른 소장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보존 상태는 양호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도화임본(圖畫臨本)」 조사보고서

1. 명 칭 : 도화임본(圖畫臨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3. 소유자 : 국립중앙도서관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 위원(2017.6.1.)>

- 1) 현상
 - 대체로 양호함
- 2) 내용 및 특징

圖畫臨本. 卷1-4 / 學部(朝鮮) 編纂. - [漢城] : [學部], 光武11-隆熙3(1907-1909)
4卷4冊 : 插畫 ; 23.0×14.3 cm
권1-2: 광무11(1907). - 권3: 융희2(1908). - 권4: 융희3(1909)
청구기호: 朝12-B30

- 『도화임본(圖畫臨本)』은 모두 4권(4책)으로 구성된 학부 편찬의 교과용 도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 미술교과서임.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미술교육은 1895년 소학교령에 따라 근대교육제도를 수립하고 각 학교에 도화과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음. 1906년 보통교육령 공포로 도화가 필수과목으로 편제되었음. 도화가 필수과목이 되면서 도화교과서가 편찬 발행된 것임.
- 『도화임본』은 임본(臨本), 곧 임사본(臨畫本)이라는 성격을 가진 교재임. 그래서 실물 사생을 위한 모사술을 학습하는 교재로 그림을 보고 베끼는 것을 교육의 주된 방법으로 편성된 교재이므로 건본의 성격이 강함. 이렇게 당시는 예술보다 실용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명칭이 없었고, 수공(手工)이나 도화처럼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과목이 존재하였던 것임. 박희락도 이 책의 특징에 대해 “도화교육을 위한 임본”, “모필화의 임본”, “수기훈련(手技訓練)을 위한 임본”이라고 하였음. 다만 교사용 지도서는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권장 지도방법은 알 수가 없음. 개화기 초기의 교과서가 그러하듯이 이 도화임본도 일본 문부성에서 1904-5년에 발행한 『고등소학 모필화수본(高等小學 毛筆畫手本)』을 참고하여 편찬된 교재임.
- 광무 11년(1907) 2월에 권1-2(2책), 융희 2년(1908) 3월에는 나머지 권3-4(2책) 등 모두 4권(4책)으로 발행되었는데 1908년 당시의 가격은 12전이었음. 1908년

에는 발매 3,124책과 기여 3,115책 등 모두 6,239책이, 이듬해에는 발매 8,427책, 기여 10,030책 등 18,457책이 국내에 보급되었음.



<사진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도화임본』 (4책)

- 교재배열의 원칙에 따라 권1-2에는 각 28개, 권3-4에는 각 26개 등 모두 108개의 그림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음. 권1-2에 수록된 그림은 단순한 필묵선에 의한 것이고, 권3-4에 수록된 그림은 자유롭고 변화 있는 필묵선과 함께 명암이나 원근 표현을 위하여 먹의 농담을 이용한 것임. 그림은 모두 모필에 의한 먹 단색 선화인데 아직까지 연필이 묘화재료나 필기의 용구로 그리 일반화되지 못한데다 우리의 전통적인 도화의 용구가 모필이었기 때문이었음.
- 도안제재로는 단독문양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한복을 입고 있는 아이, 갓, 가죽신 등 한국적인 소재가 도판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우리의 시각도 반영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임. 실린 도안 중에는 대부분 모두 기하학적 무늬 혹은 자연에서 소재를 취한 그림과 같은 단독문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기하학적 문양들은 자를 사용하여 그린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하학적 도안에서는 붓의 굵기 변화는 거의 느낄 수 없음. 이렇게 『도화임본』은 일본의 『고등소학 모필화수본』을 모방하였으나 한국인의 생활모습이나 용품, 자연 정경 등 우리의 소재들도 수록되어 있음. 곧 모필화에 의한 서양화법을 도입하면서도 민족의 주체의식이나 미적 감각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것임.



<사진2> 4책의 발행년(왼쪽 상하는 권1-2, 오른쪽 상하는 권3-4)

- 수록된 도화를 그린 사람에 대해 이구열(李龜烈)이 관재(貫齋) 이도영(李道榮, 1884~1933) 이라고 하는 등 대체로 이도영으로 보고 있음. 그것은 이도영이 1915년 조선총독부 검인정 교과서로 『모필화임본』과 『연필화임본』에 그림을 그린 점을 미루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임. 다만 이 책에는 그림을 그린 인물에 대한 기록은 없음.
- 이 『도화임본』은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이후 『정정 보통학교 학도용도화임본(訂正 普通學校 學徒用圖畫臨本)』으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되었고, 1921년 『보통학교 도화첩』이 발행될 때까지 사용되었음. 정정한 내용은 『도화임본』에 수록된 “태극”(문양)이 일장기로 대체된 것이었음.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도화임본 4책은 권1-2(1907.02)와 권3(1908.03)은 초판임. 그러나 권4는 초판이 발행된 지 1년이 지난 1909년 3월 15일에 간행된 개판(改版)임.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도화임본』 4책은 앞의 3책은 초판본이고, 나머지 1책은 개판본인 것임. 이러한 편성은 처음 입수할 때부터 그랬던 것으로 보임. 그것은 각 책의 앞표지에 권1에는 펜으로 “第一版”, 권2와 3에는 주색으로 “第一版”으로 써놓은데 비해 권4에는 펜으로 “第二版”이라고 써놓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임.
- 그리고 권2와 권3은 「學部圖書(학부도서)」, 「編輯局保管(편집국보관)」이라는 인장과 함께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조선총독부도서관장서지인)」, 「朝鮮總督府寄贈本(조선총독부기증본)」이라는 인장과 대정 15년(1926) 6월 5일의 등록인(등록번호 15071)이 찍혀 있음. 이에 비해 권1과 권4는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 「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는 인장과 대정15년(1926) 6월 5일의 등록인이 찍혀 있을 뿐임. 그러므로 이 4책은 1926년 6월 5일이라는 동일한 등록일과 “15071”이라는 동일한 등록번호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에서 처음

입수할 때부터 한 질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특히 권2와 권3의 두 책은 이 책을 편찬 발행한 학부의 편집국의 보관용 도서였던 귀중한 책임.



<사진3> 「學部圖書」, 「編輯局保管」인장(좌측 상하)

- 외형은 국판 크기의 가로가 긴 횡장(橫長) 형식의 장정임. 회색표지에 『圖書臨本』이라는 서명과 권수(卷數)가 가운데 있고, 위로는 學部編纂(학부편찬), 아래에는 株式會社國光社印刷(주식회사국광사인쇄)라는 글이 육필 해서체로 되어 있음. 표지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표제지 다음 장부터 임화본이 수록되어 있음.

3) 기타(참고자료)

- 박휘락, “도화임본고”, 『대구교육대학교논문집』, 제25집(1989).
- 박휘락, “미술과 교과서 도서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논문집』, 제26집(1990).
- 박소영, “근대초등미술교과서 다시읽기”, 『미술교육논총』 제26권 1호(2012).
- 김윤수 저, 『한국미술 100년』, 파주: 한길사, 2006.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도화임본』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 미술교과서임. 만일 이 책이 없었다면 개화기 시대의 미술 교육을 살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료가 없었을 만큼 최초의 미술 교재로서의 가치는 크다고 하겠음. 비록 일본의 『고등소학 모필화수본』을 참고하였으나 우리의 생활모습이나 용품, 자연 정경 등도 수록되어 있어 민족의 주체의식이나 미적 감각이 수용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도화임본』은 마지막 책인 권4가 개판본이어서 아쉬운 점은 없지 않음. 그러나 4책 1질의 완질일 뿐 아니라 그 중 두 책은 이 책을 편찬한 학부편집국의 보관용 도서였던 만큼 그 가치는 더하다고 하겠음.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유부현 문화재 전문위원(2017.6.1.)>

1) 현상

- 장정의 형태는 양장이며, 총4권(4책)임.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임.

2) 내용 및 특징

- 학부에서 발행된 『도화임본』은 1906년에 제정된 보통학교령에 의한 시행규칙에 따라 편찬되었으며, 총 4권 4책으로 1권과 2권은 1907년에 출판되었고, 3권과 4권은 1908년에 발행되었음.
- 1906년 학부령에 의한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상적인 형체를 관찰하여 그릴 능력과 미감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간단한 형체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서는 실물이나 화첩에 있는 것을 연구하여 그리게 하고 또한 간단하고 쉬운 기하화를 교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도화임본』에서 ‘임본’은 임화본의 성격을 가진 교재로, 임모하는 것을 교육의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모필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교과서의 소재는 한복을 입고 있는 아이, 각, 가죽신, 사각무늬, 물결무늬, 굴 단면도, 기하모양, 나비와 도안, 배꽃무늬, 나는 기러기모양, 태극문양 등임.

3) 문헌자료

- 박휘락, “「圖畫臨本」考”, 『대구교대 논문집』 25, 대구교육대학교.

4) 기타(동일 판본의 현존본 상황)

- 도화임본의 현존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도화임본』은 개화기 최초의 국정미술교과서로 평가받는 점, 개화기 시기의 미술교육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인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외에는 남아 있는 현존본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됨.

<국성하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2017.6.1.)>

1) 현상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4부를 확인하였으며, 보존상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기초사항】

- 갑오개혁(1894년)을 전후하여 정부의 신 교육제도에 따라 소학교에서 수신, 읽기, 작문, 습자, 산술, 체조(또는 지리, 역사, 도화, 외국어 등)의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고, 미술교육은 ‘도화’라는 명칭으로 가르치게 되었음.

- 『도화임본』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학부에서 편찬하여 발행한 최초의 미술 교과서임. 학생들이 일상적인 형체를 관찰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음.
- 『도화임본』은 1906년 제정된 보통학교령에 의한 시행규칙에 따라 편찬됨. 시행규칙의 교수요지를 보면 “일상적인 형체를 관찰하여 그릴 능력과 미감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간단한 형체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서는 실물이나 화첩에 있는 것을 연구하여 그리게 하고 또한 간단하고 쉬운 기하화를 교수한다”라고 명시하였음. 『도화임본』은 따라서 임모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삼고 있으며, 모필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도화임본』은 일본 문수성에서 1904-1905년에 발행한 『모필화수본』과 그 내용이 흡사하여, 『모필화수본』을 참고하여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함. 그러나, 한복을 입은 아이, 갓, 가죽신 등 한국적인 소재가 도판에 제시되어 한국적인 시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도화임본』에는 사각무늬, 물결무늬, 굴단면도, 기하모양, 배꽃무늬 등 다양한 문양 포함되어 있어 디자인 교육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음.
- 정정(訂正) 『圖畫臨本』이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출간되는데, 이 교과서의 내용 중 태극기가 일장기로 바뀌는 등의 편집이 있었음. 이 당시 정정 『도화임본』과 함께 일본의 『모필화수본(毛筆畫手本)』 등이 병용되기도 하였음.

【세부조사사항】

- 2017년 6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화임본 4권(1-4책)을 검토하였음. 1, 2권은 광무 11년(1907년), 3권은 융희 2년(1908년), 4권은 융희 2년에 발간한 것을 융희 3년(1909)년에 개판한 것이었음. 1-4권 모두 학부에서 편찬하였으며, 주식회사 국광사(國光社)에서 인쇄하였음. 흥미로운 것은 4권에는 책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가격은 십이전이었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화임본』 표지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화임본』 내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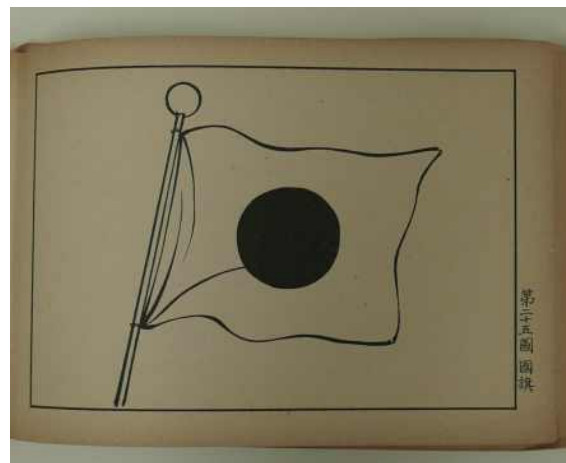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화임본』 표제지면

-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정 『도화임본』도 열람하였는데, 태극기 등이 일장기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정 『도화임본』 표지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정 『도화임본』 내지면

3) 기타(참고자료)

- 김향미,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는 근대 미술교육의 변천」, 『한국근현대미술교과서전』, 김달진미술관, 2013.
- 박소용, 「근대 초등미술교과서 다시 읽기」,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제26권 1호, 2012.
-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최초의 미술교과서라는 의의가 있고 희귀성이 있어 문화재 등록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확인된 것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본이 있으며, 다른 소장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보존상태는 양호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검 토 사 항

7. 「구 진월면사무소」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광양시 소재 「구 진월면사무소」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진월면사무소」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18.9.7.)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광양시장
- (2) 대상문화재 : 구 진월면사무소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선소리 168, 802-16번지)
 - 용도 : 공공시설
 - 소유자 :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 수량 및 면적 : 건축물 1동(1층) / (연면적 151.97㎡)
* (본동 119.72㎡ + 증축동 32.25㎡)
 - 높이 : 6.83m
 - 건립시기 : 1956년(상량문 기록) * 1925년 현 위치 최초 건립(추정)
 - 구조 : 조적조, 목조트러스
- (3) 등록범위 결정 필요 : 증축부 포함 여부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9.7.)

- 이 건축물의 전면 출입구의 조소적 입면은 다른 문화재 건축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근대적 디자인이 잘 살아있는 사례임. 건물 전체의 상세조사와 복원은 필수적이거나 전면부 주출입구의 조형은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만큼 특히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9.7.)

- 구 진월면사무소의 경우 면사무소 건축이 갖는 평면 형식(공간크기)과 주출입구 장식의 경우 주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성을 갖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음.
- 따라서 이와 함께 사라진 전면 입면을 원형으로 복원하여 주출입구 장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평면원형에 대한 연구조사와 해체 복원 시 사용재료 및 구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지도가 필요할 것임

○ 000 군산대학교 교수(2018.9.7.)

- 1950년대 소규모 관공서 건축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고 조형적으로 처리된 주출입구가 잘 남아있어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주출입구와 지붕구조를 보존하고 향후 원형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본래의 입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전면 창고 역시 자료조사를 통해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보존할 수 있도록 진월면사무소 신축 계획을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은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로 하며, 증축건물은 철거하되 부지는 포함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진월면사무소 창고 (구) 진월면사무소
2. 용 도 : (현) 창고 (원) 사무소
3.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168, 802-16번지
4. 소유자 : 광양시장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5. 시설물 개요
 - 구조 : 조적조, 목조 트러스
 - 제작년도 : 1956년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51.97㎡, 연면적 151.97㎡)
 - 층수(높이) : 1층, 6.83m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전문위원 (2018.9.7.) >

1) 개요

- 옛 진월면사무소는 지난 2008년 처음 그 보존이 논의되어 수차례 관련 전문가들이 답사 및 조사를 시행해 왔다. 이 건축물은 기초 지방 행정 건물로 여타의 동류 건축물에서 찾아보기 힘든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보존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옛 진월면사무소는 트러스 지붕구조에 상량문이 남아 있고 1956년(단기 4289) 7월 7일로 기록되어 있어서 현 건물은 이때 신축 혹은 재축(부분)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옛 진월면사무소는 1910년 최초 설립되었고, 1925년에 현 위치에 건립되었다고 1956년에 재건하였다고 보고되었다.
- 1979년에 현재 사용 중인 면사무소가 신축되면서 기존의 건축물은 창고 등 부속 건축물로 이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옛 진월면사무소 건축물은 본래 벽돌조(조적조)의 벽체와 트러스 구조의 지붕을 가졌으며 모임지붕으로 구성되었다. 창호는 수직 오르내림 창으로 초기에는 정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 5개, 우측에 3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문의 상하단에는 콘크리트 인방이 설치되었으며 창문의 위에 통풍창이 배치된 것으로 옛 사진에서 나타나고 있다. 처마는 현재보다 좀더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과정에서 벽체 보강되면서 처마깊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상당부분 원형이 남아 있으나 변형도 상당하다.
-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의 창호는 모두 폐쇄하고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며 우측에도 가운데 창호를 폐쇄하여 출입문을 만들었다. 측면과 후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창호를 폐쇄하였다. 우측 증축부분은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나 본 건물 우측벽면에 붙여 달아낸 것으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붕은 현재 석면 골 슬레이트로 이어져 있으나 초기에는 함석지붕이었는지, 기와지붕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 벽체의 하단부와 지붕의 트러스 구성은 초기 상태가 잘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출입구의 조형부분은 완전한 원형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옛 진월면사무소는 망덕포구에 인접하고 있으며 바로 인근에 선소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망덕포구는 예로부터 재첩이 많이 잡혀 오늘날에도 재첩국 음식점이 산재하고 있다. 망덕포구는 전국 최초로 김양식이 행해졌다고 알려졌으며 인근에 해태조합(존치)과 해태조합 관사(멸실)가 있어서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 망덕포구에는 아직도 옛 나루터의 흔적이 있으며 재첩 채취 시의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전어 활어양식법을 개발하여 지역의 음식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망덕포구에는 <윤동주 원고 보존 정병옥가옥>이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 연계 역사문화 관광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근대적 간이역인 경전선의 진상역, 옥공역 등이 인근에 존치되고 있는 점도 역사문화 관광지로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망덕포구의 재첩국과 전어활어는 관광음식으로도 좋은 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옛 진월면사무소가 문화재로 보존된다면 역사문화 자료로 지역의 관광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진월면은 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옛 면사무소 건축물이 보존된다면 신축면사무소 건물의 부속 공간으로 이 지역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축예정 새 면사무소 부지가 인접하고 있어서 면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지역의 관광지 문화공간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사항

1. 문화재 활용계획은 다소 미비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보다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활

용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역의 근대 생활사, 인물, 생활문화, 해변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발굴하여 주변의 다른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 벨트를 구축하여 이 건축물의 활용계획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동일 대지 안에 옛 진월면사무소와 거의 동시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창고 건물도 초기에는 면사무소의 부속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보존의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근대 건축물의 소규모 행정기관으로서 독특한 건축디자인을 가진 이 건물은 동류, 동 규모의 기 등록문화재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이 건축물의 전면 출입구의 조소적 입면은 다른 문화재 건축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근대적 디자인이 잘 살아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건물 전체의 상세조사와 복원은 필수적이거나 전면부 주출입구의 조형은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만큼 특히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000 문화재전문위원 (2018.9.7.) >

1) 개요

- 현재 진월면사무소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구) 진월면사무소 건물의 경우 건립연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925년 최초 현 위치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1965년 지붕 및 트러스를 전면 교체하여 1979년까지 면사무소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1979년 면사무소를 신축이전하면서 현재 창고로 활용 중에 있음.
 - 1925년 건립추정
 - 1965년 지붕 중건
 - 1979년 면사무소 이전 후 창고로 사용 중.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조적조 목조트러스 구조로 근대기 소규모 면사무소의 평면 구성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먼저 평면구성의 경우 건축물의 우측부분에는 면장의 집무실 및 부속실이, 좌측으로는 민원업무 공간이 위치함에 따라 주출입구는 우측으로 위치하는 전형적인 면사무소 평면형식으로 추정됨.
- 건축물 전체 입면의 경우 조적조 외벽을 인조석 물갈기 및 조형벽체 붙이기로 마감하여 근대기 관공서 건축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원형을 알 수 없으며, 하지만 주출입구의 경우 근대기 당시 관공서임을 나타내기 위한 주변장식은 원형 보존되어 있음.
- 초기 지붕은 마름모형 슬레이트 지붕으로 추정되며 이후 일식기화로 변형되었으나 현재 골강판으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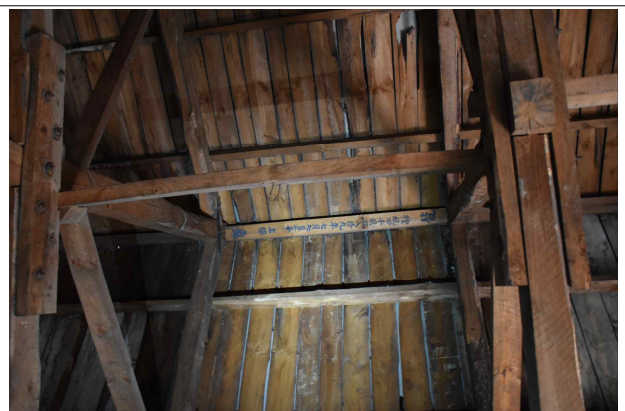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등록대상 건축물의 경우 1979년 이후 면사무소 기능을 상실하고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됨에 따라 면사무소 당시의 원형을 확인하기 힘든 상태임.
- 내부 평면의 경우 별도의 조적 칸막이벽을 세워 창고로 사용함에 따라 면사무소 당시 관공서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 이로 인해 내부마감 및 외부입면의 경우도 주출입구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창호와 출입문, 외부 입면구성이 변형되어 있는 상태임.
- 다만 주출입구와 1965년 건립된 목조 트러스의 경우 원형이 잘 남아 있으나 벽체 등 일부 구조의 노후화가 심한 상태로 보수 복원 작업이 시급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진월면사무소이 경우 주변지역에 근대기 역사문화 유산(광양군청, 서울대 학술림, 망덕포구, 정병욱가옥) 등이 주변에 있어 이와 연계하여 역사문화 공간 혹은 주민문화 시설로 활용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건축물의 경우 근대기 면사무소 건축이 갖는 특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 학술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존 및 관리 방안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이를 수행함에 있어 구 진월면사무소 원형에 대한 사전연구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외벽 구성방식과 재료, 그리고 당시의 건축기술 분야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복원 및 활용방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면사무소 신축 계획의 경우 본 대상문화재와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진월면사무소 신축계획과 구 진월면사무소 보존 활용계획을 동시에 기획하고 이를 신축사업 지침서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 .

다. 기타사항

- 구 진월면사무소의 경우 당시 면사무소의 배치 및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 조사를 통하여 그 의미를 밝혀, 근대기 면사무소의 원형적 모습을 복원하는 동시에 신축예정인 면사무소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면성을 강조함.

- 현존하는 동시대 건축물이 소수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는 건축물임. 벽체가 많은 부분 변형되어 원형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진 등을 통해 1950년대 지방 면사무소의 건축 형식을 짐작할 수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구 진월면사무소는 조적조로 벽체를 구성하고 목조 트러스 구조를 얹은 단층의 소규모 관공서 건축물로서 정면에 주출입구를 두고 석조처럼 보이도록 하는 조형적인 처리를 통해 주출입구의 무게감을 강조함.
- 건물의 정중앙에 주출입구를 두지 않고 오른쪽에 치우치게 위치시킴. 내부공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에 의해 가려지는 좌측 입면을 고려한 주출입구 위치 선정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과거의 사진을 통해 주출입구 좌우 입면은 동시대에 일반적인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한 수직 창으로 구성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변형되었음.
- 주출입구 좌측은 3개의 수직 창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우측은 그 길이로 보아 5개의 수직 창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측면과 배면 역시 정면과 유사한 형식의 수직 창으로 구성된 입면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의 미비로 확인이 어려움.
- 전면의 창고와 현존하지 않는 부속 건물이 ‘ㄷ’자 배치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79년 현재의 진월면사무소가 신축된 이후 창고로 사용됨. 창고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벽체, 개구부, 바닥 구성, 지붕 마감 재료, 공간 구성 등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정면 주출입구의 조형적 처리와 지붕의 목조 트러스 구조는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정면 벽체 하부의 기단부는 어느 정도 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지붕의 트러스 구조를 제외한 벽체와 창호 등은 많은 부분 노후화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사용 중인 진월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진월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구 진월면사무소 앞의 창고 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음. 구 진월면사무소 건물 역시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철거될 가능성이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구 진월면사무소가 자리한 곳은 진월면의 역사적, 행정적 중심 공간으로서 주변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보존 및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구 진월면사무소 건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면사무소로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6건으로 건축 양식적 특성과 건축 시기,

등록 사유 등은 다양함.

-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근대 행정청사의 희소성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구 진월면사무소와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1950년대 소규모 관공서 건축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고 조형적으로 처리된 주출입구가 잘 남아있어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주출입구와 지붕구조를 보존하고 향후 원형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본래의 입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전면 창고 역시 자료조사를 통해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보존할 수 있도록 진월면사무소 신축 계획을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고흥 죽산재」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고흥 죽산재」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흥 죽산재」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18.7.13.)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자연환경국민신탁
- (2) 대상문화재 : 고흥 죽산재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 13-2외 1필지
 - 용도 : 재실
 - 소유자
 - 서종식(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 자연환경국민신탁(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0, 관양동 서현빌딩 601호)
 - 수량 및 면적 : 건축물 1동 / 건축면적 57.33㎡(정면5칸×측면3칸)
 - 층수(높이) : 1층
 - 건립시기 : 1933년 4월(상량문)
 - 구조 : 한식목조(5량가, 이익공)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위원(2018.9.7.)

- 독립운동가인 서민호 선생의 선친인 서화일 선생의 별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다가 집이 거의 완성돼 가는 시기에 서화일 선생이 별세하여 재실로 사용되었던 특이한 내력을 가진 건축임. 별서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으며 건물의 원래 용도와 달라진 용도에 맞추어 변경된 내부의 흔적, 그 후의 살림집으로서 활용된 흔적 등 다양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유구임
- 그러나 근대기의 건축특성(기법, 건축기술, 재료 등)을 담고 있지 못하기에 등록문화재 보다는 지방의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다 원형유지와 주변환경 보전에 더욱 확고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000 문화재위원(2018.9.7.)

- 죽산재는 1933년 상량된 건물로, 상량문 내용에 의하면 만년의 소요(逍遙)와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도를 위한 재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
- 기본적 건축형식은 제실을 갖춘 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ㄷ’자 대청형 평면으로, 이익공 일출목 형식의 공포, 벽면의 다양한 벽화, 내외부 단청 등을 매우 화려한 기법으로 장식
- 죽산재는 시기적으로 근대기에 건축되었지만, 과거의 유교적 이념을 계승하여 제각으로의 활용을 기본목적으로 한 전통적 건물유형이고 기본적 건축형식도 전통한옥 목조형식으로 건축
- 이상과 같이 죽산재는 등록문화재의 기본적 취지인 근대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구현하고 근대성을 표출하기 보다는 과거의 전통성과 형식을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는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보다는 지역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원형 위주로 보존하는 지방문화재(문화재자료 등)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9.7.)

- 죽산재는 근대기 전라남도 벌교와 고흥 일대에서 유지로 활동한 서화일의 재실로 사용되었으나, 최초 건립 당시에는 그의 별서 정원으로 조성된 공간임. 가구(架構)구성, 용재(用材)의 규모, 치목 수법 및 단청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통건축의 양식과 기법을 충실이 따르고 있음.
- 전남지역 전통가옥들이 통상적으로 一자형의 평면 형태를 보이는 것에 반해, 죽산재 재실의 경우 ㄷ자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평면 형태는 ‘함평 이건풍 가옥(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51)’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건풍 가옥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죽산재와 유사한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는 재실로는 ‘강진 효정재(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47호)’와 ‘장흥 장천재(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2호)’ 등이 있으며, 죽산재의 경우 재실과 함께 비각, 묘소 등의 영역이 독립된 공간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밖에, 서화일 및 서민호가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지방문화재로 지정 권고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고흥 죽산재 (구) 죽산재
2. 용 도 : (현) 활용계획 마련 중 (원) 재실
3.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 13-2외 1필지
4. 소유자 :
 - 서종식(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 자연환경국민신탁(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0)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한식목조(5량가, 이익공)
 - 준공일 : 1933년 4월(상량문 기록)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57.33㎡(정면5칸×측면3칸)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 (2018.7.13.) >

1) 개요

- 독립운동가인 서민호 선생의 선친인 서화일 선생의 별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다가 집이 거의 완성돼 가는 시기에 서화일 선생이 별세하여 재실로 사용되었던 특이한 내력을 가진 건축이다. 별서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으며 건물의 원래 용도와 달라진 용도에 맞추어 변경된 내부의 흔적, 그 후의 살림집으로서 활용된 흔적 등 다양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유구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대문채는 화려한 공포와 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식, 마감되어 있다.
- 대문채를 지나 배지 한 가운데 강한 중심축을 이루는 계단을 오르면 본채인 죽산재가 2단의 기단 위에 자리 잡고 있다. ㄷ자 모양의 대청 형태를 띤 한옥이다. 건물의 전면은 모두 창으로 구성되어 있고 측벽은 벽으로 채워져 있으며 중앙에 광창을 두었다.
- 주두의 공포는 이익공이며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다.
- 평면구성은, 정면 5칸, 측면 3칸이며 좌우의 1칸이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건물 중앙에 3칸의 마루방이 있고 좌우 익부에는 양쪽 모두 앞쪽에 마루방, 뒤쪽에 온돌방이 마련되어 있다.
- 기단 및 초석의 하부구조, 기둥과 공포 등의 목조가구, 그리고 지붕의 구조와 마감은 전통적인 한옥건축의 구법을 취하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퇴락된 곳은 있으나 최근 들어 부분적으로 개수하고 정비하여 원형이 대체적으로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살림집으로 사용하며 마루방에 다다미를 일부 설치하였던 흔적들이 있으나 이 건물의 건립 이후 거주자의 생활변천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이며 원형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내의 대표적 보존운동 단체인 자연환경 국민신탁에서 소유하며 원 소유자인 유족들과 협의하여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사료로서 학습, 체험에 유용하게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보존관리 측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소유주의 관리 하에 바람직한 보존현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죽산재 외에도 서화일, 서민호 선생 문중 및 마을의 여러 유구, 그리고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풍부한 역사적 유구로서 가치를 높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본 유구는 건립연대가 1930년대, 근대시기라는 것 외에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근대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 단지 단청의 그림 내용(교회, 성당, 맥주병, 정물화 등)이 근대의 풍경 또는 사물을 소재로 한 것을 근대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근대 회화사 분야에서 다루어 동산부분의 등록문화재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근대기의 건축특성(기법, 건축기술, 재료 등)을 담고 있지 못하기에 등록문화재 보다는 지방의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다 원형유지와 주변환경 보전에 더욱 확고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000 문화재위원 (2018.7.13.) >

1) 개요

- 죽산재는 서민호(1903~74년)의 부친 서화일(1860~1933년)을 모신 제각으로, 현재 죽산재 주변에는 비각,공적비 4기가 현존하며 본래 이었던 연못 자리에는 주차장을 조성
- 서화일은 별교가 전성기를 누리던 1920, 30년대 당시 지역의 대표적 상인이자 대지주로 별교, 고흥, 보성, 순천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지역 사회단체와 학교에 많은 금품을 희사하고 선행을 베풀었음

- 서화일의 아들 서민호는 일제강점기 3.1운동 등으로 옥고를 두 번 치른 독립동가이자 해방 이후 광주 초대시장, 전남지사, 민의원, 국회의원 등을 지낸 인물로 200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 서씨 후손인 현재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죽산재의 보존, 관리에 대한 한계와 부담을 느껴, 자연환경국민신탁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기증 절차를 진행중이고 문화재로서의 지속적, 체계적 보존을 희망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죽산재는 2012~13년 수리 당시 종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기록된 ‘송정기원후육계유조하이일(崇禎紀元後六癸酉肇夏二日)’이라는 내용에 의하면 1933년 음력 4월 2일에 상량
- 상량문 내용에 의하면 죽산재는 두 가지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상량문에는 만년의 소요(逍遙)와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도를 위한 재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한다고 기록
- 죽산재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언덕 위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제각인 죽산재를 중심으로 대문 전면 아래쪽에 비각, 공적비 4기, 연못(본래 연못이 있었던 자리에 현재는 주차장을 조성) 등이 위치
- 죽산재는 30여 단의 높은 계단을 올라 일주문 형식의 대문을 지나면 적벽돌 담장과 축대로 둘러싸인 마당에서 후면부에 위치하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한옥 목구조로 겹처마, 팔작지붕 형식
-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좌우에서 1칸이 전면으로 돌출된 ‘ㄷ’자형의 대청형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후면 벽면 중앙부에 제실(祭室)을 갖춘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온돌방을 배치하고 그 전면에 각각 돌출된 마루방을 배치
- 5량가 구조로 이익공 이출목 구조의 공포는 위로 솟은 형태의 쇠서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 형태이며, 내외부 단청도 매우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
- 내외부 단청뿐만 아니라 현판 뒤쪽에 숨겨져 있는 귀면 문양 그림, 죽림칠현(竹林七賢)과 유사한 내용으로 벽면 곳곳에 장식된 벽화 등 독특한 그림에 의해 건물 내외부를 화려하게 장식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그 동안 지속적 노후화와 관리부실로 훼손이 심각하였으나 2012~13년 고흥군에서 지붕, 벽체, 바닥 등을 보수하여 현재는 전체적으로 원형보존 상태가 양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소유자는 지속적, 체계적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국민신탁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기증 절차를 추진중이고 고흥군에서도 보존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재로서의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제각으로서의 기본적 용도를 바탕으로 주변의 비각, 공적비와 연계하여 구체적 활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전통적 제각의 건축물 유형으로서 등록문화재 사례는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죽산재는 1933년 상량된 건물로, 상량문 내용에 의하면 만년의 소요(逍遙)와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도를 위한 재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
- 기본적 건축형식은 재실을 갖춘 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ㄷ’자 대청형 평면으로, 이익공 일출목 형식의 공포, 벽면의 다양한 벽화, 내외부 단청 등을 매우 화려한 기법으로 장식
- 죽산재는 시기적으로 근대기에 건축되었지만, 과거의 유교적 이념을 계승하여 제각으로의 활용을 기본목적으로 한 전통적 건물유형이고 기본적 건축형식도 전통한옥 목조형식으로 건축
- 이상과 같이 죽산재는 등록문화재의 기본적 취지인 근대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구현하고 근대성을 표출하기 보다는 과거의 전통성과 형식을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는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보다는 지역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원형 위주로 보존하는 지방문화재(문화재자료 등)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 000 문화재전문위원 (2018.7.13.) >

1) 개요

- ‘죽산재’는 전라남도 별교와 고흥 일대에서 유지로 활동한 서화일(徐和日, 1860~1933)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별서(別墅)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준공을 얼마 앞두고 사망하게 됨에 따라 그의 아들 서민호(徐珉濠, 1903년~1974)가 부친의 재실(齋室)로 고쳐 짓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이후, 죽산재가 재실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자연 퇴락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오던 것을 2013년 지붕을 포함한 대문 및 굴뚝 등 그 일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 공사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개,보수 과정에서 지붕가구의 종도리 밑에서 1933년 음력 4월 2일에 송병섭(宋炳燮)이라는 인물이 쓴 상량문이 발견되어 죽산재의 정확한 건립 연도가 확인되었음.
- 현재, 죽산재 일괄의 건축물 및 토지(임야)는 후손 서종석씨가 일부분을 ‘자연환경 국민신탁’에 기부하여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며, 향후 자연환경국민신탁 측에서는 죽산재를 포함 그 주변의 임야를 일종의 별서공간으로 복원하여 체류형 휴양시설 및 지역의 상징적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오늘날 죽산재 영역은 크게 재실 영역과 그 좌측편 아래에 위치한 서화일의 추모비각 영역, 뒤쪽 산에 자리잡은 서화일의 묘소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재실은 본래 별서정원의 서실(書室)로 계획되었던 공간으로 정면5칸×측면3칸의 5량가(架構) 겹처마 팔작지붕 한옥 건물로서 기둥은 모두 원주(圓柱)를 사용하였으며 도리는 모두 팔각형으로 치목한 부재를 사용하였고 외진주 상부에는 1출목 이

익공의 공포를 놓아 출목도리를 받치고 있음. 제공(수서 및 양서)의 치목 형태, 단청 장식 및 지붕 합각부분에 사용한 충량의 보머리를 용머리로 장식한 것 등으로 보아 사용 부재들의 장식 기법이 매우 화려함.

- 재실의 평면은 중앙의 대청마루(3칸)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1칸의 방을 배치하고 다시 그 방의 전면으로 각 1칸의 방을 달아내어 전체적으로는 ㄷ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통상, 전남지역 전통가옥들이 一자형의 평면 형태를 보이는 것에 반해, 죽산재 재실이 ㄷ자형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재실의 좌,우측편에는 붉은 벽돌을 이용하여 방형(方形)으로 쌓아 올린 굴뚝이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대청마루의 중앙 어칸 후면쪽에는 별도로 제작된 제단이 설치되어 있어 재실로 사용할 당시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단 전면에는 유리를 끼운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전면으로 돌출된 좌우측의 방에는 현재 다다미가 깔려 있으나 본래는 온돌방이었다고 하나 정확히 언제 변형되었는지 알 수 없음.
- 재실의 내부에는 근대기의 풍물이나 경관을 표현한 다양한 소재(인물산수도, 화조도, 사군자도, 수묵화, 노송도 등)의 벽화 188개가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재실 정면으로는 전통건축 양식인 다포(多包)형식의 일주문(대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좌우로는 붉은 벽돌의 담장이 재실의 영역을 둘러싸고 있고, 일주문(대문) 전면으로는 콘크리트 기둥 위에 아치 형태로 제작된 철재 구조물을 설치되어 있음.
- 서화일의 추모 비각은 재실 영역의 좌측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시기는 재실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음. 정면1칸×측면1칸의 5량가(架構) 겹처마 팔작지붕 형태의 건물로 다포건축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비각 주변으로는 붉은 벽돌의 담장으로 그 영역을 둘러싸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건립 이후, 오랫동안 재실의 기능으로 사용해 왔으나 그 기능을 상실한 이후 줄곧 방치됨에 따라 자연 퇴락된 것을 2013년에 재실을 포함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죽산재의 초기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변형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며, 특히 재실 내 일부 방에 깔려 있는 다다미의 설치시기 및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서종석, 자연환경국민신탁)측에서도 역사적 산물과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었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죽산재 일곽의 건축물 및 토지(임야)는 후손 서종석씨가 일정 부분을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부하여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며, 향후 자연환경국민신탁 측에서는 죽산재를 포함 그 주변의 임야를 일종의 별서공간으로 복원하여 체류형 휴양

시설 및 지역의 상징적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원형보존, 관리와 더불어 체험공간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남해 덕신리 하천재(등록문화재 제234호)’, ‘정읍 영주정사와 영양사(등록문화재 제212호)’ 등 전국에 걸쳐 여러 사례가 있으며 이들 시설과 비교할 때, 건립 당시의 시대적 특징, 다시말해 전통적인 재실의 개념 및 건축형식 등이 근대기에 들어와 변화하는 과정 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없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죽산재는 근대기 전라남도 벌교와 고흥 일대에서 유지로 활동한 서화일의 재실로 사용되었으나, 최초 건립 당시에는 그의 별서 정원으로 조성된 공간임. 가구(架構) 구성, 용재(用材)의 규모, 치목 수법 및 단청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통건축의 양식과 기법을 충실이 따르고 있음.
- 전남지역 전통가옥들이 통상적으로 一자형의 평면 형태를 보이는 것에 반해, 죽산재 재실의 경우 ㄷ자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평면 형태는 ‘함평 이건풍 가옥(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51)’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건풍 가옥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죽산재와 유사한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는 재실로는 ‘강진 효정재(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47호)’와 ‘장흥 장천재(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2호)’ 등이 있으며, 죽산재의 경우 재실과 함께 비각, 묘소 등의 영역이 독립된 공간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밖에, 서화일 및 서민호가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9. 「고양고등학교 석조관(강당)」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고양고등학교 석조관(강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양고등학교 석조관(강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18.9.6.)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양고등학교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장 위임관리)
- (2) 대상문화재 : 고양고등학교 석조관(강당)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삼송로 171(삼송동) 고양고등학교
 - 용도 : 체육시설(강당)
 - 소유자 : 경기도교육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 수량 및 면적 : 건축물 1동 / 건축면적 516.66㎡, 연면적 516.66㎡
 - 건립시기 : 1955년(추정)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석조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위원(2018.9.6.)

-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복구기에 건립된 중등교육기관의 강당은 다수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이미 등록된 비슷한 유형의 문화재와 비교하면 근대기 건축물의 특징을 담고 있는 부위의 변형이 심하여 등록의 기준에는 미흡.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이 화재로 인해 지붕구조가 바뀌었으나 본체의 구조 등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평가 받아 등록된바 있음)
- 단, 이 유구가 전국적인 기준에서 건축유구로만 판단하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나 한 때 서울의 대다수 행정구역을 담당하였던 고양군의 공립교육시설로 실업계 교육의 일선에서 벌어진 재료, 기술수급의 실정에서 주민들에 의한 최선의 노력이 새겨져 있는 유일한 유구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1950년대부터 교정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사의 유구 등을 추가 발굴하여 이 학교의 역사성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학교 주변의 도시계획의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본 유구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000 문화재위원(2018.9.6.)

- 고양고등학교 강당은 1956년경 완공된 건물로 당시 미군공병대의 지원을 받고 학생들이 직접 돌을 날라서 건축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까지 지역의 대표적 집회장소이자 각종 공공행사 장소로 활용
- 2010년 태풍 피해 이후 대대적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지붕 등 건축원형의 많은 부분이 변형되고 건축적 특성이 훼손되었으며 그 결과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
- 학교 강당으로서 등록문화재 사례가 다수 현존하고 고양고등학교 강당은 개보수 공사를 통해 건축원형이 변형되고 건축적 특성이 훼손되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9.6.)

- 고증자료의 한계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변형이 있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을 감안할 때,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고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 상징적 시설물서 보존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압력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도건축문화자산' 차원에서 향후, 멸실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고양고등학교 석조관(강당) (구) 고양고등학교 강당
2. 용 도 : (현) 체육훈련시설 (원) 교육시설(다목적강당)
3.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삼송로 171
4. 소유자 : 경기도교육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 석조
 - 준공일 : 추정(1955년)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516.66㎡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 (2018.9.6.) >

1) 개요

- 고양고등학교는 1939년 1월 10일에 고양공립채소실습학교로 인가되어 1947년에 고양공립초급중학교 4년제로 인가 받았고 1952년 고양농업고등학교, 1970년 고양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1976년에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었고 2003년에 고양고등학교로 교명개칭, 2012년에 조경인테리어, 식품생활과학, 애완동물관리, 스마트광전자 등의 전문학과를 둔 생활문화 특성화고로 선정되었다.
- 6.25 이후, 이 학교 뒤편에 주둔하고 있던 미 공병대로부터 시멘트와 군용트럭 등의 지원을 토대로 재학생들이 자재운반, 근처 개천에서 골재채취 등의 사역을 발휘함으로써 본관과 강당을 건축하였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등록 신청된 본 건물(강당)과 같은 시기에 본관, 교사동도 지어졌다고 하나 새로운 교사 신축을 위하여 본관은 철거되었고 현재는 강당만 남아 있다.
- 현재 보존되어 있는 건물의 상황과 건축당시 재학생으로서 건축작업에 참여하였던 졸업생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줄기초 위에 학생들이 주변 개천에서 수습하여 온 호박돌을 쌓아 외벽을 만들고 적당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워 그 사이에 창을 설치하였다. 기둥사이의 창호는 당시 학교건축에서 많이 사용하던 스틸 새쉬의 모던한 디자인이다. 즉 전체적으로 호박돌 막쌓기의 외벽과 (철근)콘크리트 기둥으로 건축구조를 형성하고 그 사이의 개구부에 철제창호를 설치한 몸체에 평슬래브 지붕을 설치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현지의 사정에 따라 목재 트러스 구조로 지붕을 씌우고 천장은 우물반자로 마감한, 단순한 건물이다. 강당의 주출입구 상부 박공에

는 격자형 문양을 넣어 당시에 모더니즘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내부의 바닥은 마루널 깔기였을 것을 추정되며(벽의 외부 아랫단에 환기구멍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강단은 높이 1m 가량의 무대가 기둥 한 스펠 정도의 깊이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프로세니움도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옛 사진 참조)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10년도 태풍으로 인해 지붕의 마감재료가 이탈되어 천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외벽 창호 상부이상의 벽체와 지붕틀 전체를 해체하고 지붕구조는 철골로 하여 기둥상부에 베이스를 추가 설치하여 이 위에 지붕 구조체를 올려놓았다. 이 공사를 시행한 덕에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된 측면은 있으나 1950년대 후반의 건축이 가지는 특성인 목조트러스, 마루바닥 마감, 외벽창호 상부의 보 구조, 우물반자 등, 원형을 잃은 부분이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는 경기도 교육청이나 본 학교장에게 관리가 위임되어 있다. 공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인,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유구에 대한 확실한 역사적, 문화재적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점, 활용방안에 대한 비전 부족 등을 본 유구는 안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전쟁 직후에 재건의 물결 속에 이룩하였던 모교의 역사적 유구의 가치에 눈을 뜬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보존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소유자(교육청), 관리자(학교장), 애착을 가지는 주민들(졸업생 등)이 확고한 보존의지와 관리, 활용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 아울러 일산 신도시의 개발 붐에 힘입어 이 학교 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본 유구가 철거될 가능성에 대하여 졸업생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학교의 시설물로 사용될 것으로 짐작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않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소유자, 관리자, 졸업생, 주민 간의 밀접한 소통을 통한 실질적 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무리가 있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복구기에 건립된 중등교육기관의 강당은 다수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이미 등록된 비슷한 유형의 문화재와 비교하면 근대기 건축물의 특징을 담고 있는 부위의 변형이 심하여 등록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하겠다.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이 화재로 인해 지붕구조가 바뀌었으나 본체의 구조 등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평가 받아 등록된바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단, 이 유구가 전국적인 기준에서 건축유구로만 판단하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다고 여겨지나 한 때 서울의 대다수 행정구역을 담당하였던 고양군의 공립교육시

설로 실업계 교육의 일선에서 벌어진 재료, 기술수급의 실정에서 주민들에 의한 최선의 노력이 새겨져 있는 유일한 유구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1950년대부터 교정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사의 유구 등을 추가 발굴하여 이 학교의 역사성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학교 주변의 도시계획의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본 유구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000 문화재위원 (2018.9.6.) >

1) 개요

- 고양고등학교는 1938년 고양공립채소실습학교로 최초 설립된 후 1947년 고양공립초급중학교, 1952년 고양농업고등학교, 1970년 고양종합고등학교, 2003년 고양고등학교로 각각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고양고등학교 1회 졸업생의 증언에 의하면 1954년 입학후 학생들이 인근 지역에서 돌을 주어 날라서 본관(1954년)을 짓고 이어서 강당(1956년)을 지었다고 하므로, 강당은 1956년 건축된 것으로 추정 가능
- 본관, 강당 모두 석조 건물이었으나 현재 본관은 철거되고 강당만 남아 있으며, 강당은 2010년 태풍 당시 피해 이후 보수공사를 통해 지붕, 내부바닥, 외벽 일부 등이 변형된 상태
- 고양시가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한 1980년대까지는 학교 강당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가장 대규모이고 대표적인 실내집회 장소로 집회, 공연, 영화상영 등의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
- 고양고등학교가 개교 80주년이 되는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임에도 과거 역사를 보여주는 흔적이 대부분 사라진 현황에서 유일한 흔적이므로, 동문회를 중심으로 지속적 보존을 희망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양고등학교 강당은 1956년경 완공되었으며, 당시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공병대의 지원을 받고 학생들이 인근 하천 창릉천과 북한산 계곡에서 돌을 직접 날라서 건축
- 기본적 건축형식은 장방형 평면에서 양단부에 무대, 주출입구 및 현관을 각각 배치하고 주출입구 상부에는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2층을 형성하였으며, 외벽은 자연석 쌓기 마감이고 지붕은 박공지붕 형식
- 현재 외벽이 자연석 쌓기의 석조로 마감되어 있으나 구조체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추정되며, 2010년 태풍으로 인한 지붕 마감재 파손을 계기로 대대적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지붕 등 건축원형의 많은 부분이 변형된 상태
- 본래 지붕은 본래 목조트러스 위 함석(추정) 마감이었으나 현재는 철골조 위 경량 판넬 마감으로, 내부바닥은 목조마루이었으나 시멘트 바닥으로, 내부천장은 격자형 합판마감이었으나 경량금속판넬로 각각 변형된 상태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10년 태풍 당시 지붕 마감재가 훼손되면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노후화된 부분까

지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면서 건축원형의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으며, 현재는 태권도훈련장으로 활용되며 유지관리 상태는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학교측에서는 동문회를 중심으로 고양고등학교의 80년 역사를 보여주는 유일한 건물로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재로서의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는 태권도훈련장의 체육관 용도로 활용중이며, 문화재로서의 구체적 활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학교 강당으로서 등록문화재 사례는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과 강당(제5호),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제60호),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과 본관 포치(제172호),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제176호), 홍성고등학교 강당(제272호),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제350호), 청주 대성여자중학교 강당(제351호),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제427호)이 있음
- 고양고등학교 강당은 기존 등록사례에 비해 건축원형의 변형이 심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하며, 두드러진 건축적 특성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고양고등학교 강당은 1956년경 완공된 건물로 당시 미군공병대의 지원을 받고 학생들이 직접 돌을 날라서 건축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까지 지역의 대표적 집회장소이자 각종 공공행사 장소로 활용
- 2010년 태풍 피해 이후 대대적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지붕 등 건축원형의 많은 부분이 변형되고 건축적 특성이 훼손되었으며 그 결과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
- 학교 강당으로서 등록문화재 사례가 다수 현존하고 고양고등학교 강당은 개보수 공사를 통해 건축원형이 변형되고 건축적 특성이 훼손되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고양고등학교 구 강당

< 000 문화재전문위원 (2018.9.6.) >

1) 개요

- ‘고양고등학교 석조관(강당)’은 오늘날 고양고등학교의 전신인 고양농업고등학교(1953년 설립 허가) 시절 다목적강당으로 사용된 건물로 1953년 공사를 착공하여 그 이듬해인 1954년 준공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관계자(졸업생)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 건립된 만큼 공사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상주하였던 미군부대의 원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또한 당시 재학생들이 인근의 북한산(사기막골)과 창릉천 주변에서 돌을 직접 채취하여 운반하는 등 건축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함.

- 석조관(강당)은 학교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이동영화 상영, 결혼식 및 각종 행사 개최 등 당시 고양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었음.
- 또한, 석조관(강당)과 동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내 다른 시설물들은 1990년 초반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두 철거되어 소실되었음.
- 현재의 석조관(강당) 건물은 2010년경 태풍('메기'로 추정) 피해를 입어 그 이듬해인 2011년 지붕 복구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고양고등학교 태권도수련관으로 사용하고 있음.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당초부터 강당의 용도로 건립된 만큼, 장방형(31.5m×19.0m)의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실내에는 기둥 없이 장스팬으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외벽에 면하여 설치된 방형(方形)의 콘크리트 기둥이 상부 지붕의 하중을 받고 있음.
- 주출입구는 장방형 평면의 서측 단변부에 두었으며, 안쪽으로는 일종의 전이공간인 전실(前室)을 두어 이를 통해 실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음. 전실 전면으로는 방형의 콘크리트 기둥 열주가 나열되어 있고 그 상부는 백색의 시멘트몰탈로 마감처리 되어있으나 본래는 수직방향의 오르내리 창호를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정면부의 상징성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 전실 상부에는 실내에서 중2층의 관람석 공간을 만들었으며 출입문 양측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바닥에는 원형의 것으로 보이는 장마루를 깔아 마감하였음.
- 출입문 반대편 즉, 강당 동측 단변부에는 3.5m 너비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리모델링(2011년) 공사 과정에서 변형되어 원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강당 바닥면 역시, 본래의 장마루에서 현재와 같이 콘크리트로 바뀌었음.
- 관계자(졸업생) 증언에 의하면, 외벽은 강돌을 찰쌓기로 방식으로 쌓아 올렸다고 하나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무대측 외벽면 일부 벽체는 리모델링(2011년) 과정에서 콘크리트 벽체 위에 조적(벽돌)으로 마감하였음.
- 지붕은 본래 목재 트러스로 짜여졌으며 그 아래에 달대를 매달아 반자를 설치하여 천정을 마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리모델링(2011년)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경량철골조로 시공되었음. 또한, 이 과정에서 지붕구조체(경량철골)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기존 기둥의 상부면을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고증자료의 한계로 최초 건립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정면부의 파사드, 창호, 지붕구조 및 마감재 등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특히, 태풍 피해(2010년)로 인한 복구공사 및 리모델링(2011년) 과정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C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나 전체적인 구조물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계자(고양고등학교 및 총동문회)에 의하면, 현재의 고양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개발 압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 훼손 및 멸실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임(인근에 위치한 고양중학교는 이미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된 상태이며, 이 부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학교의 역사 및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영구히 보존하고 향후, 학교 운동부 훈련시설 등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동문회에서도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학교 시설인 점을 감안, 지속적인 보존·관리와 더불어 훈련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등록문화재 제679호)’ 등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이들 시설과 비교할 때, 건립 당시 원형의 모습에서 적지 않은 변형이 있어 문화유산의 진정성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고증자료의 한계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변형이 있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을 감안할 때,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고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 상징적 시설물로서 보존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압력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도건축문화자산’ 차원에서 향후, 멸실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2차 근대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판종	형식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1장 (1편)	23.6×15.4cm (친필원고 : 22.4×14.1cm)	양지	친필시	날장	1938- 39년	이OO (개인)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	

(2) 추진경과

- 제2차 근대분과 문화재위원회(‘18. 2. 20.)
 -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蝙蝠)’ 문화재 등록검토
 -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추가 조사 필요성 언급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8. 14.)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8.14.)

- 현재까지 알려진 이육사의 친필 원고 시는 '편복'과 '바다의 마음' 등 2편에 불과한데다 특히 이 시는 서사, 작성형식이 균형을 갖추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도 미학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000 문화재 위원(2018.8.14.)

- 이미 「편복」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기에 이 작품 또한 등록문화재가 되는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북으로 월북한 육사의 동생, 이원조 비평가가 육사의 육필 원고를 소장하고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육사의 육필 원고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희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000 경북대학교 교수(2018.8.14.)

- 이육사 시인의 육필 원고의 희소성. 이육사 시인의 문학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육필 원고가 극히 희귀한 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육필 원고는 최근에 문화재로 등록된 「편복」과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바다의 마음」 2편밖에 없음.
- 육사의 시 중에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어휘들이 많아 의미 추정이 복잡하나 「바다의 마음」 육필 원고는 이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원본 자료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중요성을 지님.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가지번호 부여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조사보고서

1. 명 칭 :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
3. 소유자 : 이OO(개인)
4. 조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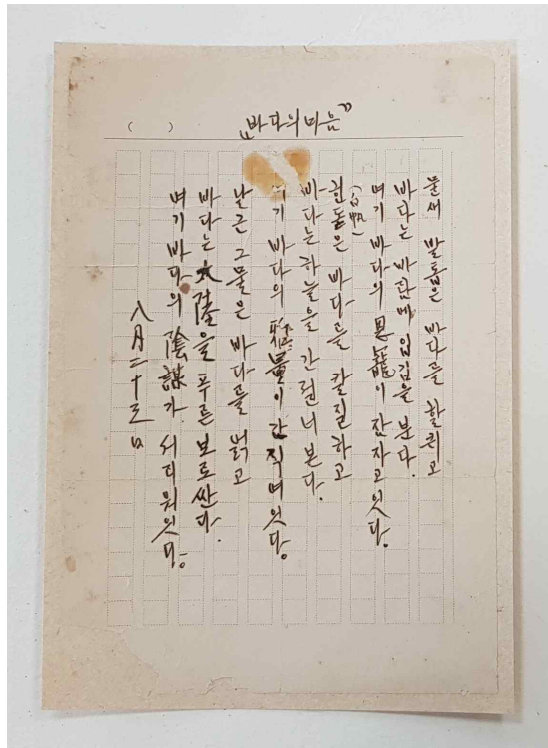
<OOO 문화재 위원(2018.8.14.)>

1) 현상

-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 손상. 전체 배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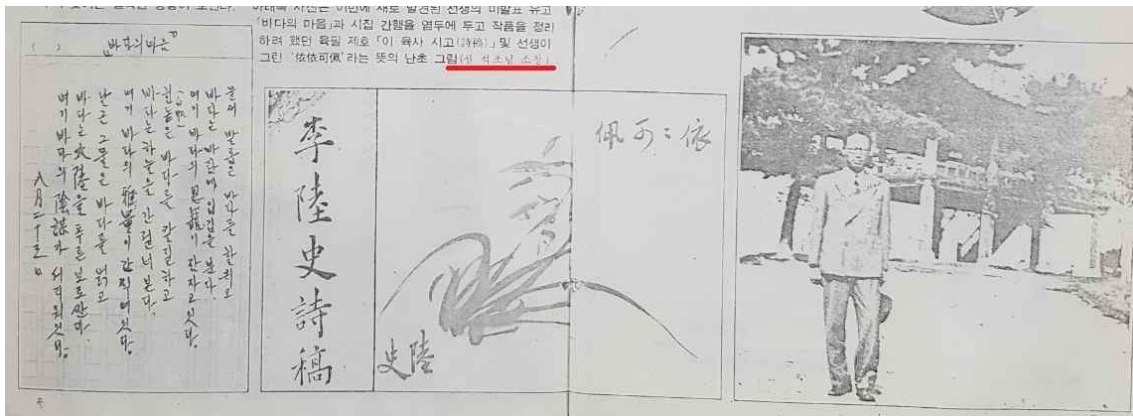
2) 내용 및 특징

- 이육사(李陸史, 1904.5.18~1944.1.16)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임. 본명은 이원록(李源綠) 또는 이원삼(李源三)이었으며, 이활(李活)로 개명하였음. 이육사는 대구형무소 수감번호인 이육사(二六四)에서 취음한 것이며, 자는 태경(台卿)임.
- 1924년에 일본에 유학하였으나 이듬해에 귀국하였음. 이후 1927년에 장진홍(張鎭弘)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 1929년 광주학생운동, 1930년 대구 격문사건(檄文事件) 등에 연루되어 모두 17차에 걸쳐서 옥고를 치렀음. 1931년에 중국에 갔다가 1933년 4월에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1기생으로 졸업하였음. 1943년 7월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검거되었고, 이후 1944년 1월 16일에 베이징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였음. 그의 묘소는 미아리 공동묘지에서 1960년에 고향인 원촌 뒷산으로 이장되었음.
- 문단 활동은 1930년 『조선일보』에 「말」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35년에는 『신조선』에 「춘수삼제(春愁三題)」·「황혼」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음. 그러나 생존 시에는 작품집이 발간되지 않았음. 1945년에 동생인 이원조가 유시(遺詩)인 「꽃」, 「광야」를 소개한데 이어 1946년에 『육사시집』을 출판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음. 공개되어 전하는 것으로는 「황혼」, 「청포도」, 「절정」, 「광야」 등 시 36편, 「만등동산(晩登東山)」 등 한시 3편, 「계절의 오행」 등 수필 4편, 「1935년과 노불관계 전망」 등 평문 17편 등이 전함. 196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음.
- 이육사는 “시는 행동이며 진정한 의미의 참여”로 보았고, 그래서 그의 시는 “식민지적 압력에 대항하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대륙을 전전하며 숭한 고난과 역경을 체험하였고, 인고와 생명의 절정에서 끝없는 기다림과 초인(超人)에 대한 열망을 시로써 형상화”(정한모, “육사시의 특질과 시사적(詩史的) 의의”, 『나라사랑』 16집 : 육사 이원록 선생 특집호, 외솔회, 1974)한 것임. 이렇게 그의 많은 시는 항일과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열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진1> 이육사의 친필시 '바다의 마음'

- 한편 이육사의 친필 시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이 있음. 곧 이육사의 ○○ ○인 ○○○ ○○○가 몇몇 친필 시를 소장하고 있었고, 현재는 그의 ○○(○○ ○)이 물려받았을 것이라거나 ○○의 또 다른 소장자가 소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임. 그러나 현재까지 이육사의 친필 시는 ○○○ ○○○가 이육사기념사업회에 기증하여 2004년에 건립된 이육사문학관에 소장 중인 '편복'만이 알려져 있음. 이 친필시는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문화재 제713호 (2018.05.08.)가 되었음.
- 한편 이육사의 친필 시는 '편복'외에도 '바다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미발표 유고인 '바다의 마음'은 사진으로 이미 공개되어 몇몇 자료(『나라사랑』 제16집과 『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 등에 신석초 시인의 소장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실제 소장자는 불명확하였음.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장자를 확인하고, 등록여부를 위한 실사를 하게 된 것임.



<사진2> 신석초 소장으로 『나라사랑』 (1974)에 소개된 '바다의 마음' 친필사진과 이육사

-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은 가장자리 부분이 손상된 곳이 있어서 소장자가 8-10년 전에 배접하였다고 하며, 현재 비단으로 만든 포갑 속에 보존되어 있음. 시는 200자 원고지에 세로로 쓰여져 있고, 끝에는 “八月二十三日”이라고 적어 놓았음. 여름철인 8월 23일에 쓴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쓴 연도는 알 수가 없음. 다른 창작 시들을 보아 1938~39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특히 9행으로 된 이 시는 ‘편복’에 비해 각 행의 마지막 자가 “고”(“오”), “다.”, “있다.” 등으로 동일하게 끝나는 등 서사, 작성형식이 균형을 갖추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도 미학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아울러 현 소장자가 선친인 이동영 전교수로부터 전해 받았다는 소장경위, 필체, 이미 사진으로 공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육사의 친필 시로 확인됨.

3) 참고자료

- 박현수, “이육사 시의 텍스트주의적 연구 시론”, 『한국근대문학연구』 6(2), 2005.10.
- 박현수, 『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 (서울: 예옥, 23008)
- 정한모, “육사시의 특질과 시사적(詩史的) 의의”, 『나라사랑』 16집 : 육사 이원록 선생 특집호, 외솔회, 1974.9.
- 김희곤, 『이육사의 독립운동』, 안동: 이육사문학관, 2017.
- 『나라사랑』 제16집(제4권 3호): 육사 이원록 선생 특집호, 외솔회, 1974년 가을.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 자료』, 2018.1.10
- 『광복오십주년기념 시인의 육필전』, 1995.7.15.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현전하는 이육사 친필원고 중에서 ‘편복’만이 공개되었고, 이 ‘편복’ 시는 등록문화재가 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음. 또 다른 친필 원고 ‘바다의 마음’은 근대문화재과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공개되었음. 현재까지 알려진 이육사의 친필원고 시는 ‘편복’과 ‘바다의 마음’ 등 2편에 불과한데다 특히 이 시는 서사, 작성형식이 균형을 갖추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도 미학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음

< 000 문화재 위원(2018.8.14.) >

1) 현상

- 보존 상태 매우 양호

2) 내용 및 특징

- 이육사(1904-1944) 경북 안동 출생, 1944년 1월 16일 중국 북경에서 옥사. : 본관은 진성(眞城). 경상북도 안동 출신. 본명은 이원록(李源綠) 또는 이원삼(李源三). 원삼은 주로 가정에서만 부름. 개명은 이활(李活), 자는 태경(台卿). 아

호 육사(陸史)는 대구형무소 수감번호 ‘이육사(二六四)’에서 가져온 것이다. 작품 발표 때 ‘육사’와 ‘二六四(이육사)’ 및 활(活)을 사용하였다. 아버지는 이황(李滉)의 13대 손인 이가호(李家鎬)이며, 어머니는 허길(許吉)로, 5형제 중 둘째 아들이다. 대표작으로 「광야」, 「청포도」, 「절정」 등이 있다.

○ 「바다의 마음」의 내용

물새 발톱은 바다를 핥귀고
바다는 바람에 입김을 분다.
여기 바다의 은총(恩寵)이 잠자고 있다.

흰 돛(白帆)은 바다를 칼질하고
바다는 하늘을 간질여 분다.
여기 바다의 아량(雅量)이 간직여 있다.

낮은 그물은 바다를 얽고
바다는 대륙(大陸)을 푸른 보로 찌른다.
여기 바다의 음모(陰謀)가 서리어 있다

○ 「바다의 마음」은 육사의 시 가운데 하나.

: 형식적 특징 - 3행 3연으로 된 서정시

: 내용적 특징 :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이육사 대표시 가운데 하나. 특히 이미지즘의 수법에 의한 시의 형상화가 돋보임. 바다를 일본 제국주의로 상징하고, 그들의 음흉한 의도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항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육필원고 : 이미 「편복」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기에 이 작품 또한 등록문화재가 되는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북으로 월북한 육사의 동생, 이원조 비평가가 육사의 육필 원고를 소장하고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육사의 육필 원고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희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3)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 소장자는 낡은 원고 뒷면에 두꺼운 종이를 덧붙여 보존하고 있음 따라서 따로 보존에 대한 의견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4) 종합의견

- 문화재로서 등록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000 경북대학교 교수(2018.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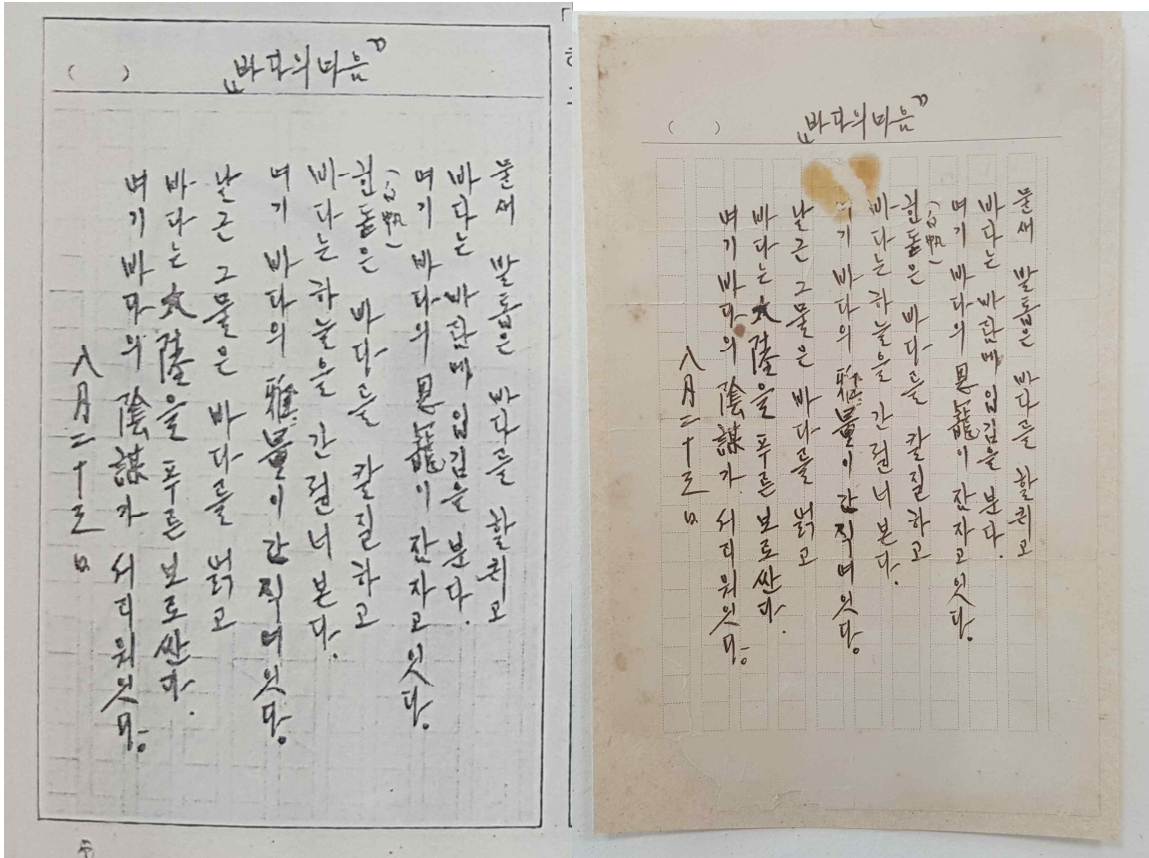
1) 현상

- 이육사 시인의 문학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육필 원고가 극히 희귀한 편인데,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바다의 마음」 육필 원고는 최초로 공개된 원고 사진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훼손이 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육필 원고로서의 가치를 지님.

2) 내용 및 특징

- 이육사 시인의 문학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육필 원고가 극히 희귀한 편인데, 그 중 하나인 「바다의 마음」 육필 원고가 확인되어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다만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보존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수준임.
- 1974년 『나라사랑』 16호(1974. 가을)에 발표된 원고 사진(사진 (가))과 최근에 촬영한 사진(사진 (나))을 비교해 볼 때 이미 많은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먼저 육필 원고의 글자 부분(2연 1행의 ‘여’, ‘雅’)이 떨어져 나가, 원고 내용의 훼손이 발생하였음.
- 다음으로 원고지 좌하단 부분이 떨어져 나가 원고지의 전체 형태에 훼손이 생겼음.
- 소장자가 원고 보존을 위해 배접 처리하였는데, 이 역시 원고의 뒷면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는 점에서 훼손된 경우라 판단됨.



(가) 잡지 <나라사랑>(1974.가을호)에 실린 원고 사진

(나) 자료조사 때 촬영한 육필 원고 사진(2018.8.14.)

3) 문헌자료

- 『나라사랑』 16호(1974. 가을) 이육사 특집호
- 심원섭 편주, 『원본 이육사 전집』, 집문당, 1986.
- 박현수, 『원본주해 이육사 시전집』, 예옥, 2008.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이육사 시인의 육필 원고 「바다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문화재 등록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됨.
- 첫째, 이육사 시인의 육필 원고의 희소성. 이육사 시인의 문학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육필 원고가 극히 희귀한 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육필 원고는 최근에 문화재로 등록된 「편복」과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바다의 마음」 2편밖에 없음. 독립운동가로서 일거수일투족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저항과 도피 생활로 일생을 보낸 상황에 그의 유품 및 유작이 일실되어 이육사 시인의 유물 자체가 극히 희소함.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바다의 마음」 육필 원고는 최초로 공개된 원고 사진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훼손이 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육필 원고로서의 가치를 지님.
- 둘째, 육필로 인한 오류 교정 가능. 육사의 시 중에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어휘들이 많은데, 많은 부분 이육사 시인의 글씨체가 독특하여 원고의 오식이 생긴 경우로 추정함. 가령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의 ‘렘리한’, 「꽃」의 ‘날이며’ 등도 어휘에 대한 의미 추정이 복잡함. 전자의 경우, ‘령리(惻惻)한’의 오식(강창민)으로 보거나 ‘더럽혀진 세상을 버리고 떠난다’는 ‘염리에토(厭離穢土)’의 준말로 보는 견해(심원섭)가 있음. 후자의 경우는 ‘날이며’가 오식의 경우로 보는 의견이 다수임. 이것은 「바다의 마음」 육필 원고에서 확인되듯, 육사의 필체 중 ‘口’과 ‘ㅇ’이 혼동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임. 이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원본 자료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중요성을 지님.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11. 「지청천 일기」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지청천 일기」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육군박물관에서 문화재로 등록 추천한 「지청천 일기」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판종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지청천 일기	5책	18.3×12.3cm	양지	필사본	양장본	1951- 56년	이OO (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 추진경과

- 문화재청에서 육군박물관에 등록문화재 추진 대상 추천을 요청('18. 8. 22.) 하여 육군박물관에서 「지청천 일기」 추천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8. 28.)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8.28.)

- 일제강점기 때의 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해방 이후 정치권력의 무능과 부패상, 그가 교유한 인물들의 일제 강점기 때의 활동상, 개인적인 정치 경제적인 성향 등을 살피는데 일차적인 사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하겠음. 더욱이 지청천은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는 등 국가에서도 이미 건국에 대한 그의 공적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이 민족지도자의 친필일기라는 점에서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000 국가보훈처 학예연구원(2018.8.28.)

- 지청천의 위상과 일기의 내용을 개관해 볼 때, 『지청천 일기』는 일기라는 개인의 기록을 넘어 한국현대 정치, 외교사는 물론 한국 독립운동을 새롭게 연구하는데 중요한 1급 사료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청천 일기』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000 국사편찬위원회 학예연구원(2018.8.28.)

- 제2대 국회의원과 자유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던 지청천이 1951~56년 쓴 일기로 독립운동사와 1950년대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사료로 판단됨

○ 000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2018.8.28.)

- 독립운동사와 1950년대 정치사에 담겨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음
- 이 일기는 주관적이지만 원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지청천 일기」 조사보고서

1. 명 칭 : 지청천 일기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3. 소유자 : 이OO(개인)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 위원(2018.8.28.)>

1) 현상

- 보수 필요

2) 내용 및 특징

- 지청천(池青天, 1888~1957)은 광복군 총사령부 사령관, 대동청년단(大同青年團) 단장, 국회의원,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임. 그의 호는 백산(白山), 본명은 대형(大亨)이며, 이청천(李青天)으로도 알려져 있음.
- 배재학당과 구한말 무관학교를 거쳐 정부유학생으로 다시 동경육군중앙유년학교(東京陸軍中央幼年學校)에 입교하였음.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보병과로 편입되었고, 제 26기생으로 졸업하였음. 일본군 중위시절인 1919년에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에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고, 1920년에는 자신이 이끌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주축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통합하여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였는데, 이때는 이청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음.
- 1923년에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자 고려혁명군 대표로 참가하였고, 1930년 7월에는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여 군사위원장이 되었으며, 별도로 한국독립군을 만들어 총사령관이 되었음. 이후에도 중국에서 줄곧 항일지하운동의 책임자로 활동하였음. 1940년 9월 17일에 임시정부가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하자 사령관이 되어 1945년 환국할 때까지 항일투쟁을 계속하였고, 환국 후에는 26개 청년단체를 통합한 대동청년단(大同青年團)의 단장이 되었음.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성동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정부수립 이후에는 초대 무임소 장관을 지냈음. 1962년에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음.



<사진1> 『지청천 일기』 (5책)

- 『지청천일기』는 선생의 사망 이후 광복군의 여군으로도 활동했던 딸 지복영 (池復榮, 1919~2007, 1990 건국훈장 애국장)여사가 관리하였으나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음. 이후 그녀의 아들인 이준식(현 독립기념관장)에 의해 2011년에 『자유일기』라는 이름으로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열리는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 조선에 살다’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음. 현재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의 ‘독립군·광복군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독립전쟁의 영웅을 기리며’라는 특별전시회에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음.
- 『지청천일기』는 1951년 5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쓴 국한문 혼용의 친필일기로 청색 또는 흑색의 펜으로 쓰여져 있음. 근 6년간의 일기로 매년 1책이나 1954-1955년은 1책에 쓰여져 있어서 모두 5책임.
- 1951년 일기의 표지는 결락되어 있음. 일기는 1월 3일부터 남아 있는데, 아마 앞의 이틀 분은 표지와 함께 결락된 것으로 보임. 1월 3일은 “금일 오후 2시에 서울 포기(拋棄)하였다.”로부터 시작되며, 12월 31일은 배급 쌀의 수령에 대한 내용으로, “하급관리는 무상 배급을 받음으로써 생활의 일조가 될 듯, 과연 탐관오리가 모조리 없어질 것인가? 의식이 죽어야 예절을 안다는 것은 천년의 훌륭한 말이지.

- 정치의 긴요한 뜻은 먹는 것과 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다.”(이하 인용부분은 모두 조사자가 번역 순화하였음)”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음. 뒤에는 자유당의 원외인사명단, 민주국민당 등 여러 기구와 대표자 명단 그리고 인촌(김성수), 해공(신익희), 서범석, 민국당, 백봉(김기추)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부록되어 있음.
- 1952년 일기는 1951년 12월 25일에 인문각(人文閣)에서 발행된 2단 세로 12행의 『자유일기(自由日記)』(1952년판)에 쓰여져 있는데, 원표지가 결락되어 새로운 표지로 감싸 놓았음. 일기는 1월 1일의 “왜란을 겪은 지 360년만의 임진년에 충무공을 더욱 우러러보게 된다.”는 술회부터 “군인유족회에 유몽수 등을 보내어 유족회 재산 서류를 조사”토록 시킨 일 등 유족회와 관련된 12월 31일까지 쓰여져 있음.
 - 1953년 일기는 태극사에서 발행된 『자유일기』(1953년판)에 쓰여져 있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록되어 있음. 일기가 끝난 뒤에는 신당동의 토지대장, 임대료 등과 자신의 이름인 지청천의 성명풀이를 한 기록 그리고 “이정계전몰시참고건(李正桂戰歿時參考件)”이라는 제명아래 보성지구에서 대퇴관통을 당한 이정계가 광주도립병원에서 전사였다는 기록과 일시가 부록되어 있음.
 - 1954-1955년 일기는 태극사에서 1953년 12월 20일에 발행된 『자유일기』(단기 4287년)에 2년분이 함께 쓰여져 있음. 권두에는 “고단위신약 일본제 ENARMON”에 대한 1945년 7월 6일의 조선일보 광고와 서울문화서관 발행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서지사항을 간략히 적어 놓았음. 또 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인 “신흥교가(新興校歌)”의 가사가 3절까지 수록되어 있음. 갑오년인 1954년 1월 1일에 “60년 전 갑오년에 7살이던 자신이 집을 떠나던” 회상으로 시작하여 12월 16일까지, 1955년은 1월 1일에 “정·부통령께 세배”한 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해는 병으로 양(羊)과 같이 순하고 조용하게 보내려고 노력하였다.”는 12월 31일까지 쓰여져 있음.
 - 1956년 일기는 학원사에서 1955년 12월 10일에 발행한 『자유일기』(단기 4289년판)에 기록되어 있음. 처음 “병마에 포로가 되었던 지긋지긋한 을미년은 다가고 희망에 벽찬 병신의 신년이 왔다.”는 희망에 찬 「신년소감」부터 시작됨. 특히 3월 19일에는 국내의 정치적 문제를 벗어나 손자인 상룡(相龍)의 첫돌을 맞이하여 할아버지로서의 기쁨을 술회하였고, 그 날 수수경단과 흰 돌떡을 잘 먹었다면서 자신은 수수경단을 유난히 좋아한다고 적어 놓았음. 마지막 12월 31일에는 이함주와 원장길이 각각 쌀과 잉어를 보내준 사실을 기록해 놓았음.
 - 그리고 『지정천일기』는 2011년에 일본 전시를 앞두고 『자유일기』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고, 국내언론에서도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 바 있음. 곧 서울신문은 2011년 2월 28일자를 통해, 1951년 5월 1일(이승만 정권의 무능 부패), 1952년 5월 2일(노동자의 날), 1952년 8월 15일(사치스런 대통령 취임식 비판), 1954년 3월 1일(3.1절 회상), 1951년 8월 29일(국치일과 상해임시정부의 공적), 1953년 8월 15일(일제 패망 투항 회상), 1954년 2월 25일(사회주의 경제체제), 1954년 5월 1일(총선거 불출마), 1955년 1월 7일(전 국민의 생활 균형), 1955년 8월 29일(건강의 다소 차도), 1955년 12월 25일(성탄절의 무질서에 대한 탄식), 1956년 6월 29일(자유당 간부 개편에 대한 비판), 1956년 12월 11일(독립군 푸대접에 대한 애석함) 등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공개한 것임.
 - 한편 『지정천일기』는 국한문 혼용에다 판독하기 쉽지 않은 글자들도 제법 있음. 그래서인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보이는 것 같음. 곧

한 언론에서 1951년 5월 1일의 일기를 소개하면서 “범망은 해이, 백유천창(百乳千創)”이라고 옮기고 있는데, “백유천창”은 “온갖 폐단과 결함으로 엉망진창이 된 모양”을 뜻하는 “백공천창(百孔千瘡)”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해 보임. 그러므로 이 일기는 향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현대식 한글로 소개하고, 또 발행할 필요가 있음.

3) 내용 및 특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일합방 국치일 잊은 듯… 한민족은 건망증인지?”(『서울신문』, 2011년 2월 28일 11면)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일기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고, 해방이후에는 제헌의원 등을 역임하였던 지청천의 일기임. 일기는 1951년 5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근 6년간의 친필일기임. 일제강점기 때의 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해방 이후 정치권력의 무능과 부패상, 그가 교유한 인물들의 일제 강점기 때의 활동상, 개인적인 정치 경제적인 성향 등을 살피는데 일차적인 사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하겠음. 더욱이 지청천은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는 등 국가에서도 이미 건국에 대한 그의 공적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이 민족지도자의 친필일기라는 점에서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혹 이미 『자유일기』로 소개되었으나 『자유일기』는 그때그때 당장 해야 할 일을 적어 두는 『당용일기(當用日記)』와 달리 일정한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일기라는 의미임. 그러므로 명칭은 이전에 소개된 『자유일기』는 적합하지 않고, 유사한 유물에 대한 명칭부여 전례에 따라 『지청천일기』 또는 『백산 지청천일기』가 적합하다고 하겠음.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음

<000 국가보훈처 학예연구관(2018.8.28.)>

1) 현상

- 최소한 60년 이전에 작성된 일기(진본)로서, 각 권별 용지 재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표지와 본문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판독에는 거의 문제가 없음.

2) 내용 및 특징

- 『지청천 일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광복군의 총사령을 지낸 백산 지청천 장군(1888~1957)이 1951년 5월부터 타계하기 한 달 전인 1956년 12월까지 남긴 6권의 육필 기록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음.
- 유족(외손)에 따르면 지청천은 본래 독립운동을 위해 1919년 만주로 건너갈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한국전쟁 당시 피난 과정에서 분실되어 1951년부터 서거하

기 전까지 다시 쓴 일기 6권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라고 함. 대체로 1년에 한권의 일기장을 쓴 것으로 보임. 일기 표지에 ‘자유일기’라고 인쇄된 것이 이채로운데, 이것은 당시 일기장을 만든 제작업체의 고유상표로 판단되며 일기의 성격과는 관계가 없음.

- 『지청천 일기』는 1957년 1월 지청천이 사망한 이후 차녀인 지복영 여사가 보관·관리해 왔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생전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여사 사망(2007) 후 세상에 알려짐.
- 2011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유족으로부터 일기를 입수하여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열린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 조선에 살다”에 처음 전시·공개되었으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금년 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독립군·광복군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에 다시 전시되어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킴.
- 지청천은 1908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통감부의 압력으로 학교가 폐교되자 일본 도쿄로 건너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함. 중위 진급 뒤 1919년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교장을 지냈고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 총사령을 역임한 일제하 항일무장투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임.
- 해방 후 1947년 4월 22일 미국 방문 귀국길에 중국 상해에 들른 이승만과 함께 서울로 귀국, 청년단체 조직을 통해 신생 조국(대한민국)의 국군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에 전력을 기울임.
- 『지청천 일기』는 다음과 같이 제헌 국회의원에 이어 제2대 국회의원과 자유당 원내대표 등을 지내던 시기에 쓴 것으로 1950년대 한국정치사를 내밀(內密)하게 살피는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할 수 있음.

* 표 : 지청천 연보(1951-1957)

연 월	내 용
1951.10.	민주국민당 제2회 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임, 제1회 중앙상임 집행위원회에서 중앙최고위원회 의장으로 선임
1951.12.	민주국민당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임
1952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추진하자 이에 이승만 정부 강경대응
1952.6.28	6·25 기념식전에서 민주국민당 당원이 관계된 대통령 저격사건 발행, 초당파적 입장에서 포퓰(褒貶)을 무릅쓰고 민주국민당 탈당 성명
1952.9.	대동청년당 출신과 한국독립당 출신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자유당 입당
1952.말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회 전원위원장 등으로 활동
1957.1.15	서거

- 일기를 남긴 기간은 지청천이 한국광복군 총사령이라는 ‘군인’이 아닌 신생 대한민국의 ‘정치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로서, 정치활동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

① 군인(한국광복군 총사령)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청천은 신생 대한민국의 토대, 특히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했음. 하지만 일기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 정치인으로서 그는 2선 국회의원으로 외교

국방위원장과 당 대표최고위원 등 중량감 있는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좌절을 느낀 것 같음.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에 대해 서거할 때까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임.

“국정감사의 보고를 보면, 각 부처의 과오가 산적, 오리탐관은 만천하에 충만, 비민주적이 비일비재 범망은 해이 ‘백유천장’이다. 제2 장개석 정부의 답습으로서 그 이상 부패하였으니 신생 국민으로서 기초가 건강하지 못한 데다 지극히 전쟁 참화를 입고 있는 차제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수술을 가하여야 할지?” …대통령의 용인법이 애국자·혁명가·거물급을 기피, 절대 불등용하는데 기인됨은 세인이 계지하는 바이다… 피치자인 국민은 선량 충용한데 관리가 기개 무능 탐오… 더구나 군경의 발호와 특수단체의 권력 남용 및 민폐이다…”(1951년 5월 1일자)

“오후 2시에 경회루에서 (이승만 제2대 대통령 취임식) 연회가 있었지만 불참하다. 만민이 기아지경인데 30억환 비용을 들여서 서울에서 거행함은 찬성할 수 없으며, 호화롭다”(1952년 8월 15일자)

“이 생활(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에 염증나고 모략을 모르고 협잡을 체득하지 못한 무인으로서 좀처럼 지탱하기 힘든 생활”(1954년 5월 1일자)

“자유당 간부 개편은 주류파의 독무대로 이기봉군의 측근자로서 조직되었다. 이기봉군은 점차로 신실이 부동한 야심이 노출하기 시작인데 이것은 주의 측근자 대부분은 친일 이기주의의 시류 처세술자의 제사들의 포위에 든 까닭이다. 이군은 우리의 혁명 신상 아무 공헌도 없는 사람으로서 경무대세도 국회의장으로서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1956년 6월 29일자.)

- ② 제헌국회 및 2대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방력 강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열적인 활동의 밑바탕에는 일제하 온몸을 바쳐 투쟁한 독립운동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음. 3월 1일과 8월 15일, 8월 29일 등 독립투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날만 되면, 그의 일기는 어김없이 독립운동 시절의 고난과 투쟁을 상기하면서 한걸음 전진을 위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다짐으로 채워졌음.

“국치기념일… 우리가 해외에서는 년년히 이 날을 기념할 새 조석반을 굶고 적개심을 고취하였건만은 국내에 와서보니 차일에 대한 일반의 무심함을 보고 통함됨을 불금하노라. 대한민국의 반부강산이 독립되었다고 해서 그러한지 일본과 장래 친교하기 위하여 구태여 감정을 사지 않으려고 함인지? 통정사통(痛定思痛)이라 정부의 방침으로도 이 날에 일본제국 침략주의와 군국주의의 착오와 잔인을 일반 인민에게나 일본인에게 알려야 한다.”(1951년 8월 29일자)

“금일은 한일합방의 국치일인데 조야 각계가 이날을 잊은 듯 관청은 물론 각 학교도 하등 기념행사가 없으니 한민족은 건망증인지?... 오늘의 반부 강산의 독립이 우

연히 오행해서 얻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선열을 더욱 추모하고 일제의 범람하에 생활을 부인하는 상징으로서 상해임시정부의 민족정기 양양의 큰 공적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1952년 8월 29일자)

“오늘은 악랄한 일제가 패망 투항한 날,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8년째의 날, 대한민국이 건립된지 만 5년 짜의 날이다. 아, 감개가 무량하다. 독립운동에 같이 종사하던 영수급이 거개 별세하였다. 여를 지극히 경애 친신하던 서일·김좌진·홍범도·김동삼·김오석·이동녕·이시영·양기탁·손희당·김백범·김추당·최중산·이춘정·이우정·최관용·문창범 등 노소 선후배가 불가승수라. 여 일인만 고독히 남아서 더 고생하여 우수사려(憂愁思慮)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도다...”(1953년 8월 15일자)

“금일은 삼일절이다... 한국의 잔다르크 유관순양이 있고 이천만의 사상(死傷), 투옥,, 아- 자유와 독립을 향한 이 성전은 4000년 이래의 민족혼의 발동이었다... 나는 종일 선열 특히 나와 같이 무장투쟁하다가 희생한 동지들을 상기고 묵념 추도한다. 과연 가슴이 억새(抑賽)하고 간장이 아팠다”(1954년 3월 1일자)

“요사이의 숨찬 증도 꽤히 나왔고 구미도 돌아서 식사도 상당하니 다행이다... 금년 68세 죽어도 아깝지 않은 연령인데 또 살아나니 아마도 남은 독립운동을 완성하리라라는 뜻인 듯”(1955년 8월 29일자)

- 『지청천 일기』는 일제하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의식을 간직한 채 신생 조국의 건설과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한 군인출신 정치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생생한 기록임.
- 작고하기 직전까지 거의 규칙적으로 일기를 썼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소회도 피력하고 있어, 당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문헌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15(한국광복군), 2006
- 유영익·송병기·이명래·OOO 편, 『이승만 동문 서한집』 상·중, 연세대출판부, 2009
- 김두찬, 「논픽션 오광선장군」, 『신동아』 2월호, 1971
- 노경채, 「일본육사 출신의 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내일을 여는 역사』 1, 2000
- 박영석, 「백산 이청천 장군」, 『재만한인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1987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 이기동, 「이청천- 일본육사 출신의 항일무장투쟁 지도자」, 『한국사 시민강좌』 47, 일조각, 2010
- 이형석, 「지청천」, 『한국근대인물백인선』, 동아일보사, 1979
- 조경한, 「지청천장군과 광복군」, 『세대』 11월호, 1970
-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장군』, 문학과 지성사, 1995
- 지청천, 「광복군과 나의 투쟁」, 『희망』 2월호, 1953
- 지현모,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 삼성출판사, 1949
- OOO,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 김광재, 「이청천의 관내지역 독립운동」(이청천서거 50주기 학술회의 발표

문),2006

- 김수자, 「해방이후 이청천의 정치활동」 (이청천서거 50주기 학술회의 발표문),2006
- 장세운, 「이청천의 만주지역 독립운동」 (이청천서거 50주기 학술회의 발표문),2006
- OOO, 「이청천과 한국광복군」 (이청천서거 50주기 학술회의 발표문),2006
- 이현주,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 「광복군 지청천 장군 일기 공개」, 『경향신문』 2011년 2월 17일자 외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지청천 일기』 는 일본 육사출신으로 일신의 안위를 마다하고 조국의 독립투쟁에 뛰어들어 활약하다 귀국 후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 등에 기여한 한 인물의 내밀한 일기임.
- 그러나 지청천의 위상과 일기의 내용을 개관해 볼 때, 『지청천 일기』 는 일기라는 개인의 기록을 넘어 한국현대 정치, 외교사는 물론 한국 독립운동을 새롭게 연구하는데 중요한 1급 사료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청천 일기』 를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작성된 지 60년 이상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므로 현재 내용을 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 다만 작성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데다 종이의 재질 또한 썩 좋지 않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가 부스러지는 상황이므로 향후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문화재 등록과 동시에 복원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독립운동사 및 한국현대 정치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수 있음을 감안, 그 가치를 다각도로 검토·평가하고 전문가 「해제」 를 붙여 사료집으로 간행, 관련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OOO 국사편찬위원회 학예연구소(2018.8.28.)>

1) 현상

- 많이 낡아서 조속한 보존 처리가 시급함
- 1951년 5월부터 1956년 12월까지의 육필 일기이며,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음
- 일기장에 신문이나 메모지도 삽입되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제2대 국회의원과 자유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던 지청천이 1951~56년 쓴 일기로 독립운동사와 1950년대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사료로 판단됨
(지청천은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1919년 만주로 망명, 이듬해 김좌진·홍범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을 이끌고 1940년 이후엔 한국광복군에서 총사령관으로 활약하다 귀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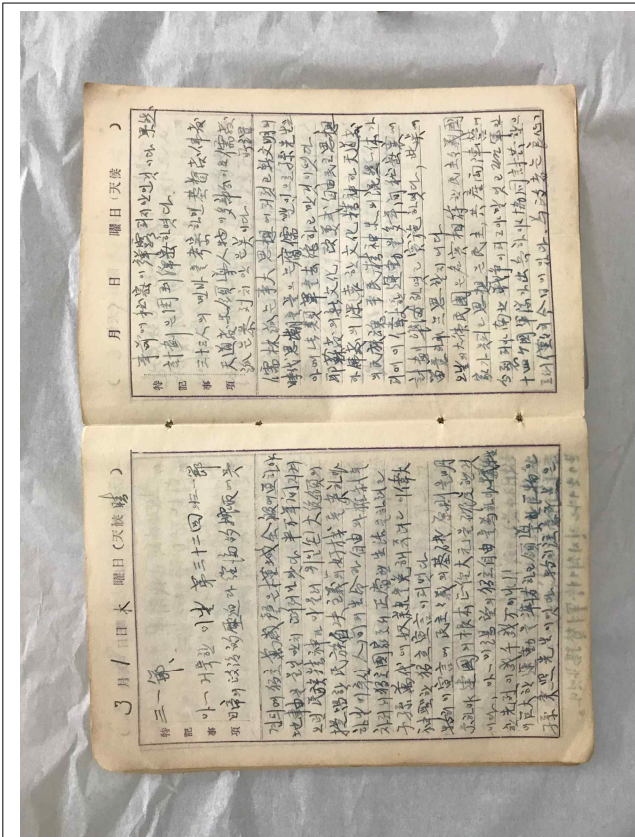
- 지청천 사망 이후 막내딸인 지영복 여사가 관리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많아 생전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지복영 여사 타계 후 아들인 이준식(독립기념관 관장)이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육군박물관에서 대여하여 전시 중에 있음
- 2011년 지청천 일기의 존재가 언론에 공개된 바 있음
- 일기에는 당시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백산의 모습이 잘 투영돼 있음, 예를 들어 경희루에서 열린 제2대 대통령 취임식 연회에 불참한 이유를 ‘만민이 기아지경인데 30억원(圓) 비용을 들여서 (연회를) 거행함은 찬성할 수 없으며, 호화롭다(1952년 5월 2일 일기).’고 지적했음
- 이승만 대통령의 용인술도 가차 없이 비판함, 즉 “국정감사 보고를 보면 범망이 해이돼 제2의 장개석 정부를 답습하는 것 같다. 이는 애국자, 혁명가를 기피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용인법 때문(1951년 5월 1일 일기)”라고 질타함
- 제헌의원과 2대 의원을 지낸 백산은 3대 의원 선거에 불참한 이유로 ‘모략과 협잡의 정치에 염증이 났고’ ‘솔직히 고백해 선거비용 조달이 막연하기 때문(1954년 5월 1일 일기)’이라고 고백함
- 김좌진, 홍범도, 이동녕, 이시영, 김백범 등 함께 독립운동을 한 동지들을 그리워하던 백산은 1956년 12월 11일 조선혁명총사령으로 있을 때 자신의 직계 부하였던 정이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국자를 애지중지할 줄 모르는 세태를 한탄하기도 함
- 국치일에 대한 소감을 솔직하게 피력하였음
- “국치기념일...우리가 해외에서는 년년히 이날을 기념할 새 조석반을 굶고 적개심을 고취하였건마는 국내에 와서 보니 차일에 대한 일반의 무심함을 보고 통함됨을 불금하노라. 대한민국의 반부강산이 독립되었다고 해서 그러한지 일본과 장래 친교하기 위하여 구태여 감정을 사지 않으려고 함인지? 통정사통(痛定思痛)이라 정부의 방침으로도 이날에 일본제국 침략주의와 군국주의의 착오와 잔인을 일반 인민에게나 일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1951년 8월 29일)
- 다음 해인 1952년 국치일에도 시대상을 개탄했음 “금일은 한일합방의 국치 기념일이다. 조야 각계가 이날을 잊은 듯 관청은 물론 각 학교도 하등 기념행사가 없으니 한민족은 건망증인지?...오늘의 반부(半部) 강산의 독립이 우연히 요행에서 얻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선열을 더욱 추모하고 일제의 법률 하에 생활을 부인하는 상징으로서 상해임시정부의 민족정기 양양의 큰 공적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1952년 8월 29일)고 기록했음

3) 문헌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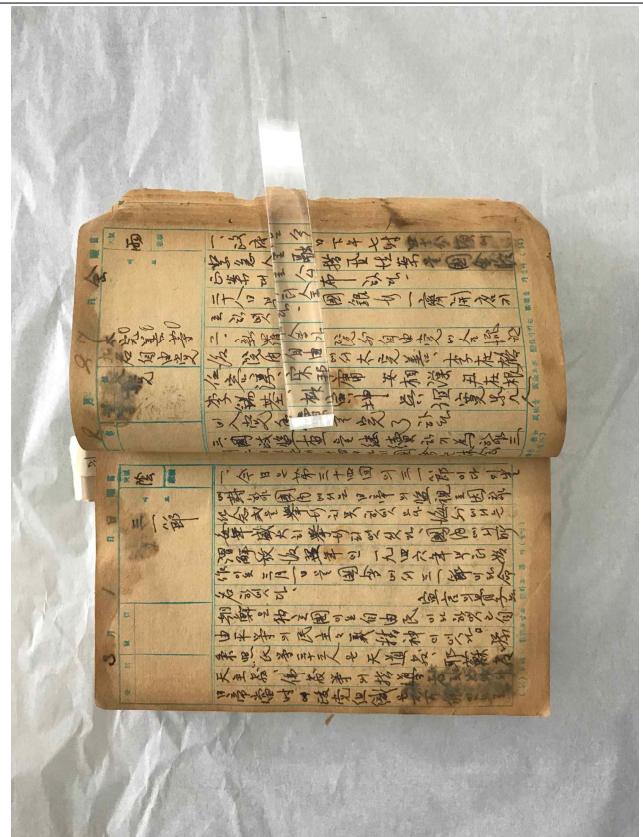
- 이현주, 『지청천 : 한국광복군 총사령』,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일기 5권 전체 모습



1951년 일기



1953년 일기

4)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OOO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2018.8.28.)>

1) 현상

-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독립운동을 위해 1919년 만주로 건너가면서 쓴 일기가 한국전쟁 피난 가는 과정에서 분실된 이후 1951년부터 1956년 사이에 직접 쓴 일기
- 독립운동사와 1950년대 정치사에 담겨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음
- 지청천 선생의 사망 이후 막내딸인 지복영 여사가 관리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많아 생전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현재 육군박물관에 전시 중에 있음

3) 문헌자료

- 송상도(宋相燾), 『기려수필(騎驢隨筆)』 (1921년-1929년).
- 이현주,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서울: 역사공간, 2010).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 진신사, 1920).

4) 기타

- 유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문화재로 지정한 후 복원 작업과 더불어 사진 촬영을 하여 복제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소장자에게 다른 권은 없는지 문의하여 완본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함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광복 후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무임소 장관을 역임하고 제2대 국회의원, 민주국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므로 그의 행적에 대한 정치사적 조망이 필요함
- 따라서 이 일기는 주관적이지만 원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음
- 추후 이러한 일기류를 더 많이 발굴해 보존해야 함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12. 「북해도 고락가(北海道 苦樂歌)」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북해도 고락가(北海道 苦樂歌)」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부산 소재)이 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북해도 고락가(北海道 苦樂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자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판종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북해도 고락가(北海道 苦樂歌)	1책	18.1×12.7cm	양지	필사본 (청색 펜)	선장 가철	1945년 전후	행정안전 부 장관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국립일제강 제동원역사관	

(2) 추진경과

- 문화재 등록 신청('17. 9. 13.)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7. 10.)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7.10.)

- 현재 공개된 이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나 기록이 없는데다 『북해도고락가』의 작자를 강삼술로 확정하기가 어려움. 그러므로 이 가사집은 등록문화재로서 인정될만한 작품이지만 향후 저자, 이본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000 문화재 위원(2018.7.10.)

- 「북해도 고락가」는 1943년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민족적 관점에서 표현했고, 4.4조의 형식으로 조선 후기의 잡기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문학적 비유가 탁월하다 점, 일제 암흑기에 이만한 정도의 정서로 일제 강점에 대한 민족적 비애와 개인의 울분을 담은 작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등록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파주본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 000 청암대학교 교수(2018.7.10.)

- ‘북해도고락가(北海道苦樂歌)’의 ‘신청본(강삼술 저)’은 정확한 필자가 존재하고 예천지역에서 출발하여 강제동원 전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 지역성과 강제성이 보이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임. 특히 기존에 당사자의 기록이 거의 없는 강제동원의 역사에서 본 자료는 일제 자료가 갖고 있는 역사성을 능가한다고 보임.

마. 의결사항

○ 보류

- 다른 이본과 같이 검토, 한자병기 적정성 검토

○ 출석 10명 / 보류 10명

<붙임>

「북해도 고락가(北海道 苦樂歌)」 조사보고서

1. 명 칭 : 북해도 고락가(北海道 苦樂歌)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3. 소유자 : 행정안전부 장관
4. 조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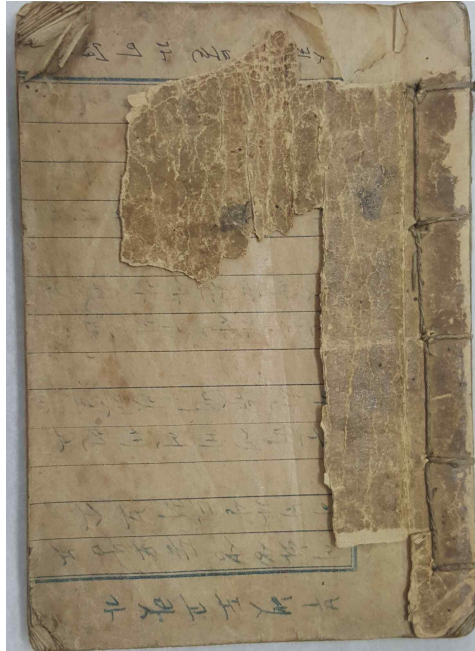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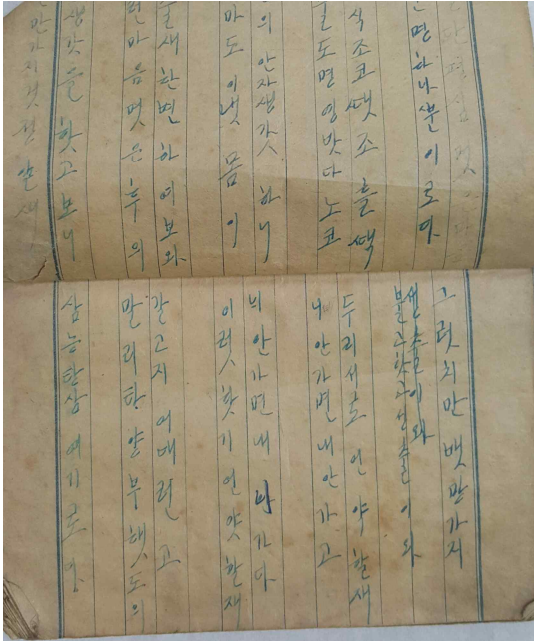
<OOO 문화재 위원(2018.7.10.)>

1) 현상

- 앞뒤 표지는 손상되었음

2) 내용 및 특징

- 조사대상의 『북해도고락가』는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던 강삼술(姜三術)이 1943년 11월(음력)에 일본 북해도 탄광에서 노동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한글 가사집임. 현전하는 가사집은 한 권의 공책에 푸른색 펜으로 동일한 필체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강삼술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던 시기에 한 번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됨. 그렇다면 귀국직전이나 귀국한 1945년 11월 이후에 기억이나 이전의 초고를 바탕으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강삼술은 강목석(姜睦錫)의 아들로 1920년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우래동에서 출생하였으며 2004년에 사망하였음. 아들인 강성갑의 피해신고에 따르면, 그는 “1943년 음력 11월 2일 예천군 보문면 우래리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 북해도 삼능탄광으로 끌려갔다.”고 함. 이때 예천지역 청년들이 함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미쓰비시(三菱) 오유바리(大夕張)광업소로 노역을 하게 되었음. 가사에는 8월 28일에 북해도 대석장에 가니 동포 6-700명이 있었고, 고향인 경북사람이 200여명 들어왔다고 함. 그렇다면 이 가사는 예천지역에서 출발한 징용자가 완성한 것임은 분명해 보임. 그러나 이 가사는 강삼술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 여럿이 지은 것인지는 알기가 어려움. 더욱이 이전에 이미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부르던 가사를 뒤에 간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맞게 변형한 것일 수도 있음. 그것은 이보다 먼저 1940년 8월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가사로 보이는 동명으로 된 비슷한 내용의 가사가 현전하고 있기 때문임. 그런 점에서 『북해도고락가』는 강삼술이 단독으로 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분명한 것은 강삼술은 자신이 노동할 때 조선인 노동자들이 불렀던 가사를 채록하고, 필사해 놓은 것은 분명함.



<사진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본(강삼술본)

- 그런데 이 가사집은 『북해도 고락가(北海道 苦樂歌)』라는 서명으로 아들인 강성갑에 의해 현대 한글로 발행(2004)되었음. 이 책의 서문에서 강성갑은 아버지 강삼술이 “돌아올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고국과 가족을 그리며 삶의 고락을 노래했던 가사형식의 글로 굵이굵이 당신 삶의 애환이 묻어나고 있다.”고 하였음. 또한 “이 글은 갑작스런 해방으로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당신의 애뜻한 삶을 기리고자 이 책을 발간”한다고 하였음. 이렇게 강성갑은 『북해도고락가』는 아버지 강삼술이 만든 작품이라는 전제를 두고 기술하고 있음.
- 조사 대상의 『북해도고락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제작된 13행으로 된 작은 공책에 푸른 색 펜으로 세로로 써 놓았음. 표지는 절반 이상이 찢겨 있으나 남은 표지의 뒷면에는 “德山三術”, “고랏가”, “北海”, “月 初二日” 등의 펜글씨가 남아 있음. 이외에는 이 기록물의 완성과 관련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서 정확한 필사시기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음. 가사가 끝난 뒤에는 “德山三術”(강삼술의 창씨명)과 같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임을 밝혀 놓았음. 그런데 제목을 “부해도 고랏가”, 그리고 가사내용을 적은 것을 볼 때 그는 한글 쓰기가 초보적인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가사는 매우 정성들여 필사해 놓았음. 조사대상의 『북해도고락가』는 강삼술의 아들인 강성갑의 기증본임. 내용은 북해도 탄광으로 가던 이동경로, 작업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와 열악한 작업환경과 가족에 대한 외로움 등을 잘 표현해 놓았음. 이러한 면면은 모든 조선인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상황이었을 것임. 그렇다면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노역을 하면서 다함께 부르던 가사였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북해도고락가』는 강삼술 친필본(강삼술본으로 약칭) 외에 경북대 김광순 교수소장본(김광순본으로 약칭, 『한국고소설전집』 74권)과 파주 개인소장본(파주본으로 약칭, 코베이 2014년 13회 경매) 등이 있음. 이 중에서 강삼술본을 제외한 두 종은 붓으로 쓴 사본임.
- 먼저 김광순은 자신 소장의 『북해도고락가』에 대해 “가사가 소설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인 작품으로 제목은 분명 가사인데, 문장 서술방법이나 사건 전개에 있어서 소설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흔적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고 하였음.



<사진2> 김광순 소장본

- 이 작품은 “세로 28센티, 가로 19센티의 한지에 총 29면에 필사되어 있음. 한 면은 10행, 한 행은 29자 전후이며, 한글 정자체로 쓰여져 있다.” 이 작품은 『북해도고락가라』는 권수의 제명으로 시작되며 마지막 가사가 끝난 뒤에 필사한 사람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락가는 종이라”라고 되어 있음. 내용을 보면, 이 가사를 짓거나 필사한 사람은 강삼술보다 먼저 1940년 8월에 동원된 노동자가 지은 것임을 알 수 있음. 이 『북해도고락가』에 대해 김광순은 끝부분에 “「丙戌年正月全相春」이라 기록하여 필사연대를 짐작할 수 있는 완결본이다.”이라고 하였음. 여기에서 병술년 정월은 1946년 1월임. 그렇다면 이 『북해도고락가』의 가사는 내용으로 보아 강삼술보다 먼저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지은 것이며, 필사시기도 정확하다는 점에서 선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음.
- 파주본은 『잡가사집』이라는 표제가 있고, “권두의 공지에 ”甲午年 月 日“이라고 적혀있음. 이 공지와 글이 본문의 종지와 먹색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시에 쓴 것으로 추정됨. 그렇다면 이 파주본은 갑오년인 1954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음. 수록된 내용은 『북해도고락가』 외에 『부부이별가』, 『화전가』 등이 9장에 걸쳐 합철되어 있음. 이 중에서 『북해도고락가』는 앞의 5장에 걸쳐 수록되어 있음.



<사진3> 파주 개인소장본

- 이 세 본을 대비하면, 강삼술본의 특징을 볼 수 있음. 그 중에서 “둘이 서로 언약할 때”(과주본), “둘이 서로 언약할 제”(김광순본)를 강삼술본에서는 “성출이와 언약할 새”로 되어 있음. 곧 두 본에서는 “둘이 서로” 라고 되어 있으나 강삼술본에서는 “성출이와”로 되어 있는 것임. “성출”은 강삼술의 친구 이름으로 추정됨. 아마 유행하던 가사를 옮기면서 해당부분에 친구의 이름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함. 마지막 부분에서도 강삼술본은 두 본의 “부모처자 상봉하기를 천만복망 바람이라”(김광순본), “경치좋은 탄건봉에 다시한번 상봉하세 ”(과주본)과는 달리 “금의환향 하여볼까 천만복망 하옵니다”로 끝을 맺고 있음. 이렇게 세 본은 한글 표기를 제외하면, 내용에 있어서 유사성이 많음.
- 끝으로 강삼술본은 “할말 다 못지요」 끝」 德山三術”을 덧붙여 놓았음. 이 가사 뒤에도 두 장에 걸쳐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세 편의 가사가 있음. 마지막 장에는 “冊主 姜三述”과 함께 “朝鮮 慶尙北道 安東郡 豊山面 西薇洞 大陸峴二”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 역시 본문을 쓴 청색 펜으로 적어 놓았음.
- 이렇게 조사대상의 『북해도고락가』는 현전하는 세 본 중의 하나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역사적 사료인데다 가사로 된 한글문학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이 가사가 강삼술의 작품인지 아니면 기존의 가사를 자신에게 맞게 약간 고친 것인지 혹 전사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아울러 향후 다른 이본과의 관련성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3) 기타(참고자료)

- 주영민, “북해도고락가를 통해본 강제동원”, 역사교육논집 제64집, 2017.8.
- 김광순 소장본(『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6차분(71~82권)』, 박이정, 2007)
- 과주 개인소장본
- 부산광역시 등록신청 조사보고서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사대상의 『북해도고락가』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징용실태와 현지 생활 모습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라는 점과 북해도에서 힘든 노역과 망향의 설움 등을 우리말로 잘 꾸며낸 문학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하겠음. 그러나 현재 공개된 이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나 기록이 없는데다 『북해도고락가』의 작자를 강삼술로 확정하기가 어려움. 그러므로 이 가사집은 등록문화재로서 인정될만한 작품이지만 향후 저자, 이본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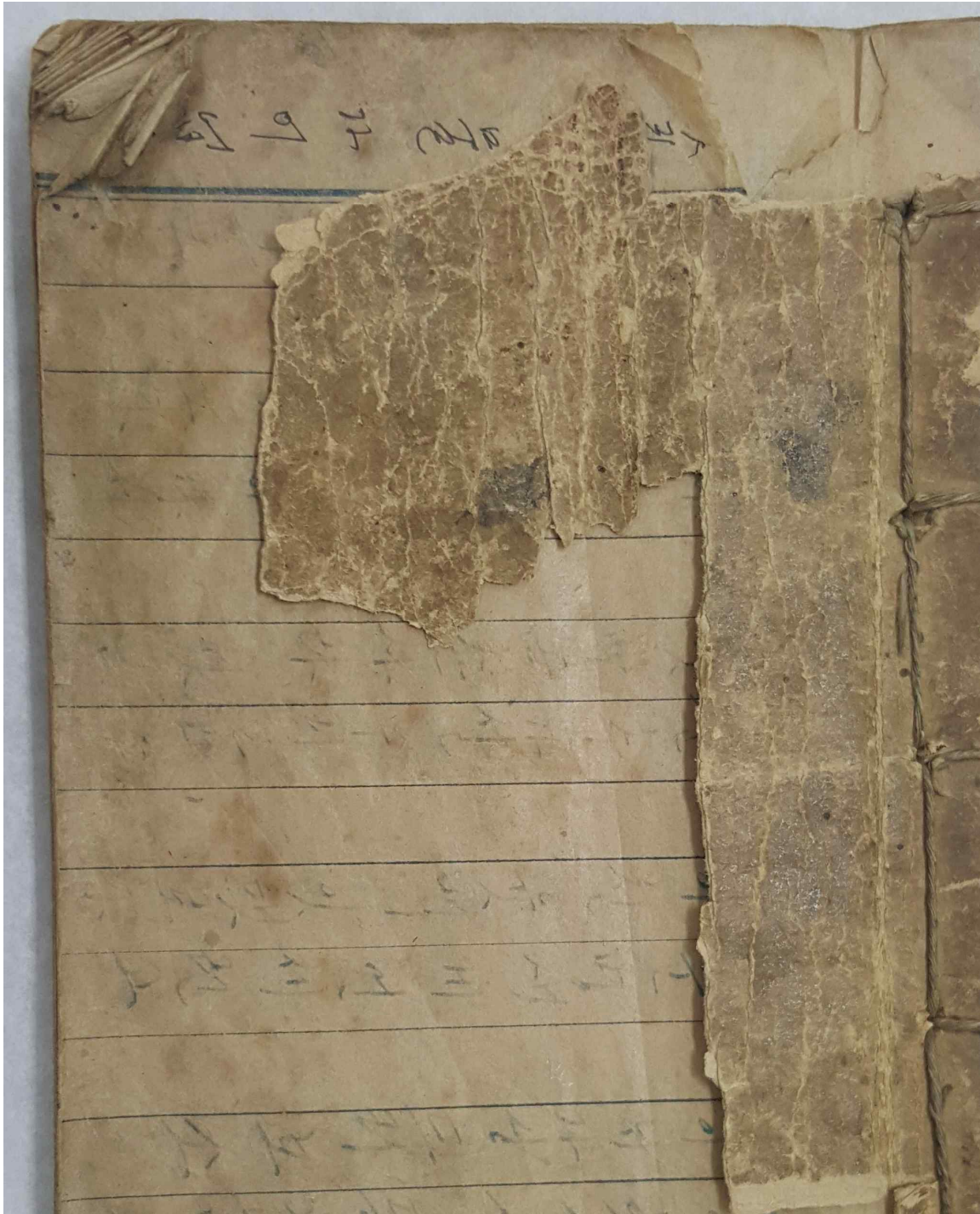
- 등록문화재의 가치가 있으나 이본(異本)과의 대비이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OOO 문화재 위원(2018.7.10.)>

1) 현상

- 지금까지 두 권의 북해도 고락가가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육안상 파주 하이리 소장본에 비하여 소장 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보임(표지 파손 등).
(별첨 사진 1참조.)

별첨 사진 1. 표지



2) 내용 및 특징

○ 『북해도 고락가』의 형식적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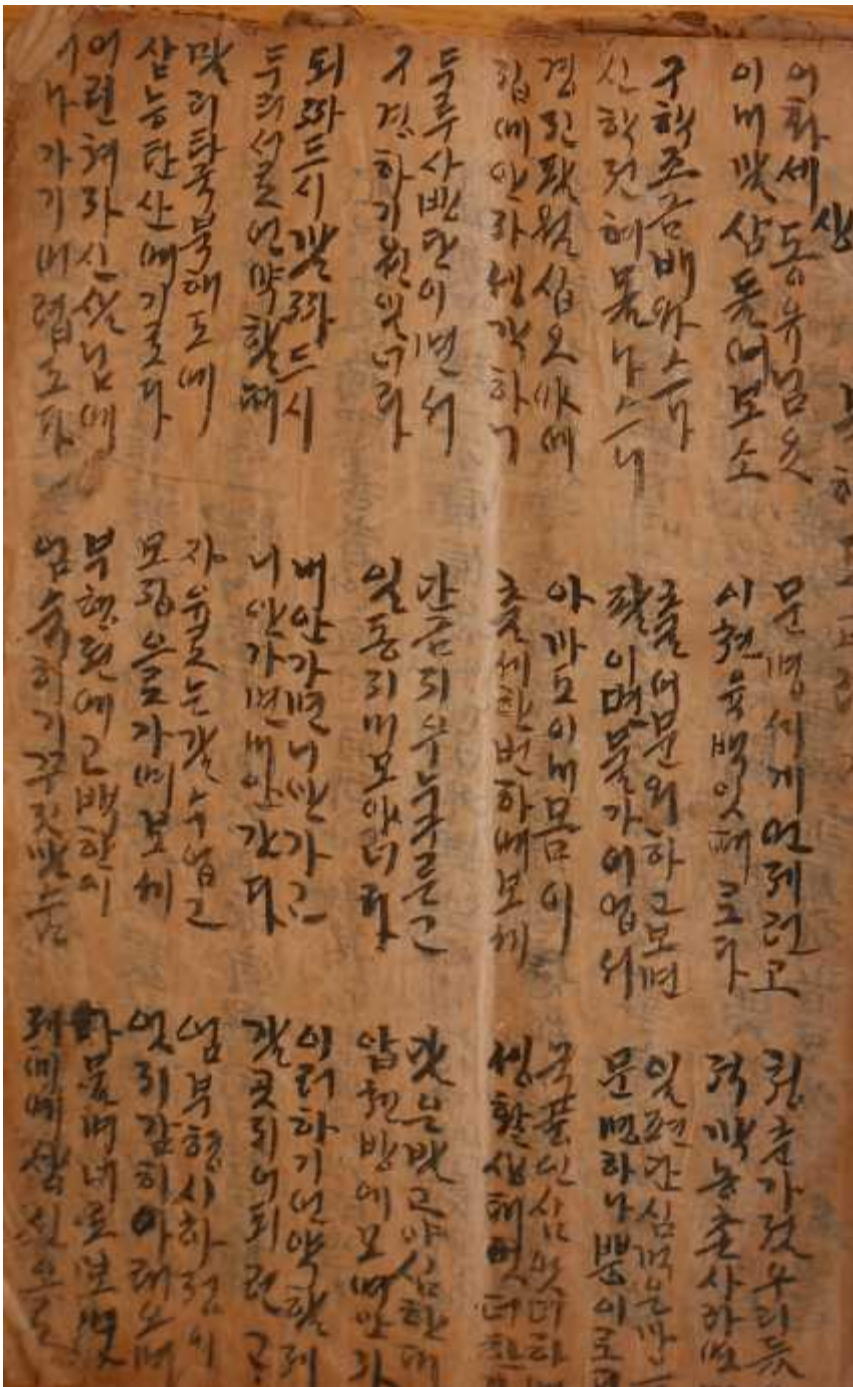
- 제목이 잡가로 되어 있는데, 잡가란 조선 후기부터 유행한 장르임.
- 전문적인 창작인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 부르고 향유했다는 점에서 잡가라고 불리워짐.
- 『북해도 고락가』는 우리 시가의 전형적인 노래체인 4.4조 형식으로 되어 있음.
- 전문적인 창작인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해도 고락가』는 제목에 쓰여진 대로 잡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됨.
- 잡가의 문학적 의의는 양반장르인 시조, 가사와 달리 근대 시형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북해도 고락가』는 쓰여진 시기가 1943년이라는 점에서 잡가가 원래 창작된 시기와 동떨어진 느낌이 있으나 강제 징용된 일반 대중이 창작하였다는 점에서 잡가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은 잘 드러내 있다고 보임.

○ 『북해도 고락가』의 내용

- 작품을 실제 쓴 주인공이 고향인 경북 예천에서 최종 목적지인 북해도까지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쓰고 있음. 이러한 과정은 기행잡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1940년대의 교통수단, 또 이동하면서 주인공이 느낀 감회가 잘 드러내 있는 작품임.
- 주요 여정은. 경북 예천의 학가산->김천역->부산항(배)->시모노세끼->동경(열차)->천삼->북해도 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음.
- 제목이 고락가로 되어 있어 즐거움의 과정이 있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해도로의 여정이 강제 징용에 의한 것임이 분명히 밝혀져 있음(“음식 좋고 때 좋을 때/출두명령 받아놓고”라는 부분)
-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음. 이러한 정서들은 1943년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장 중요한 것이 항일적 정서 : 수시로 검문 받아야 하는 강압적 상황, 동경에서의 궁성 참배 강요, 북해도에서의 곤궁한 생활 묘사 등
- 고향에 대한 그리운 정서, 조국에 대한 애뜻한 정서가 일제 강점기 현실과 대비되어 매우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문학적으로도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파주 해이리 소장본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본과의 관계

- 각자 병서 표기등에서 보는 것처럼, 파주 해이리 소장본이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첫페이지의 내용에서 비교되듯이 두 소장본이 동일한 것을 기초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긴 해도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가 있음
(첨부 사진 2 참조-파주 해이라 소장본)



1연 부분(파주본) : 어화세상 동유님은 이내말삼 들어보소

1연 부분(일제강점동원역사관본): 어화생생 동무님요 이내가상 들어보소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북해도 고락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파주본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첫째, 1943년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민족적 관점에서 표현했고
 - 둘째, 4.4조의 형식으로 조선 후기의 잡기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 셋째, 문학적 비유가 탁월하다 점

- 넷째, 시기적으로 과주본이 보존상태라든가 시기상 앞서 것이라 추정되긴 하지만 구전되어 전승, 표기되는 것들이 각각의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즉 각각의 독립성과 고유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됨.
- 다섯째, 일제 암흑기에 이만한 정도의 정서로 일제 강점에 대한 민족적 비애와 개인의 울분을 담은 작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국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또 보존하기에 보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필요 없음.
- 전시를 통한 교육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
- 일제 강점기 중에서 가장 암흑기인 1940년대 초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품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또 이를 문학사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노력이 필요함.
- 1940년대와 해방 이후, 그리고 1950년대를 잇는 민족문학사의 계보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5) 종합의견

- 문화재로서 등록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나, 과주본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OOO 청암대학교 교수(2018.7.10.)>

1) 현상

- 행정자치부(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가 소유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초 조선인 강제동원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사료로 친필로 되어 있고 겉표지가 낡은 것을 제외하면 상태가 양호한 편임.

2) 내용 및 특징

북해도고락가(北海道苦樂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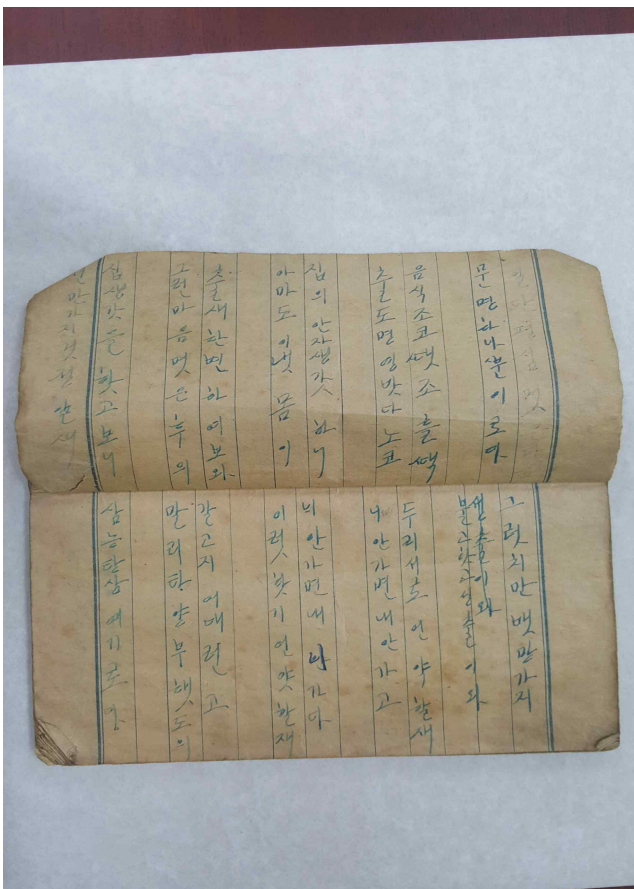
필사본

1책, 가로 18.1cm×세로 12.7cm(40장)

- 소위 ‘북해도고락가(北海道苦樂歌)’라고 통칭되는 자료로 푸른 잉크로 작성된 필사 자료임. 자료의 작성자는 ‘德山三術’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자료는 강삼술이 강제동원 피해신고 때 제출한 것으로 ‘德山三術’이 강삼술이라고 보임.
- 구체적인 자료의 서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강제동원의 시작에서 돌아와서 본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를 기록한 것임. 그 구성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모집 과정, 둘째, 이동과정, 셋째, 강제동원 현장에서의 생활, 넷째, 회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임. 주요 개념을 통해 그 사실을 정리함.
- 첫째, 모집 과정의 내용은, “출세를 마음 먹고, 친구 성출이와 약속”하고 북해도 삼릉탄광 모집에 응해, 12월 2일 아침에 출발, 처와 이별함.
- 둘째, 이동 과정의 내용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에 집합, 예천읍으로 이동, 모집원 12명, 순사에 끌려 73명 함께 이동, 옷을 갈아입고 김천, 부산, 일본에 도착함. (어디에 도착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일본에서는 동경행 열차를 타고, 동경에 감. 궁성요배하고 이후 천산역에 도착하고 다시 연락선으로 대석장(북해도로 추정)에 도착, 총 12일 걸렸다고 기록함.
- 셋째, 강제동원 현장에서의 생활 내용으로, 현장은 수천 호라고 보았고, 순사가 조사를 하고 방을 배정받았으며 동거인은 20명. 음식은 부족한데 공기 밥에 장국. 갱 입구는 갱 내외의 옷을 거는 방, 목욕탕, 전등실, 흡연실이 있었다고 함.
- 노동은 5시 30분에 시작하여, 식사 후 도시락을 지참하고 갱으로 감. 기술자의 지도로 일을 하는데 맨몸으로 일하고 현장에서는 담배 조사를 함. 필자의 기억으로는 천 여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했으며, 하루 14시간 일을 함. 다친 사람, 죽는 사람이 허다했고, 도망자가 잡히면 계원에게 고초를 당함.
- 넷째, 회고의 내용으로는, 2년 기간 마치고 부모와 처자 상봉, “할말을 다쓰지 못하고 이글을 마칩니다”라고 함.
- 이른바 강제동원은 강제연행이라고도 하는데, 아시아태평양전쟁기(1931~1945년)에 일본이 군수물자의 보급과 인력 공급을 위해 자행한 인력 수탈의 내용임.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을 목적으로 국가총동원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 등을 대상으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총동원 정책을 실시하는데, 당시 일제는 조선에서도 이를 자행함. 강제동원의 형태는 노무자, 군인, 군속, 위안부(일본군위안부, 노무위안부)로 대별할 수 있고 모집, 관알선, 징용, 징병 등의 방식으로 전개됨.
- 이 가운데 본 자료는 강제동원의 모집에 의해 일본의 북해도 미쓰비시(三菱)탄광에 가서한 고역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됨.
- 소위 ‘북해도고락가(北海道苦樂歌)’라고 하는 자료는 판본이 다음과 같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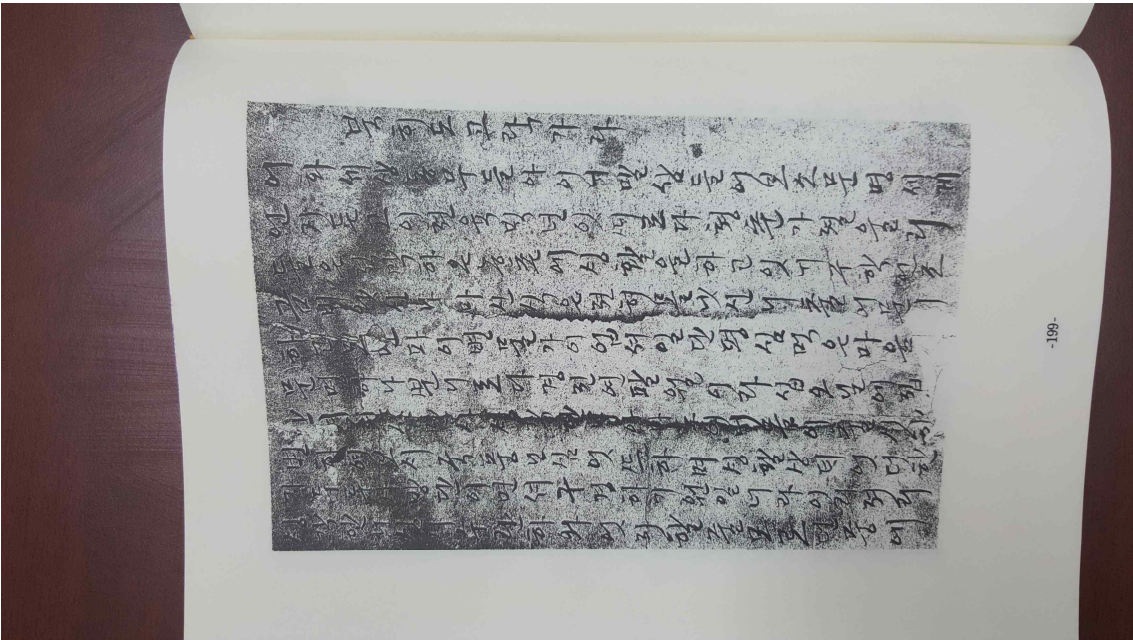
<신청본(강삼술 저)>



<과주 헤이리 개인소장본>



<김광순 소장 필사본>



- 소위 ‘북해도고락가(北海道苦樂歌)’의 ‘신청본(강삼술 저)’과 함께 현재 이본이 존재함. ‘과주 헤이리 개인소장본’과 ‘김광순 소장 필사본’(김광순, 『한국고소설전집』 (74)(박이정, 2007.))은 모두 탄광에서 노역한 조선인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음. 한 대목의 서술 태도를 통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신청본(강삼술 저)’의 경우 필자가 고역을 위해 가는 과정에서 마음먹는 태도에 대한 서술을 “성출이와 언약”이라고 하여 실제 친구의 이름을 쓴 것으로 보임. 반면에 ‘과주 헤이리 개인소장본’은 “두리 서로 언약할 때”라고 서술하고 있음. ‘김광순 소장 필사본’은 “앞집의 동무를 불러---언약”한 것으로 기록함.

- ‘신청본(강삼술 저)’의 경우 필자가 분명히 나오는 대신 제작 시기는 분명하지 않음. 반면에 ‘파주 헤이리 개인소장본’은 소책자 형태로 정교한 필치로 기록되어 있고 기록의 필치도 정확하게 보임. ‘김광순 소장 필사본’은 1946년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안동역에서의 강제동원이 기록됨. 다양한 판본과 노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데는 모두 유용한 자료로 보임.

3) 문헌자료

- 김인덕, 『강제연행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김광순, 『한국고소설전집』 (74), 박이정, 2007.
- 정혜경, 『강제동원을 말한다』, 선인, 2011.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 도록』, 2016.
- 주영민, 「북해도고락가를 통해 본 강제동원」, 『역사교육논집』 (64), 2017. 8.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소위 ‘북해도고락가(北海道苦樂歌)’의 ‘신청본(강삼술 저)’은 정확한 필자가 존재하고 예천지역에서 출발하여 강제동원 전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 지역성과 강제성이 보이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임. 특히 기존에 당사자의 기록이 거의 없는 강제동원의 역사에서 본 자료는 일제 자료가 갖고 있는 역사성을 능가한다고 보임. 단, 서술 내용상 실제 강제동원 과정에서 궁성요배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거치는 재론이 요청되는 내용도 있으나 노무 동원의 일반적인 내용을 원형에 가깝게 서술하여 이후 연구의 원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확인되듯이 여러 이본이 존재하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자료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해 적극적으로 자료적 가치를 해석할 수 있음.
- 본 자료와 관련하여 북해도 미쓰비시 유바리 탄광 현장 조사와 예천 지역에 대한 지역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음. 보다 유의미성이 부각되면 강제동원의 역사에서 이른바 ‘고락가’의 위상도 전면적으로 정립될 것으로 보임.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13.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18. 1. 10.)에서 문화재 등록검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판종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포창완의문 (褒彰完議文)	1책	30.8×22.7cm / 반곽 20.3×25.0cm	종이	필사	선장 (5침)	1925년	임OO (개인)	전남 구례군 구례 읍 봉남골목2길 14	

(2) 추진경과

- 항일독립유산 자체발굴, 지자체 및 관계기관 추천 의뢰('17. 8~12월)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 개최('18. 1. 10.)
 - 동산(動産) 분야 기초 유물목록 47건 중 조사·검토 대상 41건 선정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8. 3.)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8.3.)

- 이 문건은 한말 의병활동과 일제강점기 후진양성에 기여한 임현주의 절의와 학행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유사한 활동을 전개한 이들에 대한 완의문이 다수 남아 있다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희소성이나 유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문건은 등록문화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함.

○ 000 문화재 전문위원(2018.8.3.)

- 의병 활동을 했던 인물의 포창문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당시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은 충과 효의 실행적 인물에게 전국적으로 발급된 문서로서 현재 상당수가 남아 있음. 따라서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자료라는 점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000 순천대학교 명예교수(2018.8.3.)

- ‘최익현 의병장과 순창12의사 압송도’와 ‘포창완의문(임현주, 1925)은 불가분의 관계임. 압송도는 임현주 종손이 보존하는 그림이고, 완의문은 임현주를 포창하자는 완의문이기 때문임. 지금까지 한말의병을 압송하는 그림은 발견된 적이 없으며,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항일의병을 포창해달라는 완의문도 거의 공개된 적이 없음. 이러한 점만으로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 조사보고서

1. 명 칭 :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

※ 구례군 향토문화유산 제30호 ‘면암 최익현선생과 의병장 12인 후송장면 그림과 포창완의문’에 포함된 유물임

2.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골목2길 14

3. 소유자 : 임OO(개인)

4. 조사자 의견

<OOO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8.3.)>

1) 현상

○ 표지가 약간 마모되고, 5침에 부분 손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임.

2) 내용 및 특징

-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은 1925년 2월 경성대성묘(京城大聖廟) 연원유림향약본소(淵源儒林鄉約本所)가 전남 구례의 애국지사인 임현주(林顯周, 1858-1934)의 충의를 포창하기 위해 비각을 세워 역사에 기리 남기도록 하자는 합의문임.
- 이 포창완의문의 대상자인 임현주는 스승인 최익현 의병장과 함께 태인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제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고 곤장 100대를 맞고 풀려났음. 그후 지리산 남쪽에 은거하여 여러 애국지사들과 교류하는 한편, 1919년 고종이 사망하자 구례 간전면 오봉산 아래에 오봉정사를 짓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여 60여 명의 제자를 길러냈음. 이상의 내용이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에 간략히 수록되어 있음.
- 이 자료는 본문이 4매로 되어 있는데, 1925년 2월에 공부자성적도오륜행실중간소의 명의로 발행된 것이며,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상황에서 국권수호와 후진양성에 기여한 임현주의 충의와 학행을 기리기 위한 것임.
- 이 자료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충절과 학행으로 이름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연원유림향약본소에서 발행된 여러 종류의 완의문 중 하나임. 따라서 한말 의병활동과 일제강점기 후진양성에 기여한 임현주의 행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자료의 희소성이나 유일성의 측면에서는 가치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됨.

3) 문헌자료

- 최익현, 『(국역)면암집』 1~3, 민문사, 1989.
- 박민영, 『대한 선비의 표상 최익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 구례향토문화연구회 편, 『임경당선생과 오봉정사』, 2015.
- 홍영기, 『독립의군부의 지도자 임병찬』, 역사공간, 2016.
- 정다희, 「경당 임현주의 생애와 학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충절과 학행으로 이름난 이들을 기리는 애국적 활동을 전개한 경성의 연원유림향약본소에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완의문 중 하나임. 이 문건은 한말 의병활동과 일제강점기 후진양성에 기여한 임현주의 절의와 학행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유사한 활동을 전개한 이들에 대한 완의문이 다수 남아 있다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희소성이나 유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문건은 등록문화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없음.

<000 문화재 전문위원(2018.8.3.)>

1)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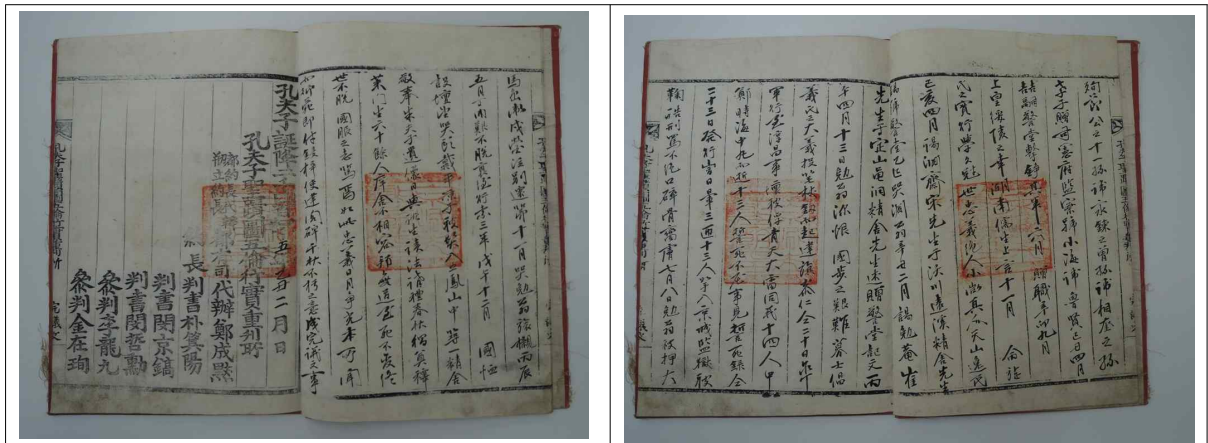
- 『임현주 포창완의문 (林顯周 褒彰完議文)』은 경당 임현주의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하나로서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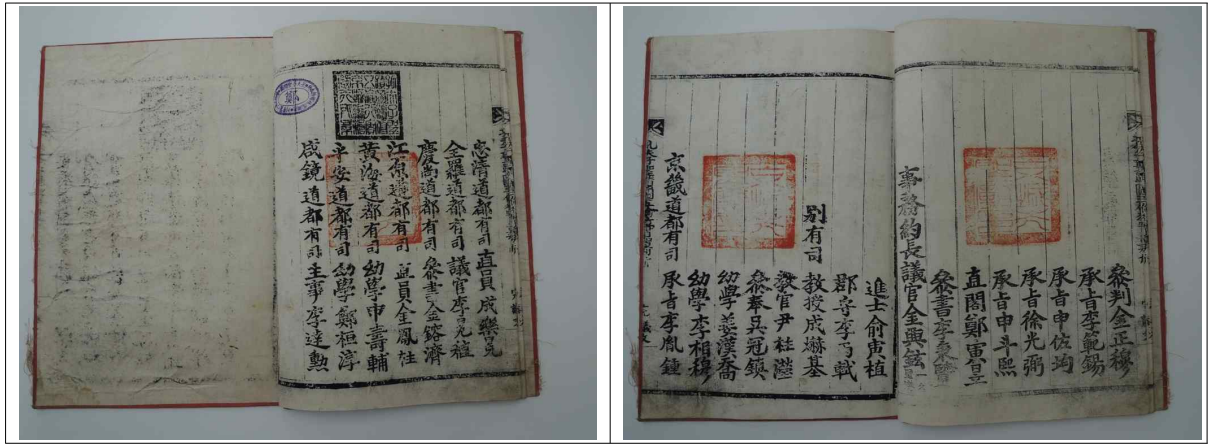
2) 내용 및 특징

- 조사 대상 『임현주 포창완의문 (林顯周 褒彰完議文)』은 1925년 2월 경성대성묘(京城大聖廟) 연원유림향약본소(淵源儒林鄉約本所)에서 발급한 문서임.
- 경성대성묘 연원유림향약본소는 일제강점기 전직 고관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정부의 위임 기관으로 당시 친일기관으로 전락한 경학원(經學院)에 반발하여 조선 성리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가장 중요시되던 덕목인 충효를 교육하고 장려하던 곳임. 공자의 『성적도(聖蹟圖)』와 『오륜행실(五倫行實)』을 거둬 간행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충의(忠義)와 효행(孝行)을 실천하는 사람의 단자가 올라오면 이를 심사하여 실천이 인정되면 그 뜻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각과 비를 세우게 하고 포창완의문을 작성하여 내림.

-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은 충의와 효행을 실천한 이를 찬양하여 내세우기 위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전원이 일치한 결정으로 지어진 글을 말함.
- 조사 대상 『임현주 포창완의문 (林顯周 褒彰完議文)』의 주인공인 경당(警堂) 임현주 (林顯周, 1858~1934)는 전북 남원에서 출생하여 유학자로 활동하였는데,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과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음. 그는 1906년 6월에 스승인 최익현이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적극 가담하여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순창에서 체포되어 임병찬(林炳贊) 등과 함께 이른바 ‘순창12의사’의 한 사람임. 스승인 면암을 제외한 이들은 포승으로 묶여 순창에서 전주를 거쳐 대전까지 도보로 압송되었으며,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1906년 6월 18일 남대문역에 도착하여 일본군사령부로 끌려갔음. 의병을 주도한 최익현과 임병찬은 군율위반죄란 미명하에 각각 감금 3년과 2년형을 받아 일본의 대마도(對馬島)로 압송되었고, 고석진과 최계학은 4개월 구금형을 받았음. 임현주를 비롯한 나머지 9인은 100대형을 받아 음력 8월 15일(양 10. 02) 풀려난 이후 지리산 남쪽의 구례군 토지면 과도리 512번지에 은거하였음. 매천 황현을 비롯한 구례지역 우국지사들과 교류하였으나, 1910년 나라가 망하고 매천이 순절한 이후 1919년경 구례 간전면 오봉산 아래에 오봉정사를 짓고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여 60여 명의 제자를 길렀음.
- 조사 대상 『임현주 포창완의문 (林顯周 褒彰完議文)』은 표지를 제외하고 4장으로 구성된 문서로서, 모두 필사되었으며 한 면 7행 21자 내외로 작성되었음. 완문(完文)의 뒤에는 도유사(都有司) 대변(代辦) 정성묵(鄭成默)을 비롯하여 약장(約長) 판서(判書) 박기양(朴箕陽) 등 13인, 사무약장(事務約長) 의관(議官) 김흥현(金興鉉) 등 3인, 별유사(別有司) 교수(敎授) 성혁기(成赫基) 등 5인, 경기도유사(京畿道有司) 승지(承旨) 이운현(李胤鉉)을 비롯한 팔도(八道)의 유사(有司) 8인의 이름이 수록되었음.



- 문서의 여덟 곳에 방형주인(方形朱印)의 ‘경성대성묘인(京城大聖廟印)’이 찍혀 있고, 팔도 유사가 수록된 문서의 끝에는 방형묵인(方形墨印)의 “공부자성적도 속수오륜행실 경성편집발행소 장(孔夫子聖蹟圖 續修五倫行實 京城編輯發行所章)’이란 인장과 함께 파란색 스탬프인크로 찍힌 타원형의 ‘공부자성적도 속수오륜행실중간/원연유림향약본소/정(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重刊/源淵儒林鄉約本所/鄭)’이란 인장이 있음.
- 완문의 끝에 적힌 간기에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五年 乙丑二月 日”이라 되어 있어 공자 탄생 2475년에 해당하는 을축년인 1925년에 간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조사 대상 『임현주 포창완의문 (林顯周 褒彰完議文)』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조선 성리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가장 중요시되던 덕목인 충효를 교육하고 장려하며 이루어진 활동 속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의미가 있음.

3) 문헌자료

- 林顯周, 『警堂遺稿』
- 박민영, 『한말 중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9.
- 홍영기, 『독립의군부의 지도자 임병찬』, 독립기념관, 역사공간, 2016, 51-69쪽.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170-178쪽.
- 『임경당선생과 오봉정사』, 사)구례향토문화연구회, 2015.
- 정다희, 「警堂 林顯周의 生涯와 學問」, 순천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사 대상 『임현주 포창완의문 (林顯周 褒彰完議文)』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조선 성리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가장 중요시되던 덕목인 충효를 교육하고 장려하며 이루어진 활동 속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이 시기 충과 효의 실행적 인물에게 발급된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은 현재 상당수가 전해지고 있어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비교 연구가 조금더 깊이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등록문화재의 지정 보다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자료라는 점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의병 활동을 했던 인물의 포창문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당시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은 충과 효의 실행적 인물에게 전국적으로 발급된 문서로서 현재 상당수가 남아 있음. 따라서 조금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자료라는 점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OOO 순천대학교 명예교수(2018.8.3.)>

1) 현상

- 고문서의 경우 표지의 마모가 진행되고 있고, 5침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한지로 편철된 속지와 내용 모두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2) 포창완의문 / 경성대성묘 연원유림향약본소
 필사본
 경성: 공부자성적도오륜행실중간소, 1925

- 이 자료는 경성대성묘(京城大聖廟) 연원유림향약본소(淵源儒林鄉約本所)의 이름으로 1925년 2월에 발행되었음. 다만, 이 자료의 말미에 적힌 발간 시기가 다소 애매한 상황임. 즉,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五年 乙丑二月 日’이라 되어 있기 때문임. 공자탄생 2475년은 간지로는 갑자년 즉 1924년이나, 간기는 을축년(1925)으로 적혀 있기 때문임. 다만 이 자료에서 ‘을축’은 필사한 것이고, ‘공부자탄강’은 인쇄된 점으로 보아 ‘을축’을 발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함.
- 그런데 경성대성묘 연원유림향약본소는 친일기관으로 전락한 경학원(經學院)에 반발한 전국의 유림들이 새로이 조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지금까지 이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해지는 완의문은 충의와 효행에 뛰어난 인물을 추천하면 심사하여 그 뜻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비와 각을 세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가해주는 문서임.
- 이 기관은 1925년경 창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이 기관의 대표자인 鄭成默의 직함이 ‘都約長大辨 創立約長 都有司代辨’이라 한 점에서 그러함. 참고로 정성목은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1928)의 편찬자임.
- 이 완의문은 경당 임현주(警堂 林顯周, 1858-1934)의 충의를 포창해달라는 내용임. 임현주는 전북 남원에서 출생하여 유학자로 활동하였음. 그는 淵齋 宋秉璿과 勉菴 崔益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음. 그의 호 경당은 연재가 지어준 것이며, <警堂記>는 면암이 써주었음. 그는 1906년 6월에 스승인 최익현이 전북 태인의 武城書院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적극 가담하여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순창에서 체포되어 林炳贊 등과 함께 이른바 ‘순창12의사’의 한 사람임. 스승인 면암을 제외한 이들은 포승으로 묶여 순창에서 전주를 거쳐 대전까지 도보로 압송되었으며,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1906년 6월 18일 남대문역에 도착하여 일본군사령부로 끌려갔음. 의병을 주도한 최익현과 임병찬은 군율위반죄란 미명하에 각각 감금 3년과 2년형을 받아 일본의 對馬島로 압송되었고, 고석진과 최제학은 4개월 구금형을 받았음. 임현주를 비롯한 나머지 9인은 笞 100대형을 받아 음력 8월 15일(양 10. 02) 풀려났음. 이후 고향에 돌아온 임현주는 1901년 지리산 남쪽의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512번지에 은거하였음. 그는 매천 황현을 비롯한 구례지역 우국지사들과 교류하였다. 1910년 나라가 망하고 매천이 순절하였고, 자신은 모친상을 치렀음. 탈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이 사망하자 그는 1919년에 구례 간전면 오봉산 아래에 오봉정사를 짓고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여 60여 명의 제자를 길렀음. 이러한 내용이 간략하게 완의문에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면암이 일으킨 태인의병에 참여하여 활동한 충의를 높이 받들기 위해 비각을 세

위 역사에 길이 남기자는 것임.

- 이 자료는 본문이 4매로 되어 있는데, 1925년 2월에 공부자성적도오률행실중간소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임. 후미에 도약장 대리 정성묵, 약장 전 판서 朴箕陽 등 12인, 사무약장 의관 金興鉉 등 3인, 別有司 교수 成燮基 등 5인, 8도 都有司 경기도유사 승지 李胤鉉 등 8인의 이름으로 발행되었음.
- 자료를 입증하기 위해 ‘京城大聖廟印’과 ‘연원유림향약본소/공부자성적도 속수오률행실중간인 鄭’ 등의 인장이 찍혀있음. 이로써 보건대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태인의병에 참여한 임현주의 학행과 충의를 기리기 위한 항일유림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연원유림향약본소에서 발행한 초기의 완의문이라는 점도 고려할 만함. 특히, 1906년에는 항일의병으로, 1912년에는 임병찬이 주도한 독립의군부의 지도부로, 그리고 1919년 이후에는 강학활동으로 민족정신을 수호하고 고양한 임현주의 행적이 담긴 완의문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아울러 이번에 함께 조사한 이른바 태인의병 지도부가 압송되는 그림과 함께 문화재 지정의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3) 문헌자료

- 林顯周, 『警堂遺稿』, 文達煥, 『遜齋集』, 趙泳善, 『拜軒集』, 梁在海, 『華隱文集』, 黃玆, 『梅泉集』, 崔益鉉, 『勉菴集』, 崔濟學, 『習齋實記』, 林炳贊, 『遜軒遺稿』
- 박민영, 『한말 중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9.
- 宋相燾, 『騎廬隨筆』,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71.
- 최익현,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역, 『국역 勉菴集』 1~3, 민문사, 1989.
- 홍영기, 『독립의군부의 지도자 임병찬』, 독립기념관, 역사공간, 2016, 51-69쪽.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170-178쪽.
- 『임경당선생과 오봉정사』, 사)구례향토문화연구회, 2015.
- 정다희, 『警堂 林顯周의 生涯와 學問』, 순천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최익현 의병장과 순창12의사 압송도’와 ‘포창완의문(임현주, 1925)은 불가분의 관계임. 압송도는 임현주 종손이 보존하는 그림이고, 완의문은 임현주를 포창하자는 완의문이기 때문임. 지금까지 한말의병을 압송하는 그림은 발견된 적이 없으며,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항일의병을 포창해달라는 완의문도 거의 공개된 적이 없음. 이러한 점만으로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 마모 혹은 훼손된 부분이 많으므로 보수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14. 「의병장 최익현과 12의사 압송도」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의병장 최익현과 12의사 압송도」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18. 1. 10.)에서 문화재 등록검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의병장 최익현과 12의사 압송도」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의병장 최익현과 12의사 압송도	1점	전 체:180x65cm, 그림:97x53cm	비단에 수묵담채	족자	미상	임OO (개인)	전남 구례군 구례 읍 봉남골뚝길 14	

(2) 추진경과

- 항일독립유산 자체발굴, 지자체 및 관계기관 추천 의뢰('17. 8~12월)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 개최('18. 1. 10.)
 - 동산(動産) 분야 기초 유물목록 47건 중 조사·검토 대상 41건 선정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8. 3.)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8.3.)

- 의병장 최익현과 호남지방에서 활동했던 의사 12인을 기록한 점에서는 기록적 가치는 있으나 이 작품을 제작한 시기와 작가를 확증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으며 조형적으로 표현이 미숙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 000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8.3.)

- 1) 그림 좌측에 화공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필적을 후대에 고의로 훼손하거나 덧칠한 흔적이 보이며, 2) 왜색(倭色)이 매우 강하여 한국인 화공이 아니라 일본인 화공이 그린 것으로 판단되며, 3) 그림에 한국적 정취나 한국적 정신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적다고 판단됨.

○ 000 문화재 감정위원(2018.8.3.)

- 의병과 관련해 1906년 4월 24일 최익현과 의병장 12인 후송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지만, 일본식 가옥을 배경으로 한 도시 풍경과 최익현을 비롯한 의병장들의 비현실적인 인물 표현 등에서 기록화로서의 면모를 전혀 찾을 수 없음.
- 이 시기의 회화작품에서 동일한 표현기법으로 그려진 사례가 없어 양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화가나 제작시기와 관련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등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 000 순천대학교 명예교수(2018.8.3.)

- ‘최익현 의병장과 순창12의사 압송도’와 ‘포창완의문’(임현주, 1925)은 불가분의 관계임. 압송도는 임현주 종손이 보존하는 그림이고, 완의문은 임현주를 포창하자는 완의문이기 때문임. 지금까지 한말의병을 압송하는 그림은 발견된 적이 없으며,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항일의병을 포창해달라는 완의문도 거의 공개된 적이 없음. 이러한 점만으로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압송도는 제작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1920년대로 볼 수 있으며, 늦어도 1934년 이전으로 추정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의병장 최익현과 12의사 압송도」 조사보고서

1. 명 칭 : 의병장 최익현과 12의사 압송도
2.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골목2길 14
3. 소유자 : 임OO(개인)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 위원(2018.8.3.)>

1) 현황

- 1924년 2월 작성된 『포창완의문』과 함께 구례군 향토문화유산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음
- ※ 구례군 향토문화유산 제30호 ‘면암 최익현선생과 의병장 12인 후송장면 그림과 포창완의문’에 포함된 유물임

2) 현상

- 족자 형식이며 보존 상태는 양호하나 장황은 다소 거칠게 처리되어 있음.

3) 내용 및 특징

- 일본식 가옥들이 들어서 있고 기차가 연기를 뿜으면서 지나가는 도시가 부감시(俯瞰視)로 그려져 있는데, 그 한 중앙에 사각형 공간을 벽돌로 쌓아 설정하고 그 안에 최익현과 12인을 그려 넣은 수묵담채화임. 최익현은 단독으로 앉아있으며 12인은 한 줄로 앉아있는데, 각 인물은 흑립을 쓰고(林炳瓚 제외)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 한국인임을 알 수 있음(도 1). 모두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나 각 인물에 이름을 적어두어, 이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기록화적 성격이 있음.
- 이 그림은 1906년 4월 23일에 정읍, 순창, 곡성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던 최익현(崔益鉉, 1833-1906)과 의사 12인(林炳瓚, 1851-1916; 梁在海, 1854-1924; 金箕述, 1849-1929; 崔濟學, 1882-1959; 柳海瑢, 1884-1938; 林顯周, 1858-1934; 羅基德, 1876-1932; 李容吉, ?-?, 高石鎭, 1856-1924; 趙永善, ?-?; 趙愚植, 1869-1937; 文達煥, 1851-1938)이 함께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던 사건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기차가 다니던 대진으로 집합시켜서 서울로 압송했다고 함. 대진으로 압송할 때에 나이가 많은 최익현은 가마에 태워서 압송했다고 하는데,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공간에 가마가 등장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기록하려는 의지가 엿보임.
- 이 역사적 사건은 1906년에 일어났지만, 기차의 표현(철로에 바로 잇대어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전차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기차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음)에 오류가 있으며, 배경에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은 일본식 건물일 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이나 안에 그려져 있는 인물들은 일본인 복장을 하고 있음(도 2). 간판으로 보이는 팻말이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데, 글자가 훼손되어 있음. 아마 “日本”이라는 글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日本”이라는 글자 외에도 그림

의 좌측 상단 부분에 씌어 있던 글자 역시 훼손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작가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훼손이 심해서 글자를 읽을 수는 없음.

-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 그림은 사건이 일어난 1906년에 제작되었다기보다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특정 화풍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장면을 도해하듯이 그렸기 때문에 제작연도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특정 화가의 화풍을 읽을 수도 없음. 기록적 가치는 있으나, 원근법, 건물의 투시도법, 인물 등이 매우 미숙하게 처리되어 있어 예술적 가치는 낮음.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의병장 최익현과 호남지방에서 활동했던 의사 12인을 기록한 점에서는 기록적 가치는 있으나 이 작품을 제작한 시기와 작가를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으며 조형적으로 표현이 미숙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더욱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

6) 종합의견

- 기록적 가치는 있으나 제작연도, 제작자를 알 수 없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됨.

<OOO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8.3.)>

1) 현상

- 화공을 알 수 있는 원편 상단의 글씨가 마모 내지 훼손된 상태이며, 좌측 하단의 ‘日本’ 혹은 ‘太田’이라고 추정되는 글씨가 훼손된 상태이며, 그 외 전반적인 보존 상태는 시급히 복원 작업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님.

2) 내용 및 특징

- ‘최익현 의병장과 12의사 압송도’는 1906년 6월 3일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북상하다가 6월 14일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대마도로 압송된 최익현과 12명의 의사들이 정거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임.
- 이 그림의 명칭은 ‘문화재 기초조사 추천양식’에는 ‘최익현과 의병장 12인 후송도’라고 되어 있으나 ‘최익현 의병장과 12의사 압송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첫째, 12인은 의병장이 아니라 의병장 최익현과 의병활동을 함께 한 이들이며, 둘째, 최익현 등은 일본군에게 환대를 받아 모셔진 것이 아니라 죄수처럼 붙잡혀 갔기 때문에 ‘후송’이란 말보다는 ‘압송’이란 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최익현 의병장과 12의사 압송도’의 주인공인 최익현과 임병찬·임현주 등 12의사는 1906년 6월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창의하여 열흘 동안 정읍·순창 등지에서 1천 여명 의병과 다량의 무기와 군수품을 징발하여 북상하려다 6월 14일 순창에서 체포되었음.
- 최익현과 12의사 중 최익현은 가마에 태워져 압송되었고, 12의사는 결박당한 채 대전역까지 걸어갔는데, 이들은 순창을 출발하여 임실-전주-여산-연산-진잠을 거쳐

대전역에 도착하였음. 당시 최익현과 그 일행에 대해 역에 운집한 일본인들은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들은 대전역에서 서울 남대문역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일본군사령부에서 심문을 받았는데, 최익현과 임병찬은 각기 3년형과 2년형을, 고석진과 최제학은 4개월 구금형을 받고 대마도에 구금되었고, 나머지 인사들은 태형을 맞거나 구류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음.

- ‘최익현 의병장과 12의사 압송도’는 대전역을 무대로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최익현이 타고 온 가마 1대, 연기를 뿜으며 출발하는 기차, 최익현 일행을 감시하는 순사와 군인과 이들의 총검, 최익현 일행을 구경하는 일본인들이 다투어 구경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음.
- ‘최익현 의병장과 12의사 압송도’는 누가 언제 어디서 그렸는지 알 수 없음. 아마 12의사 중 한 사람인 임현주(林顯周, 1858-1934)가 생전에 대전역 압송 상황을 화공에게 말하여 그리게 한 것으로 추정됨.
- ‘최익현 의병장과 12의사 압송도’가 그려진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추정됨. 구체적으로, 임현주가 구례군에 오봉정사(五鳳精舍)를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하다가 1925년 전후 최익현과 12의사에 대한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창완의문과 한 짝이 이루어지도록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판단됨.
- ‘최익현 의병장과 12의사 압송도’ 좌측에는 화공이 자신의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씨가 있는데, 후대에 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덧칠한 흔적이 보임. 또한 이 그림은 왜색(倭色)이 매우 강하여 한국인 화공이 아니라 일본인 화공이 그린 것으로 판단됨.

3) 문헌자료

- 박민영, 『대한 선비의 표상 최익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 구례향토문화연구회 편, 『임경당선생과 오봉정사』, 2015.
- 홍영기, 『독립의군부의 지도자 임병찬』, 역사공간, 2016.
- 정다희, 「경당 임현주의 생애와 학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최익현 의병장과 12의사 압송도’는 구한말 항일의병장과 그 주변인사들이 겪은 곤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유일한 사례로 판단됨. 이러한 점에서 이 그림은 나름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동시에 이 그림은 1) 그림 좌측에 화공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필적을 후대에 고의로 훼손하거나 덧칠한 흔적이 보이며, 2) 왜색(倭色)이 매우 강하여 한국인 화공이 아니라 일본인 화공이 그린 것으로 판단되며, 3) 그림에 한국적 정취나 한국적 정신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적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없음

<OOO 문화재 감정위원(2018.8.3.)>

1) 현상

- 최익현과 의병장 12인이 일본군에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되던 중 멈추어 있는 장면을 비단 바탕에 수묵채색으로 그린 것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족자 상단의 반달 모양 축목(軸木)이 반대로 되어 있는 등 상황의 수준이 낮음(도 1).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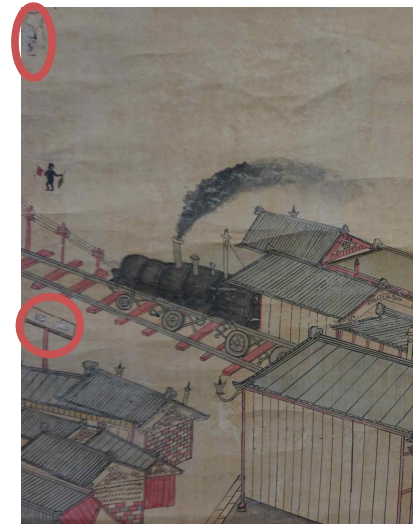
- 이 그림은 경당(警堂) 임현주(林顯周, 1858.11.15-1934.4.30)의 의병활동과 충의를 찬양하며 1924년 2월 작성된 『포창완의문』과 함께 구례군 향토문화유산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음.
-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남원, 운봉, 정읍, 태인, 순창, 곡성, 영천, 임실 등지에서 모집한 300여 명과 의병활동을 하다 1906년 4월 23일 일본군에 체포되어 의병장 임병찬(林炳瓚, 1851-1916), 양재해(梁在海, 1854-1924), 김기술(金箕述, 1849-1929), 최제학(崔濟學, 1882-1959), 류해용(柳海瑢, 1884-1938), 임현주(林顯周), 나기덕(羅基德, 1876-1932), 이용길(李容吉, ?-?), 고석진(高石鎭, 1856-1924), 조영선(趙永善, ?-?), 조우식(趙愚植, 1869-1937), 문달환(文達煥, 1851-1938)의 12명과 후송되다 멈추어 있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각각의 인물 바로 위에 한자 이름이 명기되어 있음.
- 의병과 관련해 1906년 4월 24일 최익현과 의병장 12인 후송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지만, 일본식 가옥을 배경으로 한 도시 풍경과 최익현을 비롯한 의병장들의 비현실적인 인물 표현 등에서 기록화로서의 면모를 전혀 찾을 수 없음.
- 최익현과 의병장 12명은 역원근법(逆遠近法)의 일본식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별도 공간에서 일본군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1906년 4월 24일 경성으로 압송되던 때에는 일본식 가옥이 즐비한 거리가 조성되기 이전이므로 역사적 사건과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후대에 제작되었음을 시사해줌. 또한 간판의 ‘日本’이라는 문자와 그 위쪽의 또 다른 문구가 인위적으로 지워져 있는 것도 제작 시기를 후대로 상정케 하는 이유임(도 2, 3).
- <최익현과 의병장 12인 후송도>와 『포창완의문』의 소장자는 경당 임현주의 후손이며, 임현주가 1918년 오봉정사(五鳳精舍)를 건립해 후학을 가르치던 시기에 그를 칭송하는 『포창완의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림도 이 무렵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 시기의 회화작품에서 동일한 표현기법으로 그려진 사례가 없어 양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화가나 제작시기와 관련한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없이 제작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
- 바탕의 비단은 기계 직조이며, 이러한 직물은 19세기 말부터 일본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제작시기를 판단하는 근거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도1 족자, 상단 반달 모양



도2 최익현과 의병장 12인
후송도



도3 日本, 상단의 지어진 곳

3)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서 가치 없다고 판단됨

<OOO 순천대학교 명예교수(2018.8.3.)>

1) 현상

- 그림의 경우 작자를 알 수 있는 글씨가 원편 상단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마모 혹은 훼손된 상태이고, 그림의 좌측 하단에도 ‘日本’ 혹은 ‘太田’이라 추정되는 글씨가 훼손된 상태이며, 전반적인 보존 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됨.

2) 내용 및 특징

1) ‘최익현 의병장과 순창12의사 압송도’ / 작자 불분명

그림

그린 시기와 족자 제작 시기 불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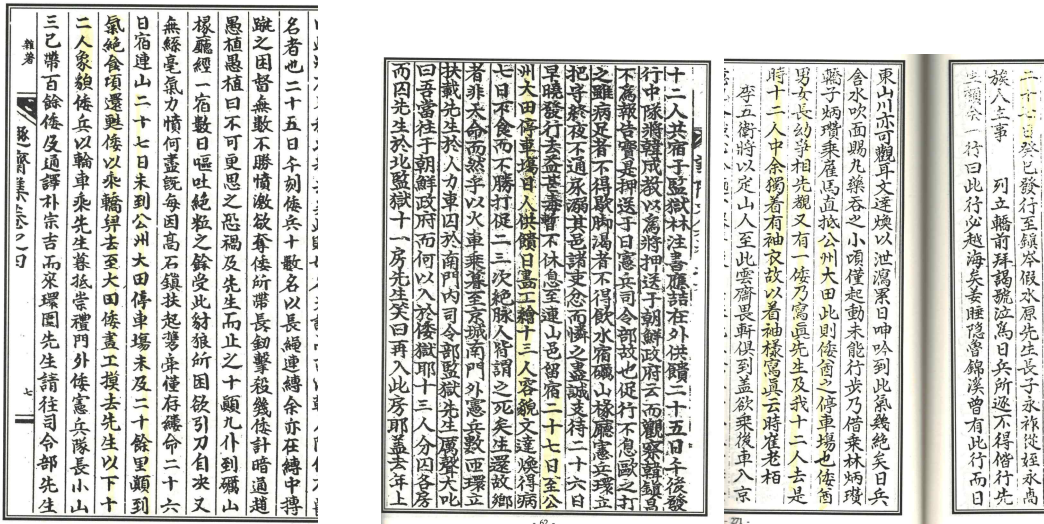
족자형태 : 118x63.5cm,

- 조사 당시 이 그림의 제목을 임시로 ‘최익현과 의병장 12인 후송도’라고 편의상 붙여 있었으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조사자는 이 그림의 제목을 일단 ‘최익현 의병장과 순창12의사 압송도’(혹은 ‘의병장 최익현과 12의사 압송도’)라고 하였음. 그래야만 이 그림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당시 태인의병의 의병장은 최익현이었으며, 그 핵심지도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바로 임병찬을 비롯한 12의사였음. 또한 이들은 일본 통감부의 지시에 의해 일본 군대와 경찰, 한국 순사 수십명에 의해 ‘보호를 받아 후송’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체포되어 압송되었음. ‘압송도’라고 해야 할 이유임. 따라서 문화재 등록 여부를 떠나 이 그림의 명칭은 ‘압송’이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최익현과 임병찬 등은 을사조약 직후 약 6개월 동안 의병을 도모하여 1906년 음력 윤 4월 13일(양 6.3) 전북 정읍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일으켰음. 이들은 약 열흘동안

정읍-순창-곡성 등지에서 의병 약 1천명을 모으고 상당량의 무기와 군수품을 징발하여 북상하려다 6월 14일(윤4.23) 순창 객사에서 체포되었음. 이들중 면암 최익현을 제외한 12의사는 결박을 당한 채 대전역까지 걸어갔으며, 73세의 최익현은 73세의 노령으로 인해 가마에 태워져 압송되었고, 임병찬은 간혹 가마를 탔던 것으로 전해짐. 이들은 순창을 출발하여 임실-전주-여산-연산-진잠을 거쳐 5일 만에 대전역에 도착하였음.

- 대전에 도착한 상황을 당시 함께 압송되었던 文達煥(1852-1938)의 문집인 『遯齋集』의 <丙午日記> 윤 4월 27일자에 “대전에 이르러 일본 화공이 선생이하 12인의 모습을 그렸다(至大田 倭畫工摸去 先生以下十二人象貌)”라고 하였음. 같은 12의사의 한사람인 梁在海(1855-1924)의 『華隱文集』 <丙午學義日記>에도 “27일 공주대전정거장에 이르러 일본인이 식사를 제공하고 일본인 畫工이 13인의 용모를 그렸다(二十七日 至公州大田停車場 日人供饋 日畫工繪十三人容貌)”라고 되어 있음. 또한 趙愚植(1869-1937)도 『省菴集』의 <玉川日記>에서 “공주대전에 다다랐는데, 이곳은 일본의 정거장이었다. 일본인 남녀노소가 다투어 서로 먼저 (우리들) 보려고 했다. 그리고 한 일본인이 면암선생과 우리 12인의 사진을 찍었는데, 떠날 때 나만 홀로 저고리를 입었던 까닭에 12인 중에서 나만 저고리를 입은 모양의 사진이라고 말했다(抵公州大田 此則倭僑之停車場也 倭僑男女長幼爭相先覩 又有一倭乃寫眞 先生及我十二人 去是時 十二人中余獨着有袖衣 故以着袖樣寫眞云)”라고 한 내용이 매우 주목됨. 崔濟學의 『습재집』 <병오거의일기>에도, “점심 무렵 공주대전정거장에 이르니 일본인들이 와서 보는 자가 1백여 명이었으며, 갑자기 일본인 한사람이 사진기를 움직여 촬영해 갔다.(午點至公州太田停車場 倭僑來視者 以百數 而忽一僑 運機攝影而去)”고 되어 있다. 요컨대, 이들이 대전역에 도착하자 일본인 남녀노소가 다투어 나와 이들을 뵈려는 것, 그리고 면암을 비롯한 13인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었다는 점임. 아마도 당시 서울로 압송중 대전에서 기차를 대기하려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릴 시간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시한 조우식과 최제학의 일기에 서술된 대로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러한 내용이 이 압송도에 압축되어 그려져 있음. 즉, 이 그림에는 최익현이 타고 온 가마 1대가 그려져 있음. 또한 연기를 내뿜으며 출발하는 기차가 그려진 점, 이들을 감시하는 일본군경의 총검 20여 정이 거치되어 있고 감시하는 순사와 군인 등 5명 등이 그려져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이들을 먼저 보려고 일본인 남녀노소가 다투어 구경하는 모습이 그려진 점 등임. 따라서 이 압송도는 최익현 등 13인이 함께 자리한 대전역을 무대로 그려졌다고 판단됨.
- 다만, 이 압송도를 그린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그렸는지는 알 수 없음. 아마도 임현주(警堂 林顯周, 1858-1934)가 생전에 대전역 압송 상황을 화공에게 말하여 그리게 한 것으로 추정됨. 그렇다면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1906년 후반부터 1934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임. 그림의 제작 시기를 좀더 좁혀본다면 그가 1919년에 五鳳精舍를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했던 1920년대로 추정할 수 있음. 특히 2)항의 포창완 의문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1925년 전후 포창완의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을까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들은 대전역에서 서울 남대문역까지 기차를 타고 갔으며, 곧바로 일본군사령부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았음. 그후 이들은 일제에 의해 軍律違反 죄명으로 최익현과 임병찬은 대마도 감금 3년형과 2년형을, 최제학과 고석진은 구금 4개월형월, 임현주를 비롯한 나머지 9인은笞 100度を 언도받았음. 그리하여 최익현과 임병찬은

1906년 7월 8일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일본의 대마도로 압송되어 감금되었고, 고석진과 최제학은 같은 해 12월에 풀려났음. 임현주 등 9인은 100대의 태형을 맞고서 같은 해 8월 15일 석방되었음.



1) 문달환 『둔헌집』 / 2) 양재해 『화은문집』 / 조우식 『성암집』

3) 문헌자료

- 林顯周, 『警堂遺稿』, 文達煥, 『遜齋集』, 趙泳善, 『拜軒集』, 梁在海, 『華隱文集』, 黃玟, 『梅泉集』, 崔益鉉, 『勉菴集』, 崔濟學, 『習齋實記』, 林炳贊, 『遜軒遺稿』
- 박민영, 『한말 중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9.
- 宋相燾, 『騎廬隨筆』,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71.
- 최익현,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역, 『국역 勉菴集』 1~3, 민문사, 1989.
- 홍영기, 『독립의군부의 지도자 임병찬』, 독립기념관, 역사공간, 2016, 51-69쪽.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170-178쪽.
- 『임경당선생과 오봉정사』, 사)구례향토문화연구회, 2015.
- 정다희, 『警堂 林顯周의 生涯와 學問』, 순천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최익현 의병장과 순창12의사 압송도’와 ‘포창완의문’(임현주, 1925)은 불가분의 관계임. 압송도는 임현주 종손이 보존하는 그림이고, 완의문은 임현주를 포창하자는 완의문이기 때문임. 지금까지 한말의병을 압송하는 그림은 발견된 적이 없으며,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항일의병을 포창해달라는 완의문도 거의 공개된 적이 없음. 이러한 점만으로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압송도는 제작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1920년대로 볼 수 있으며, 늦어도 1934년 이전으로 추정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 마모 혹은 훼손된 부분이 많으므로 보수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15. 「호양학교 동종」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호양학교 동종」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18. 1. 10.)에서 문화재 등록검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호양학교 동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호양학교 동종	1점	37x19.5cm	구리 및 아연 등	범종	불분명	구례교육지원청장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21	

(2) 추진경과

- 항일독립유산 자체발굴, 지자체 및 관계기관 추천 의뢰('17. 8~12월)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 개최('18. 1. 10.)
 - 동산(動産) 분야 기초 유물목록 47건 중 조사·검토 대상 41건 선정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8. 2.)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8.2.)

- <호양학교 동종>이 호양학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증할 기록이 없으며, 매우 흡사한 종들이 여러 점 알려져 있으므로 비교 검토할 필요함.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확증할 수 없음.

○ 000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8.2.)

- 1) 등록문화재 지정의 중요 요건 중 하나인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2) 전남 해남 대흥사에 이와 동일한 동종이 있고, 또 독립기념관에도 태극문양의 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3) 전남 해남 대흥사 동종의 경우처럼 동일한 동종이 또 발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됨.

○ 000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사(2018.8.2.)

- 이 종을 학교에서 치고 만지고 사용했던 종이라고 증언한 부분도 신빙성이 없으며 종신에 표현된 문양 또한 근대보다는 광복 이후 1950년~60년대에 제작된 종에서 보이는 양식을 따르고 있어 지역민들이 기억하는 호양학교 종이 현재 구례교육지원청의 종인지 확신할 수 없음. 종의 양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이 종은 현재 훼손 부위가 심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정도로 우수한 작품이라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종과 호양학교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 종은 문화재 등록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 000 순천대학교 명예교수(2018.8.2.)

- 호양학교는 1908년 구례의 우국지사 황현과 그 제자들의 주도로 건립한 작은 규모의 사립학교였음. 이 학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종의 크기도 작았을 것임. 따라서 굳이 이 종을 매달아 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세워놓은 상태로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렸을 것으로 추정됨. 요컨대, 망국전후 민족교육의 사립학교에 설치된 종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물론 해방직후 방광초등학교를 건립하면서 현재의 호양학교종을 제작 혹은 구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면 방광학교종이라 불려졌어야 마땅할 것임.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모른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추정을 통해 타당성이 있다면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호양학교 동종」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호양학교 동종
2.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21
3. 소유자 : 구례교육지원청장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 위원(2018.8.2.)>

1) 현상

- 보존 상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호양학교(壺陽學校)에서 사용했다고 구전되는 전통 범종 형태의 종으로, 2011년 12월에 구례군의 향토유적 제31호로 지정됨. 호양학교는 1908년에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910)이 중심되어 구례 지역주민이 구례 광의면 지천리에 세워 신문물을 가르치던 학교인데, 1920년에 폐교되었음. 1946년에 호양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방광학교(放光學校)가 건립되었고 방광학교가 1999년 광의초등학교와 통합될 때까지 방광학교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구전되고 있음.
-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동종은 전통 범종의 형태를 띠고 있음. 종 자체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편인데, 그러한 이유인지 鐘身이 부분적으로 함몰되어 있음.(도 1) 이러한 함몰은 주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동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을 거는 부분인 용뉴에는 발가락이 5개인 용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으며 여느 범종처럼 종을 걸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균형이 맞지 않게 뚫려 있어 실제 이 동종을 걸어서 사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함. 게다가 음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音筒(도 2)이 완전히 막혀 있음.
- 鐘身의 앞과 뒤에 비천상이 저부조로 양각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태극기(태극이 상하도 나뉘고 4괘가 있는 태극기 도안인데, 이러한 태극기 도안은 20세기 초에 등장함)가 도드라지게 양각되어 있음. 종을 치는 당좌 부분(불교 범종은 흔히 연꽃무늬임)이 없어서 태극 부분을 당좌로 사용했을 수도 있으나 종을 친 흔적이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 <호양학교 동종>은 태극기 도안을 넣은 매우 특이한 범종이지만 유사한 종이 현재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 박물관에 ‘태극문양 범종’이 소장되어 있으며(도 3), 『태극기의 정체_제정과정과 주역 원리를 통해 본 태극기 논의』에 263쪽(도 4)에 또 다른 유사한 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범종이 ‘고려범종’으로 인터넷에서 검색됨(도 5). 동일한 모양의 종을 일본 향천현(香川縣) 대천군(大川郡) 야마다(山田)씨가 소장하고 있다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검색됨. (http://www.jikjimuseum.org/Gallery/Gallery_200407/product/Joseon/96.asp) 이들

간의 상호 관련 문제(복제 가능성)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물론 원 제작가가 4점 이상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3) 문헌자료

- 김상섭, 『태극기의 정체_제정과정과 주역 원리를 통해 본 태극기 논의』, 동아시아, 2001.

4) 기타

- 현재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 소장되어 있는 <호양학교 동종> 외에 유사한 종이 3점 이상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종들을 실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 검토에 어려움이 있음.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호양학교 동종>은 매천 황현이 구례에 세운 호양학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구전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기록도 현재는 확인할 수 없음. 게다가 용뉴 부분만 다르게 구조된 매우 유사한 종이 여러 점 알려져 있음. 따라서 이 유사종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호양학교 동종>을 호양학교에서 사용했다는 근거가 될만한 실증적 자료 보완이 필요함.

6) 종합의견

- <호양학교 동종>이 호양학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입증할 기록이 없으며, 매우 흡사한 종들이 여러 점 알려져 있으므로 비교 검토할 필요함.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없음.

<OOO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8.2.)>

1) 현상

- 동종의 표면에 여기저기 찌그러진 부위가 있고, 두께가 얇아 파손과 마모의 우려가 있으며, 녹이 슬어 본연의 색채를 상실한 듯하며, 표면의 비천상(飛天像)은 다소 마모된 상태임. 따라서 시급히 체계적 보존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내용 및 특징

- ‘호양학교(壺陽學校) 동종’은 구한말 우국지사인 황현(黃玿, 1855-1910)과 그의 지인, 제자들이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에 설립한 사립호양학교에서 사용하던 종으로 알려져 있음.
- 호양학교(1908-1920)는 1908년 구례의 애국지사와 유지자들이 고종정부의 학교설립 장려정책에 호응하여 지리산 남쪽 자락에 세운 사립학교임. 이 학교에서는 제자들에게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양의 신학문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던 황현의 가르침에 따라 근대적 민족교육을 실시하였음. 이 학교 졸업생 왕재일(王在-一) 등이 광주학생운동에 가담한 것을 보면 호양학교는 전남 구례 지역에서 구국인재의 산실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음. 호양학교는 일제가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을 강요함에 따라 1920년에 광의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었음.
- 해방 후 황현의 아들 황위현과 구례군의 유지들이 호양학교 복원운동을 벌여 1946년

에 방광학교(放光學校)를 개교하였음. 이 학교는 1999년에 폐교되었는데, 여기에 있던 ‘호양학교 동종’은 이후 구례교육지원청으로 옮겨져 보관 중임. 이 동종에 대해 구례사람들은 ‘호양학교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방광초등학교를 졸업한 인사들은 이 동종을 ‘호양학교종’이라고 부르며 치고 만졌다고 증언하고 있음.

- ‘호양학교 동종’에는 양면에 민족 자주의 상징인 태극문양이 양각되어 있고, 신라종의 특징인 비천상(飛天像)의 문양이 새겨져 있음. 또한 동종의 윗면에 조각된 용은 발톱이 5개인데, 이는 한국이 중국과 동등한 황제국이었음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임.
- ‘호양학교 동종’은 높이 37cm, 밑면지름 19.7cm, 외부둘레 63cm 크기의 작은 종임. 이 동종은 자료 부족으로 말미암아 제작자나 제작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음. 이 동종은 태극의 8괘를 잘못 새겨넣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동종이 현재 전남 해남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고, 또 독립기념관에도 태극문양이 들어간 동종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 동종은 모두 같은 장인이 같은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동종은 구한말 전남 구례지역의 민족학교인 호양학교에서 사용하던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동종이 호양학교 개교 이전이나 직후에 제작되어 호양학교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임. 아마도 1946년에 호양학교를 복원하여 개교한 방광학교 설립자들이 호양학교에서 사용하던 종을 모방하여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임. 나아가 전남 해남의 대흥사에 이와 동일한 동종이 소장되어 있고, 독립기념관에도 태극문양의 동종이 소장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희소성이나 유일성의 측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음.

3) 문헌자료

- 호양정신선양회 편, 『호양의 역사와 그 후예들』, 1996.
- 김항구, 「황현의 신학문 수용과 ‘호양학교’ 설립」, 『문화사학』 21, 2004.
-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구한말 전남 구례지역의 사립계 민족학교인 호양학교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진 ‘호양학교 동종’은 1) 해방 후 호양학교를 복원하여 개교한 방광학교 졸업자들이 이 동종에 대해 한결같이 ‘호양학교종’이라고 불렀고, 구례 현지에서도 모두 이 종을 ‘호양학교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2) 구한말이 아니라 해방 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종의 표면에 태극문양을 넣어 한국적 색채를 강조하려 하였지만, 동시에 1) 등록문화재 지정의 중요 요건 중 하나인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2) 전남 해남 대흥사에 이와 동일한 동종이 있고, 또 독립기념관에도 태극문양의 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3) 전남 해남 대흥사 동종의 경우처럼 동일한 동종이 또 발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찌그러진 부분을 원상태로 돌리고, 녹이 슨 표면을 화학 처리하여 동종의 원래 모습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없음.

<000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사(2018.8.2.)>

1) 현상

- 종은 매우 얇게 구조된 황동종으로 추정되며 종신의 태극문양과 비천상 사이에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이 있음. 전체적으로 구조상태가 좋지 않으며 종의 두께가 매우 얇아 추후 다른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내용 및 특징

- 호양학교 종으로 불리우는 이 종은 1908년 구례 광의면 지천리에 세워진 사립학교에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1900년대에 구례에는 몇 개의 사립학교가 건립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립학교가 호양학교라 할 수 있음. 호양학교의 설립은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910)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신학문의 필요성을 역설한 황현은 1908년에 사립 호양학교의 설립을 주도하였음. 호양학교를 설립하고자 한 취지와 목적은 부국강병의 신학문 교육과 함께 애국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음. 호양학교가 처음에 시작한 곳은 분명치 않으나 현재 호양학교가 복원된 지천리 지하마을에서 정식으로 개교하였음. 당시 왕수환(王粹煥), 왕재소(王在沼), 박태현(朴泰鉉), 권봉수(權鳳洙) 등 황현의 제자들과 지천리의 유지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주로 황현의 제자들이 교사나 교장으로 활동하였음.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호양학교는 1910년대까지는 왕제일과 같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점에서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사립학교라 할 수 있음. 그러나 3.1운동 이후 일제가 1면1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면단위에 있는 사립학교의 공립 전환을 강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호양학교는 1920년에 광의공립보통학교로 강제로 전환하게 되었음. 나아가 일제는 학교의 위치를 광의면 소재지인 연파리로 이전하였음. 항일의식을 함양하는 호양학교의 자취조차 없애려는 일제의 간교한 술책이었을 것임.
- 1945년 8월 드디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자 다시금 호양학교의 건립이 논의되었고 이에 황현의 아들인 위현(渭顯)과 박준동(朴俊東)의 주도로 학교건립에 착수하였음. 이때 구례의 유지 김종선(金鍾善, 제헌국회의원)은 학교 부지로 1만평과 건립기금 1만원을 기부하였고, 구례 천은사(泉隱寺)는 학교 건립에 필요한 목재를 기부하였음. 그리하여 1946년에 방광학교(放光學校)의 이름으로 개교하였는데, 이 이름은 학교가 건립된 지명에서 비롯된 것임.
- 한편, 방광초등학교는 1946년부터 1999년까지 운영되다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1999년 9월 1일자로 광의초등학교와 통합됨으로써 폐교되었음.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방후 건축한 방광초등학교의 교사(校舍)를 호양민속학습관(壺陽民俗學習館)으로 운영 중이며, 이 건물은 2004년에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음. 호양학교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방광초교 제1회 졸업생들이 호양회를 설립했는데, 2003년에 호양정신선양회로 개편되었음. 이 모임에서는 1996년에 『壺陽會誌』 창간호를 간행한 이래 호양학교 복원운동을 전개해옴. 2006년에 이르러 구례군은 옛 호양학교터에 교사(校舍)를 복원하고, 부지 안에 복원기념비를 세웠음.
- 현재 구례교육지원청에는 ‘호양학교 종(鐘)’이라 전해지는 종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종은 1999년에 방광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종의 관리주체가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된 것임. 지금까지 구례사람들은 이 종을 ‘호양학교종’이라고 불러 왔다고 함. 하지만 현

재까지는 호양학교종의 제작시기나 제작자를 알려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다만, 방광초등학교 4회로 졸업하신 이영렬 어르신(매천정신선양회장)은 재학시절 이 종을 치고 만졌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때에도 ‘호양학교종’이라 불렀다고 기억함.

- 이 종을 미술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범종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한 마리의 용이 표현되어 있고 상대와 하대, 연곽과 연뢰가 표현되어 있음. 따라서 호양학교 종은 사찰에서 사용하는 범종으로 제작되었다고 생각됨. 이 종의 종신(鐘身)에는 태극문양과 비천상(飛天像)이 번갈아 시문되어 있음. 하지만 용뉴(龍鈕)의 모습이 전통종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며 음관(音管)이 가운데 위치하고 그 주위를 용이 또아리를 틀 듯이 표현 되어 있음. 이 종과 유사한 형태의 종이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용뉴의 형태가 조금 다를 뿐 종신에 표현된 문양과 종의 크기 또한 거의 유사함. 이 두 종은 상대, 하대, 연곽에 포도문을 장식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과 함께 당좌(撞座) 부분에 태극기 문을 장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함. 이 태극문은 19세기 말에 제작된 태극기 문양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근대시기에 제작된 범종들과 비교해볼 때 양식적으로 유사점을 찾을 수 없으며 명문이 새겨져 있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움. 이 두 종의 양식적 특징을 비교해 볼 때 대흥사 소장 범종과 호양학교 종이라 불리는 이 두 종은 같은 장인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장인의 기술적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됨.

	
<p>대흥사 서산대사 박물관 태극문 범종 전체높이 35.4cm, 입지름 20.5cm</p>	<p>호양학교 범종 전체높이 37cm, 입지름 19.5cm</p>

3) 문헌자료

- 『黃玿全集』 상, 아세아문화사, 1978, 491-492쪽 ; 『매천집』 4, 한국고전번역원, 2010, 234-236쪽.
- 金詳國, 「梅泉先生墓誌銘」, 1943 ; 『국역 황매천 및 관련인사 문목취편』 상, 147쪽,
- 권봉수, 「放光學校創建 顛末記」(1946), 『호양의 역사와 그 후예들』, 57쪽.
- 『求禮續誌』 상, 1922 ; 『續修求禮誌』 상, 1962
- 최승효 편, 『국역 황매천 및 관련인사 문목취편』 상 하, 미래문화사, 1985.
- 『壺陽의 歷史와 그 後裔들』, 호양정신선양회 편, 1996.
- 金項旬, 「黃玿의 新學問 受容과 ‘壺陽學校’ 設立」, 『文化史學』 21, 2004.
- 황수정, 「梅泉 黃玿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6.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호양학교 종이라 전해지는 이 종은 같은 형태의 종이 현재 대홍사 선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대홍사 선사박물관 종과 달리 이 종은 학교에서 알림을 위한 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현재 용뉴의 형태로는 고리에 걸었을 때 종이 뺄어지게 되어 있으며 현재 종신의 찌그러진 부분도 종을 쳐서 손상 되었다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위에서 무언가에 눌러 찌그러진 형태로 보임. 타종의 흔적이나 용뉴 부분에 고리를 걸었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그 이유임. 따라서 이 종을 학교에서 치고 만지고 사용했던 종이라고 증언한 부분도 신빙성이 없으며 종신에 표현된 문양 또한 근대 보다는 광복 이후 1950년~60년대에 제작된 종에서 보이는 양식을 따르고 있어 지역민들이 기억하는 호양학교 종이 현재 구례교육지원청의 종인지 확신할 수 없음. 종의 양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이 종은 현재 훼손 부위가 심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정도로 우수한 작품이라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종과 호양학교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 종은 문화재 등록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향후 근현대 자료로 보존할 필요는 있음.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없음

<OOO 순천대학교 명예교수(2018.8.2.)>

1) 현상

- 종의 표면에 찌그러진 부위가 적지 않으며, 종의 두께가 얇아 손상이 쉬울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보존의 필요성이 있음. 표면에 양각된 태극문양은 비교적 선명하나 비천상은 마모가 심한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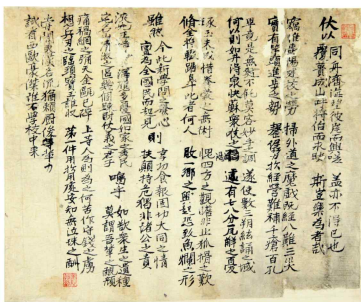
2) 내용 및 특징

호양학교종 / 작자 불분명
제작시기 불분명
형태 : 37x19.5cm,

- ‘호양학교종’ ; 호양학교(壺陽學校)는 1908년 구례 광의면 지천리에 세워진 사립학교임.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방호산(方壺山, 일명 方丈山)의 남쪽 자락에 있는 학교라는 의미로 호양학교라 하였음. 1900년대에 구례에는 몇 개의 사립학교가 건립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립학교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호양학교의 설립은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910)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 그가 「사립호양학교모연소(私立壺陽學校募捐疏)」를 지었다는 점에서 그러함.
- 당시 황현은 부국강병을 위한 신학문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권유하였음. 그는 제자들에게 “내 나이 너보다 많으나 서양의 후생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배워 쇠한 우리나라의 시국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하거나, “너희들은 그릇된 학문을 하지 말고 신학문에 눈을 뜨라”고 가르쳤음. 그는 서양의 신학문을 배우기를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부하라고 강조함. 당시 그는 서양의 침략을 비판하면서도 그들로부터 양육강식(弱肉強食)을 면하기 위해서는 서양제국의 부강과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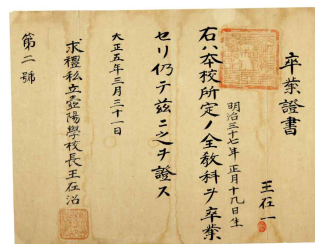
- 그러나 나라는 그대로 망하게 둘 수 없고 백성은 이대로 죽게 할 수 없다. 오직 분발하고 전력을 다하여 힘껏 그들과 대적하여 약육강식은 면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천하를 향해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외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되려면 방법은 무엇일까? 저들의 부강함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강해지려면 저들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근래에 신학교가 세워진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이유이다 (『매천집』, 이기찬 옮김, 59쪽).
- 위와 같이 그는 사회진화론적 인식을 수용하면서 신학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그는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이용후생의 본뜻에 부합한다고 보았음.
- 신학문의 필요성을 역설한 황현은 1908년에 사립 호양학교의 설립을 주도하였음. 호양학교를 설립하고자 한 취지와 목적은 부국강병의 신학문 교육과 함께 애국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음. 호양학교는 구례군 광의면(光義面) 지천리(芝川里)에 건립되었음. 호양학교가 처음에 시작한 곳은 분명치 않으나 현재 호양학교가 복원된 지천리 지하마을에서 정식으로 개교하였음. 당시 왕수환(王粹煥), 왕재소(王在沼), 박태현(朴泰鉉), 권봉수(權鳳洙) 등 황현의 제자들과 지천리의 유지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주로 황현의 제자들이 교사나 교장으로 활동하였음.
-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1911년에 호양학교의 교장은 박태현이었으며, 교원은 왕수환으로 교사의 월봉이 7원이었음. 1912-1916년 사이에는 왕재소가 교장이었으며, 그 시기에 졸업한 학생으로는 왕인석(王仁錫), 박해옥(朴海玉), 왕재일(王在一) 등이었음. 그 중에서 왕재일은 호양학교를 졸업한 후 1922년에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동아일보 신문배달 등의 고학을 하며 어렵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일활동을 전개하였음. 그는 1926년 장재성 등과 같이 성진회(醒進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임. 그 후에도 왕재일은 신간회와 전남농민협의회 등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벌인 독립유공자로서 애국장을 추서받았음.



모연소(황현)



교원임명장(왕수환)



호양학교졸업증서(왕재일)

-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호양학교는 1910년대까지는 왕재일과 같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점에서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사립학교라 할 수 있음. 그런데 3.1운동 이후 일제가 1면1교운동을 전개하면서 면단위에 있는 사립학교의 공립 전환을 강요하였음. 이 과정에서 호양학교는 1920년에 광의공립보통학교로 강제로 전환하게 됨. 나아가 일제는 학교의 위치를 광의면 소재지인 연파리로 이전하였음. 항일의식을 함

양하는 호양학교의 자취조차 없애려는 일제의 간교한 술책이었을 것임.

- 1945년 8월 드디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자 다시금 호양학교의 건립이 논의되었음. 그리하여 황현의 아들인 위현(渭顯)과 박준동(朴俊東)의 주도로 학교건립에 착수함. 이때 구례의 유지 김종선(金鍾善, 제헌국회의원)은 학교 부지로 1만평과 건립기금 1만원을 기부하였고, 천은사는 학교 건립에 필요한 목재를 기부하였음. 그 밖에도 박해영 권명수 유홍로 권도수 박해두 양한태 이용식 김성동 박해출 하용화 허창섭 등이 학교 건립에 큰 도움을 주었음. 그리하여 1946년에 방광학교(放光學校)의 이름으로 개교하였는데, 이 이름은 학교가 건립된 지명에서 비롯된 것임.
- 한편, 방광초등학교는 1946년부터 1999년까지 운영되다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1999년 9월 1일자로 광의초등학교와 통합됨으로써 폐교되었음.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은 해방후 건축한 방광초등학교의 교사(校舍)를 호양민속학습관(壺陽民俗學習館)으로 운영 중이며, 이 건물은 2004년에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음. 호양학교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방광초교 제1회 졸업생들이 호양회를 설립했는데, 2003년에 호양정신선양회로 개편되었음. 이 모임에서는 1996년에 『壺陽會誌』 창간호를 간행한 이래 호양학교 복원운동을 전개해왔음. 2006년에 이르러 구례군은 옛 호양학교터에 교사(校舍)를 복원하고, 부지 안에 복원기념비를 세웠음.
- 그런데 현재 구례교육지원청에는 ‘호양학교종(鐘)’이 전해지고 있음. 1999년에 방광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종의 관리주체가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된 것임. 이 종의 표면에는 태극 문양이 두 곳에 선명하게 양각되어 있고, 신라종의 특징인 비천상(飛天像) 문양도 새겨져 있음. 또한 종의 윗면에는 자주독립국의 상징인 용의 발톱 다섯 개가 도드라져 있음. 그런데 이 종은 언제 누가 제작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음. 지금까지 구례사람들은 ‘호양학교종’이라고 부르며 전해져 왔을 뿐임. 현재까지는 호양학교종의 제작시기나 제작자를 알려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다만, 방광초등학교 4회로 졸업하신 이영렬 어르신(매천정신선양회장)은 재학시절 이 종을 치고 만졌다고 증언하심. 그때에도 ‘호양학교종’이라 불렀다고 기억하심. 구례 사람들이 이 종을 ‘호양학교종’이라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호양학교가 건립된 1908년부터 폐교된 1920년 사이에 ‘호양학교종’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일 것임.
- 한편, 1895년의 북한지역에서는 이미 신학문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음. 김구가 쓴 『백범일지』에, “함경도에 들어서서 가장 감복한 것은 교육제도가 황해도나 평안도보다 발달된 것이었다. 흥원지경 어느 서재에는 선생이 세 사람이 있어서 학과를 고등 중등 초등으로 나눠서 각각 한 반씩 담당하여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옛날 서당으로서서는 드문 일이었다. 서당 대청 좌우에는 북과 종을 달고 북을 치면 글 읽기를 시작하고, 종을 치면 쉬었다.”라고 되어 있음. 함경도의 신학교에서는 북과 종을 달아놓고서 수업의 시작은 북으로, 끝은 종으로 알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3) 문헌자료

- 『黃玹全集』 상, 아세아문화사, 1978, 491-492쪽 ; 『매천집』 4, 한국고전번역원, 2010, 234-236쪽.
- 金詳國, 「梅泉先生墓誌銘」, 1943 ; 『국역 황매천 및 관련인사 문목취편』 상, 147쪽,
- 권봉수, 「放光學校創建 顛末記」(1946), 『호양의 역사와 그 후예들』, 57쪽.
- 『求禮續誌』 상, 1922 ; 『續修求禮誌』 상, 1962
- 최승효 편, 『국역 황매천 및 관련인사 문목취편』 상 하, 미래문화사, 1985.

- 『壺陽의 歷史와 그 後裔들』, 호양정신선양회 편, 1996.
- 金項句, 「黃玑의 新學問 受容과 ‘壺陽學校’ 設立」, 『文化史學』 21, 2004.
- 황수정, 「梅泉 黃玑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6.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호양학교는 1908년 구례의 우국지사 황현과 그 제자들의 주도로 건립한 작은 규모의 사립학교였음. 하지만 망국을 전후한 시기에 민족정신을 양양하기 위한 교육에 매진하여 독립운동가 왕재일을 배출하였음. 이 학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종의 크기도 작았을 것임. 따라서 굳이 이 종을 매달아 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세워놓은 상태로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렸을 것으로 추정됨. 요컨대, 망국전후 민족교육의 사립학교에 설치된 종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물론 해방직후 방광초등학교를 건립하면서 현재의 호양학교종을 제작 혹은 구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면 방광학교종이라 불려졌어야 마땅할 것임.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종을 방광학교종이라 부르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음.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모른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추정을 통해 타당성이 있다면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 손상된 부분의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16. 「백범 김구 유묵 '知行合一', '老當益壯」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백범 김구 유묵 '知行合一', '老當益壯」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 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백범 김구 유묵 '知行合一', '老當益壯」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자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장
-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판종	형식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백범 김구 유묵 '知行合一', '老當益壯'	2점	「知行合一」 (33.0×132.0cm), 「老當益壯」 (30.0×138.0cm)	지본 묵서	필사	액자	1948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장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 학교 석당박물관	

- (2) 추진경과
 - 문화재 등록 신청('17. 9. 13.)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7. 9.)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7.9.)

- 2점 모두 김구 유묵으로서 진정성이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함. 그러나 현재 김구 유묵이 15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유묵들을 전수 조사하여 비교 검토를 통해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묵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000 문화재 위원(2018.7.9.)

- 김구 유묵은 이미 조사된 바와 같이 현전하는 것이 적지 않은 탓에, 그 중에서 엄선할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현재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등록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000 문화재 전문위원(2018.7.9.)

- <지행합일>은 1948년 11월경에 쓴 것이고, <노당익장>은 1948년 7월에 쓴 것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함. 그러나, 김구선생의 유묵은 많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와 관련하여 타기관 소장본과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만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김구 유묵에 대한 전체조사(전문가 자문 등) 후 재검토
- 출석 10명 / 보류 10명

<붙임>

「백범 김구 유묵 '知行合一', '老當益壯」 조사보고서

1. 명 칭 : 백범 김구 유묵 '知行合一', '老當益壯'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3. 소유자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 위원(2018.7.9.)>

1) 현상

- 2점 모두 액자가 끼워진 상태이며 보존 상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知行合一>

- “知行合一” 라는 4글자가 가로로 화면의 중앙에 쓰여 있으며 화면 왼쪽에 세로로 “大韓民國 三十年 七月 一日 臨時政府 主席 辦公室 七十三歲 白凡 金九”라는 묵서와 백문방인(白文方印) ‘김구지인(金九之印)’과 주문방인(朱文方印)의 ‘백범(白凡)’ 인장이 찍혀있으며 오른쪽 상단 ‘知’가 시작되는 부분에 ‘관실(實和)’이라는 頭印를 찍혀 있음. 김구의 인장(實和, 金九之印, 白帆, 등록문화재 제 440-3호)을 모두 찍어 낙관했음.
- “知行合一”은 중국 명대의 사상가 왕양명이 주장한 것으로, ‘지식과 행동이 서로 맞음’을 의미함. ‘대한민국 30년’으로 제작연도를 밝히고 본인의 신분을 ‘임시정부 주석’으로 밝힌 것으로 보아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쓴 유묵으로 판단됨.

<老當益壯>

- “老當益壯”이라는 4글자가 가로로 화면의 중앙에 쓰여 있으며 화면 왼쪽에 세로로 “戊子 仲冬 白凡 金九”라는 묵서와 백문방인(白文方印) ‘김구지인(金九之印)’과 주문방인(朱文方印)의 ‘백범(白凡)’ 인장이 찍혀있으며 오른쪽 상단 ‘知’가 시작되는 부분에 ‘관실(實和)’이라는 頭印를 찍어 김구의 인장(實和, 金九之印, 白帆, 등록문화재 제 440-3호)을 모두 찍어 있어, 앞서 언급한 <知行合一>가 한 쌍처럼 보임. 그러나 제작 시기가 다른 것으로 판단됨. 다시 말해, 대한민국을 쓰지 않고 “戊子”(1948년)만을 표기하고 제작 시기를 “仲冬”이라고 적고 있음.¹⁾ 따라서 정부수립 이후 1948년 음력 11월에 쓴 유묵으로 추정됨.
- ‘늙었어도 기운이 더욱 씩씩함(나이가 들면 씩씩한 패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老當益壯’은 『후한서(後漢書)』 마원전(馬援傳)에 나오는 말로,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김구의 기원이 담긴 유묵으로 보임.

3) 기타(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知行合一>은 2016년 9월 6일 고려산업 신성수회장이 동아대 석당박물관에 기

1) “仲冬”이라는 글자가 행서로 쓰여 있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석당박물관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小雪”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 조사자의 소견으로는 “仲冬”으로 판단됨(도판 1 참조)

중한 것이고 <老當益壯>은 1973년 12월 10일 동아대에서 입수하여 수장한 것임. 백범 김구는 1932년 4월 윤봉길의사 의거 이후 본격적으로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알려진 유묵은 약 150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김구 유묵 전수 조사를 통해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비교 판단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2점 모두 김구 유묵으로서 진정성이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함. 그러나 현재 김구 유묵이 15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유묵들을 전수 조사하여 비교 검토를 통해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묵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김구 유묵 전수 조사하여 가치를 비교 검토 후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OOO 문화재 위원(2018.7.9.)>

1) 현상

- 대체로 온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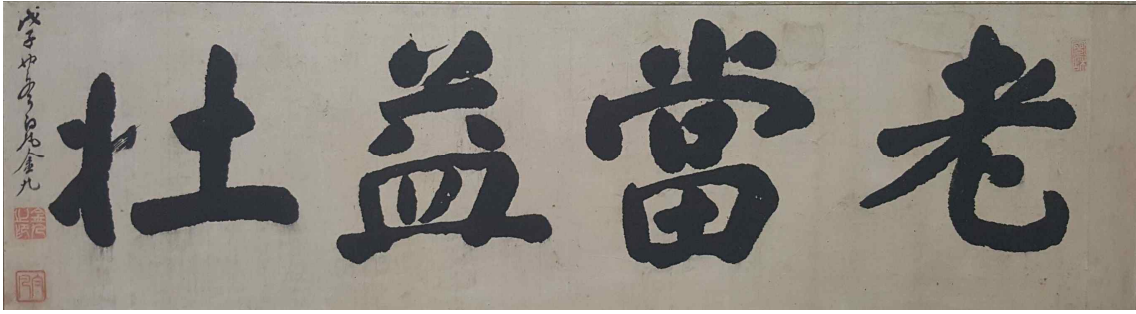
2) 내용 및 특징

- 『백범 김구 유묵』(「知行合一」, 「老當益壯」) 등 2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김구(1876.7.11.~1949.6.26.)가 쓴 친필 유묵임. 현재 두 유묵은 액자 상태이나 「知行合一」은 전면에 유리가 있고, 「老當益壯」은 유리가 없음.



<사진1> 석당박물관 소장의 김구 유묵 「知行合一」

- 지식과 행동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뜻의 「知行合一」 유묵의 왼쪽에는 “대한민국 30년 7월 1일 임시정부주석 관공실 73세 백범 김구(大韓民國三十年七月一日臨時政府主席辦公室) 七十三歲白凡金九”와 같이 1948년 7월 1일에 당시 73세이던 김구가 쓴 것임. 이 시기는 이승만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직전이 됨. 이 글 아래에는 백문방인 「金九之印」과 주문방인 「白凡」이 날인되어 있음.



<사진2> 석당박물관 소장의 김구 유묵 「老當益壯」

- 「老當益壯」은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더 좋아지거나 또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글이지만 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뜻을 더욱 굳게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음. 이 유묵은 왼쪽의 “戊子初冬白凡金九”와 같이 무자년, 곧 1948년 10월에 김구가 쓴 것임. 김구는 이승만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후에는 “임시정부주석 관공실”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유묵 역시 이러한 문구가 없음. 정부가 글 아래에는 백문방인 「金九之印」과 주문방인 「白凡」이 날인되어 있음.
- 이 글은 윤봉길 의사가 김구에게 드린 시(「윤봉길 의사 自書略歷及遺囑」, 독립기념관 자료번호 1-H01033)에서 “巍巍青山兮여 載育萬物이로다. 鬱鬱蒼松兮여 不變四時로다. 濯濯鳳翔兮여 高飛千仞이로다. 舉世皆濁兮여 先生獨淸이로다. 老當益壯兮여 先生義氣로다. 臥薪嘗膽兮여 先生赤誠이로다.”와 같이 사용한 적이 있음. 이 「老當益壯」 유묵은 다수가 전하는데 아래의 것도 그 하나임.



<사진3> 한국데이타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김구 유묵 「老當益壯」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의 두 유묵은 김구가 1948년에 쓴 친필유묵임. 그러나 김구가 두 작품을 동시에 쓴 것은 아니므로 후대에 함께 수집하여 보관해 온 것으로 추정됨.

3) 기타(참고자료)

- 동아대박물관 소장 백범 김구 유묵 조사보고서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김구 친필 유묵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제법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김구의 유묵은 3점이 있음. 이중에서 제442-1호(백범 김구 유묵 「韓美親善平等互助」)은 1949년 1월에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 헨더슨(Gregory Henderson)에게 써 준 것으로 사료적, 상징적인 가치가 큼. 또

제442-2호(명칭 백범 김구 유묵 「愼其獨」)와 제442-3호(백범 김구 유묵 「思無邪」)는 서거 당시 김구의 책상 위에 있었던 것으로 혈흔까지 남아 있어서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임.

- 이 두 유묵은 기 등록된 3점의 유묵보다 사료적, 역사적, 상징적인 가치를 찾기는 어려움. 또 「知行合一」은 근래 옥션에 나온 작품이 몇 점 보이고, 「老當益壯」도 같은 해에 쓴 것이 전하는 등 둘 다 유일하게 사용된 문구는 아님.
- 김구 유묵은 이미 조사된 바와 같이 현전하는 것이 적지 않은 탓에, 그 중에서 엄선할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현재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등록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현재로서는 등록문화재로서 미흡하다고 판단됨

<OOO 문화재 전문위원(2018.7.9.)>

1) 현상

- 김구 유묵 2점은 모두 표구가 되어 손상이 없이 모두 양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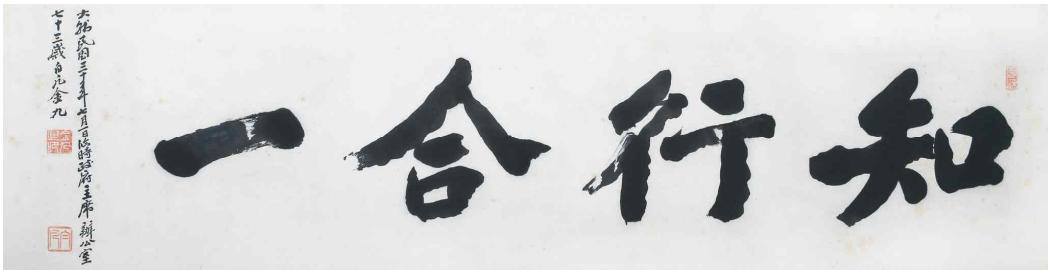
2) 내용 및 특징

- 老當益壯 : 늙었어도 기운이 더욱 씩씩함(나이가 들면 씩씩한 패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뜻). 이 유묵은 1973년 동아대에서 입수한 것임. 일반적인 백범의 휘호와 달리 “戊子 初冬 白凡 金九”라고 적고, 양각 백문방인(白文方印) ‘김구지인(金九之印)’과 음각 주문방인(朱文方印) ‘백범(白凡)’ 두 개의 도장을 찍었음. ‘무자년(戊子年)’은 ‘1948년’이고, ‘초동(初冬)’은 음력 10월을 지칭하기 때문에 양력으로 11월경임. 이 휘호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쓰지 않았다고 판단됨.
- ‘노당익장’은 『후한서(後漢書)』 마원전(馬援傳)에 나오는 말임. 이 유묵도 남북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있을 무렵, 나이가 많지만은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비록 몸은 늙었지만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쓴 것으로 보임.
- 知行合一 : 지식과 행동이 서로 맞음(참 지식은 반드시 실행이 따라야 한다는 뜻). 이 유묵은 2016년 9월 6일 고려산업 신성수 회장이 동아대 석당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1948년 7월 1일 백범이 73세 때 것이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낙관에는, “大韓民國 三十年 七月 一日 臨時政府 主席 辦公室 七十三歲 白凡 金九”라고 적고, 음각 백문방인(白文方印) ‘김구지인(金九之印)’과 양각 주문방인(朱文方印)의 ‘백범(白凡)’ 두 개의 도장을 찍었음. ‘행’과 ‘합’의 세로로 내려오는 획에서 약간의 붓의 흔들림 현상을 보이고 있음. 김구선생의 주도로 1938년 5월 7일 중국 호남성(湖南省) 창사(長沙)에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우파 3당 통합회의 도중 피격을 당한 이른바 ‘남목청(楠木廳)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때 이에 불만을 품은 이운한(李雲漢)이 김구선생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고 한 달 가량을 치료를 받았음.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손의 떨림이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음. 이운한의 총격을 받은 김구가 소생할 가망이 없어 보이자, 의사들은 백범에 대해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문간방에 놓아두고 장남 인과 안공근에게 사망소식을 알리는 전보를 쳤음. 『백범일지』에는 “4시간 동안만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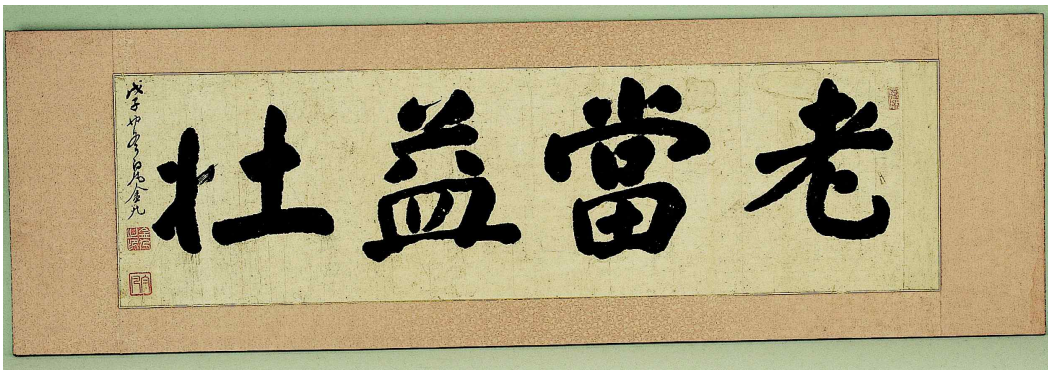
이 연장되면 판법(辦法)이 있을 듯하다” 하였음. 그러나 4시간이 지나도 백범의 목숨이 살아있자, 의사들은 백범을 입원시키고 치료하기 시작했음.

- ‘지행합일’이라고 쓴 유묵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쓴 것임. 이 때는 백범이 1948년 4월 남북협상을 다녀와서,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있을 무렵임. ‘지행합일’은 중국 명대의 사상가, 왕양명(王陽明)이 주장한 것임. 백범은 주자학 관념에만 치우치고, 실천이 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적한 것임. 당시 김구는 우리 민족이 분단되고, 이념과 정파에 갈려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통일’을 지향하던 그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임.

[사진 1] <지행합일>



[사진 2] <노당익장>



3) 문헌자료

- 김구 지음, 도진순 탈초·교감, 『정본 백범일지』, 돌베개, 2016, 438쪽.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 당시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 귀환하여서도 독립운동가 후손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휘호를 써주었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는 1948년 김구선생이 쓴 유묵 2점이 소장되어 있음.
- 김구 선생 휘호의 가장 큰 특징은 글씨를 쓸 때, ‘大韓民國 ○○年 ○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主席 辦公室 白凡 金九’라고 적었음. 하지만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大韓民國臨時政府 主席 辦公室’은 많이 쓰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음. <노당익장> 휘호는 1948년 7월 정부 수립 이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연호와 ‘임시정부 판공실’이라고 적고 있음. 그러나 <지행합일> 휘호는 1948년 11월경에 쓴 것이라, ‘무자년(戊子年) 초동(初冬)’이라고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백범의 유묵에도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음. 1949년 1월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 헨더슨 (Gregory Henderson, 1922~1988)에게 써 준 휘호인 ‘韓美親善平等互助’에는 ‘대한민국 31년’이라고 썼음. 그리고, 1949년 6월 26일 서거 당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루마리 유묵 2점(愼其獨, 思無邪)에도 ‘대한민국 31년’이라는 연호를 썼음.

- 김구 선생 유묵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많은 작품이 있음. 어린 시절 한학을 수학하였고, 청년기에는 동학에 입교하였으며, 위정척사사상을 전승 받았고, 불교에도 잠시 몸을 두었으며, 기독교에 귀의하기도 했음. 백범의 유묵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상을 당시의 시대상에 맞게 휘호하였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진 작품이 있음. 백범의 유묵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의하면, 150점이 넘는다고 함. 따라서, 150점 모두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범 유묵은 상황과 시대상에 맞게 휘호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김구유묵 모두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만 한다고 사료됨.
-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된 2점의 유묵은 백범 김구선생의 활동과 관련된 역사성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유묵 전반에 대한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자의 견해임.

5) 종합의견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행합일>, <노당익장> 두 점의 유묵은 백범 김구선생이 1948년에 쓴 것으로 판단됨. <지행합일>은 1948년 11월경에 쓴 것이고, <노당익장>은 1948년 7월에 쓴 것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함. 그러나 김구선생의 유묵은 많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와 관련하여 타기관 소장본과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만 함.